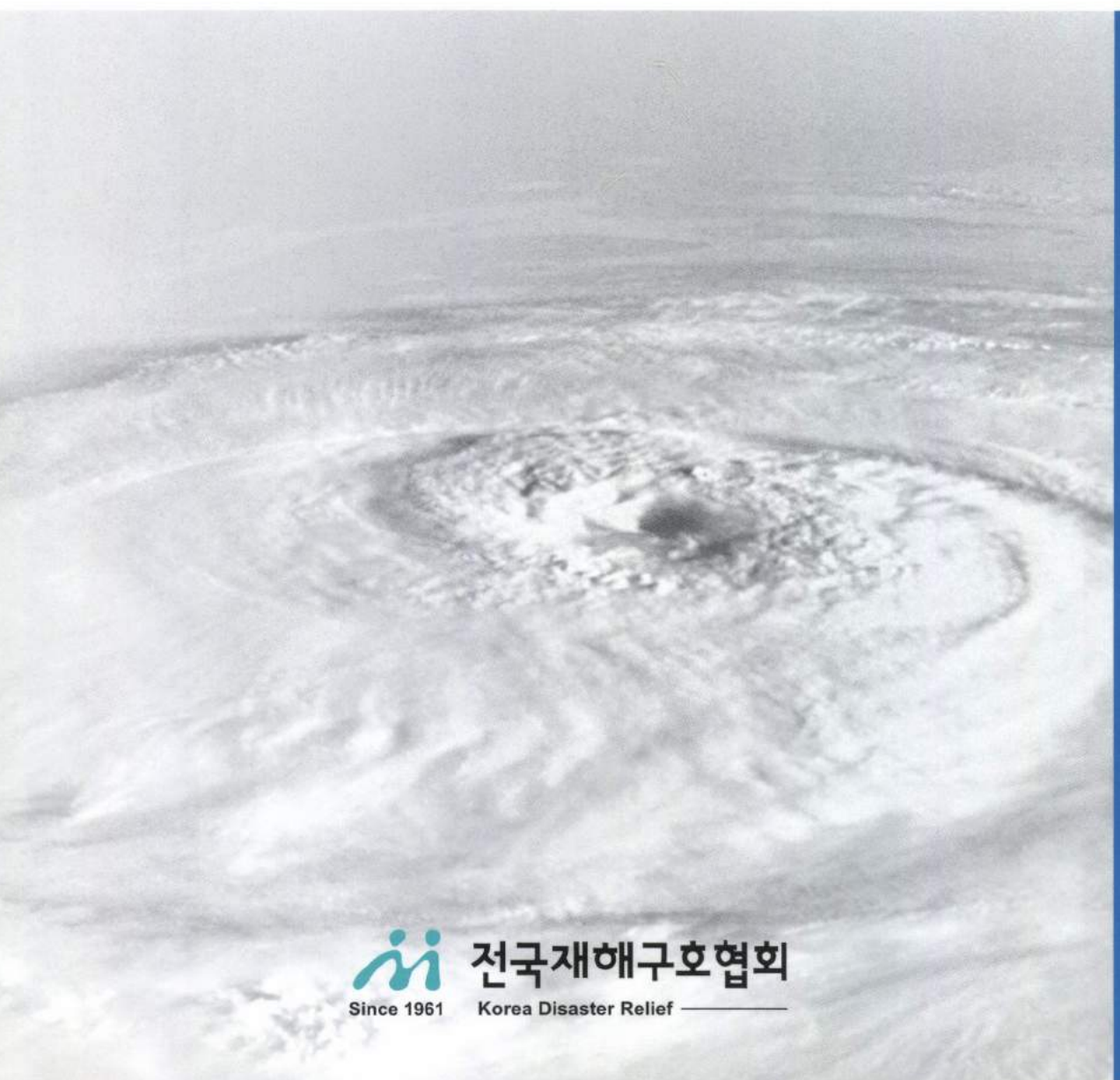




Since 1961

재해구호 반세기,
사랑나누기 반세기

2008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Since 1961

전국재해구호협회

Korea Disaster Relief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08. 11

연구책임자 정 순 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연구보조원

김고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김은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최여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목 차

I.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문헌고찰	5
1. 재해의 정의	5
2. 재해실태	6
3.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관련연구	11
4. 재해피해주민 관련연구	15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7
1. 연구내용	17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8
3. 연구도구	20
4. 자료분석	26
IV. 연구결과	27
1. 재해피해주민 분석 : 재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재건을 위한 자원 봉사자 구호서비스 개선방안 모색	27
2.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분석 : 효율적인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모색	55
3. 관련기관 분석 : 효율적인 재해구호활동 전략 및 실천방안 모색	72
V. 결론	109
VI. 제언	123

참고문헌	137
부 록	143

표 목 차

[표 1] 시기별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내용	14
[표 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19
[표 3] 재해피해주민의 일반적 특성	29
[표 4] 재해피해주민의 건강상태	31
[표 5] 재해피해주민의 PTSD	32
[표 6] 재해피해주민의 증상경험	34
[표 7] 재해피해주민의 재해경험	35
[표 8] 재해피해주민의 재해인식	36
[표 9] 재해로 인한 사람들과의 관계변화	37
[표 10] 재해피해주민의 미래계획변화	38
[표 11] 재해시 지원받은 곳	39
[표 12] 자연재난(수해) 피해주민이 받은 지원내용과 충분정도	41
[표 13] 원유유출피해주민 지원내용과 충분정도	42
[표 14] 재해피해주민의 자원봉사 인식	44
[표 15] 재해피해주민의 자원봉사 불만족 이유	44
[표 16] 재해피해주민의 복지욕구 : 도움받고 싶은 대상	46
[표 17] 재해피해주민의 복지욕구 : 도움받고 싶은 내용	47
[표 18] 재해피해주민의 재해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	48
[표 19] 재해피해주민의 재해예방 대처교육 및 홍보현황	50
[표 20] 재해피해주민의 재해 및 복구과정시 지역사회 활동인식	51
[표 21] 재해피해주민의 지역내 주민조직 참여	52
[표 22]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성	56
[표 23]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후 신체적·정신적 문제	58
[표 24]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특성	62
[표 25]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내용	65

[표 26]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시의 사람들과의 관계	67
[표 27]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및 소속기관에 대한 인식	69
[표 28]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지원욕구	69
[표 29] 재해지역 복구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원봉사활동	70
[표 30] 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91
[표 31]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봉사단 조직	97
[표 32] 소방방재청 훈령 제79호 의연금 지급기준	105

그림목차

[그림 1] 연구흐름도	17
[그림 2] 재해피해주민의 PTSD	32
[그림 3] 재해시 지원받은 곳	39
[그림 4] 자연재난(수해) 피해주민들이 지원받은 내용	40
[그림 5] 원유유출피해주민들이 지원받은 내용	43
[그림 6] 재해피해주민의 복지욕구 : 도움받고 싶은 대상	46
[그림 7] 재해피해주민의 도움받은 대상과 도움받고 싶은 대상비교	46
[그림 8] 재해피해주민의 복지욕구 : 도움받고 싶은 내용	47
[그림 9]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내용	65
[그림 10] COAD 재해관리 파트너십 계획의 사이클	83
[그림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	87
[그림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진행과정	89
[그림 13] 대한적십자사 조직	94
[그림 14] 환경운동연합 조직	101
[그림 15] 전국재해구호협회 조직	104
[그림 16] 전국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활동체계	107

I.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가 복잡해지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사건들로 인해 사람들의 안전은 더 많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안전에 대한 위험(risk)은 자연재난을 비롯해 인적재난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의 복지와 안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도 수해와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재해의 발생은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뿐 아니라 발생 후 피해주민의 삶에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대 사회에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정순돌, 기지혜, 2007).

재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지만, 이미 재해가 발생한 후의 사후 관리는 재해피해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며, 2차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재해구호 대처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 일차적인 역할은 정부와 같은 공공부문의 조직에 있지만, 공공부문은 조직의 특성상 형평성을 우선으로 하기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재해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전국재해구호협회, 2007). 따라서 재해시 민간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민간부문의 재해구호활동은 대부분 지역의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위험(shared risk)을 지역사회가 공동의 책임(shared responsibility)으로 여기고(권태호, 박희, 양기근, 2007) 재해에 대한 위협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 해결하려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재해 발생시 재해피해주민 구호에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공공부문의 정책이나 제도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강조되고

있다. 태풍 ‘루사’ 때 40만명 이상, 태풍 ‘매미’ 때는 70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였고, 2006년 강원도 수해지역 피해주민의 인적도움 자원의 22%가 자원봉사자로 나타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순달, 김고은, 박지영, 2008). 특히 2007년 발생한 태안반도 원유유출의 경우에는 100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태안을 방문하여, 행정자치부는 2008년 1월 17일 ‘태안 자원봉사자 활동’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실태 및 활용 내용이나 관리 등을 살펴보게 되면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우선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내용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점을 들 수 있다.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이 일시적인 인력적 지원과 후원으로만 인식되고 있으며(홍원화, 여명길, 전규엽, 이지희, 2004),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의 가장 두드러진 분야 역시 급식 및 음식물 지원활동으로 나타나 단순한 활동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홍원화, 여명길, 전규엽, 이지희, 2004; 전국재해구호협회, 2007). 또한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의 위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데 재해시에 겪는 정신적 외상은 사고를 직접 당한 피해주민들에게 뿐만아니라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 자원봉사자들은 재해구호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다. 실제적으로 태안지역을 방문한 자원봉사자들이 장시간 유해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5만명이 두통과 구토, 설사, 몸살 등 후유증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보고(강혜숙, 2008)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한편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 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 활동시스템이 부족하여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을 찾아 왔지만 이들을 맞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였다(성기환, 2008). 또한 자원봉사센터가 지역마다 있긴 하지만 재해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실제로 태안지역 재해시에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이 사진만 찍고 가는 등의 우왕좌왕한 모습만 보였다는 비판도 있었다(신동아, 2008). 그리고 배치상의 관리의 소홀로 인해 재해발생 초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자수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복구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은애, 2005). 또한 자원봉사자의 욕구나 역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활동에 모두 배치됨으로써 활동내용이 중복되어 봉사자로 하여금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지역 주민들의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구체적인활동을 찾아보고자 한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관리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민간기구로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자원봉사사업 및 발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재해의 정의

1) 재해의 개념

재해(災害)란 날씨 등의 자연 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총칭한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해의 원인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으로 나누어진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폭설, 지진, 적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일컫으며, 인적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등과 같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이다. 또한 사회적 재난은 에너지, 교통, 통신, 금융, 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이렇게 재해의 원인에 대한 분류는 재난의 특성에 따라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으나(김태환, 2003), 전통적으로 재난은 크게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재난(Natural disaster)과 인간의 부주의와 실수, 사후관리의 불충분함으로 발생하는 인적재난(Man-made disaster)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한동우외, 2004).

2)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의 특징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Baum et all(1983)은,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태풍, 홍수, 폭설, 지진, 적조 등의 자연재난의 특징을 갑작스럽고(Suddenness), 강력한(Powerful) 사건으로써, 대개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동반하며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인적재난 역시 자연재난처럼 갑작스럽고(Suddenness) 강력한(Powerful) 사건으

로써, 대개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동반하나, 자연재난보다도 의외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인적 재난의 이러한 불예측적 특성은, 재난 발생 시 적절한 통제와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자연재난 피해주민들에 비해 더 큰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게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 재해실태

1) 국내 실태

한국에서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다양한 형태로 일어났다. 1990년대 이후부터 주요 재해를 살펴보면, 서해페리호사건(1993), 아시아나 여객기 목포 추락사고(1993), 충주호유람선화재(1994), 구포역 열차탈선사고(1993),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1994), 성수대교 붕괴(1994), 삼풍백화점 붕괴(1995),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1997), 씨랜드 참사(1999), 강원도일대의 태풍 '루사'(2002), 강원도 일대의 태풍 '매미'(2003), 대구 지하철 화재(2003), 지리산일대 폭설(2005), 태풍 '나비'(2005),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 피해(2006), 전남과 제주도 일대의 태풍 '나리'(2007),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2007) 등이다. 이러한 재해 중 자연재난으로는 강원도 인제, 평창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에위니아)와 인적재난으로는 씨프린스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연재난 - 에위니아

지난 2006년 강원도 평창과 인제에서 물폭탄 같은 국지성 비가 계속해서 내려서 큰 피해를 보았다. 당해 전국 자연재난 피해액의 95.4%를 차지한 강원도의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7월 14일 강우가 시작해 20일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7월 15~16일에는 집중호우가 발생, 양양 한계령관측소의 경우 15일 8~11시까지 3시간 동안 231mm가 내렸으며 평창 신리관측소의 경우에는 15일 11시~16일 14시까지 429mm가 내렸다. 이 같은 집중호우로 인해 덕산천, 평창지역에 많은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소하천과 2급 이상의 중규모 하천 합류점에서 급격한 유량 및 수위증가에 따른 역류로 인한 월류 및 제방붕괴로 신천리 농경지 7.2ha, 남

면 연당리 일대 56가옥 및 농경지 45ha, 방절리 일대 31가옥 및 농경지 24ha 등이 침수됐다(워터저널, 2006).

강원도는 7월 14~24일까지 내린 비로 인한 피해액은 총 1조4천189억5천300만원으로 추정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국피해액(1조4천869억5천900만원)의 95.4%를 점유했으며, 그중 인제(4천565억원), 평창(4천492억원) 지역의 피해액은 1조2천431억원(전국대비 83.6%)으로 이 지역의 피해가 엄청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강원도 내부자료 재집계 결과, 2006).

그러나 이의 원인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않으며, 다만 관광을 위한 펜션과 골프장 개발로 인한 산사태의 위험과 저지대 주택에 대한 관리부족이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2008년 현재까지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며, 인제는 평창에 비해 더 복구율이 좋지 않다.¹⁾ 이곳의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이 컨테이너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PTSD)나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재해시 노인이나 여성이 특히 재해피해에 취약한 집단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여성노인들은 수해 재발 가능성은 남성노인에 비해 높게 인식하지만 실제 재해발생에 대한 지식이나 대응능력은 남성노인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노인들은 혼자 사는 비율이 남성노인보다 월등히 높아 수해와 같은 재해발생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정순돌, 기지혜, 2007).

한편, 에위니아 발생시 활동했던 자원봉사기관을 살펴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 등 재해구호전문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였고, 특히, 태풍 루사 이후 만들어진 인터넷동호회들이(<http://cafe.daum.net/TyphoonRUSA>) 조직적으로 참여하였다.

(2) 인적재난 - 씨프린스호

‘씨프린스’호 해양오염사고는 국내에서도 외국과 같이 수만 톤 내지 수십만 톤의 초대형 재해적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준 사건이다. 1995년 7월 23일 전남 여천군 남면 소리도 앞바다에서 태풍 ‘페이’로 인해 호남해운 소속

1) 평창은 그 당시 동계올림픽 개최후보지였기 때문에 인제에 비해 더 빠른 복구율을 보였다.

14만5천 t급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좌초, 유출된 기름 7백t이 남해안 전역을 덮치고 양식장 1만ha를 황폐화되었다. 이로 인해 300km 해안을 오염시키고, 어업·관광 등 어민 피해가 736억원, 기름 제거에 5개월의 기간과 224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로 인해 여수 일대 해역을 비롯해 경남 남해, 거제, 부산, 울산, 포항에 이르는 204km 해상과 73.2km의 해안이 '죽음의 바다'로 돌변했다. 사고 이후 2년여에 걸쳐 방제작업이 이뤄졌으나 현재(2008. 02)까지 갯벌에서 기름띠가 발견되고 있다. 사고 당시 방제작업 과정에서 살포된 710여t의 유처리제가 2차 바다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다량의 유처리제가 뿌려졌던 여수시 남면 소리도 앞바다 수면 밑은 수년 전부터 수초가 자라지 않고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이 나타났고, 2차오염의 문제까지 제기되었다(손건수, 2005).

각종 신문과 방송등 언론에서는 시커먼 기름이 확산되고 있는 장면을 연일 집중 보도하고, 외국 사례 및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당국자 모두가 해양오염사고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피해와 관련해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이 실제로 배상받은 액수는 735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상액은 154억으로, 손해보상율이 20%에 그쳤다(손광수, 2005). 또한 피해에 관한 경제적 보상 외에 다른 지원은 거의 없었다. 더욱이 처음 일어난 사고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원봉사자가 거의 없이 지역주민과 경찰기동대, 군 장병으로만 이루어진 사고대책반이 유흡착재, 걸레, 삽, 바가지 등으로 닦아냈으며, 깊이 스며든 기름은 포크레인 등 기계적인 작업을 하였다.

2) 국외 실태

(1) 자연재난 - 카트리나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는 2005년 8월 말,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대형 허리케인이다. 국제연합의 재해억제전략센터((ISDR)의 2006년 1월 30일의 발표에 의하면, 총 피해액은 1250달러, 공식 사망자수는 1,306명으로 '미국판 쓰나미'라고 불리며, 미국 역사상 최대 자연재난으로 기록되고 있다(박성희, 조유미, 2006). 이는 2005년 플로리다 주 내소 군 동쪽 약 280 킬로미터의 열대성 저기압으로부터 발생

하여 마이애미-데이드/브라우워드 군의 육지에 상륙하기 전에 1등급 허리케인으로 발전했으며 플로리다, 멕시코 만,그랜드 아일 육지, 뉴올리언스 등에 8월 31일까지 발생하였다. 특히, 뉴올리언스 지역은 8월 30일 허리케인으로 인해 폰차트레인 호수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도로의 80%가량이 잠기며, 공식 사망자 1069명, 피해 추정액 2000억달러의 피해가 일어났다. 이러한 후진국형 재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 미국연방재해관리청(FEMA)과 루이지애나 주정부측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데(한국일보, 2005),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와 지나친 개발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주민은 주로 흑인 및 남미계였는데, 뉴올리언스지방의 물에 잠겼던 한 지역은 거주자의 98%가 흑인인 것으로 전해졌다(신유섭, 2005). 이는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바닷물이 자주 범람하는 거주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몰려 살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 주민 중 빈곤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평균 소득과 교육 수준이 가장 낮으며, 범죄율이 높고 평균수명이 가장 낮은 지역거주자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송, 2006).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주민의 70%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보고(Phillios, 2006)되었고, 실종자 6천644명 가운데 어린이가 약 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어(USA Today, 2005. 8.21) 노인과 어린이가 취약계층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컨벤션센터에 많은 재해피해주민이 몰리면서 일어난 생필품과 식수 부족의 상황은, '제2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을 살펴보면, 7만4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수해복구와 재건에 참여하였고, 이중에는 은퇴한 노인들도 많았다고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피해주민의 정확한 실종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수해지역을 가가호호 방문, 점검하는 활동을 하였다(USA Today, 2005. 8.21). 중고등학생들은 봄방학을 이용해 도시 청소와 재해피해주민 재정착 지원을 도왔다. 또한 연예인들도 구호성금마련이나 구조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혜주, 2006). 많은 기업들이 자원봉사에 나섰는데, 월마트의 경우 지역에 미니스토어를 설치하고, 옷과 필수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부나 적십자사보다 더 신속하게 복구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귀감이 되었다. 또한 킴벌리 클락 등 생활용품이나 식품관련기업들도 자사제품 기부와 함께 피해복구에 많은 참여를 하였다(김주란, 2005).

특히, 버너스위드아웃보더스(Burners Without Borders)라는 이름의 자원봉사단체는 신형 키오세라 모바일 핫스팟 기술을 이용해 광역 통신망을 사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무선 네트워크로 작은 지역들에서 서로를 연결할 수 있게 하여 재해 복구 자원봉사의 지평을 넓혔다(ZDnet, 2006-03-03).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언론에서 더 이상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자, 자원봉사는 현저히 줄어들었다(이현송, 2006).

(2) 인적재난 - 엑손발데스

1989년에 발생한 알래스카 연안의 '엑손발데스' 원유유출사고 북미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유출된 4만1000t 기름이 1800km 해안을 오염시켰다. 3년이 소요된 기름 제거에는 하루 1만 명의 인원을 동원하는 등, 2조5000억원이 소요되었다. 원인 제공자인 엑손은 방제 비용은 물론 사고 직후 1만1000명의 피해어민에게 300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이후 250억원의 벌금 및 어민 생계지원과 환경피해 보상으로 1조원의 배상금 등 모두 3조5000억원을 부담하였다. 이에 대한 기름작업으로 엑손사는 11,000명을 고용하여, 총 21000만 시간에 걸쳐 기름을 제거하였다.

이 당시 정부는 세계 최초로 직업건강 및 안전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를 제정하여, 과다노출의 증상을 인지하는 교육과 장기적인 건강모니터링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으나, 실제로 과학자들이 석유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안개'를 마시고 난 후 발생한 감기와 비슷한 증상, 호흡기 질환, 두통, 어지럼증, 기타 신경계 질환 등이 화학 중독 증상을 깨닫지 못했다(Teitelbaum, 1994). 그러나 Ott(2005)가 가지고 있는 엑손사(1989)의 자료에 따르면 1989년 호흡기 질환을 보고한 기름제거노동자수는 6,722명이었고, 그들은 광물성 기름과 분진에 과다 노출되어 화학 중독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Neill(2003)도 원유유출사고 이후 수천명이 호흡/신경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자들 중에서 기름제거작업 관련증상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하였다.

한편, 생태계가 파괴되는 경험을 한 어부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쇠약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역 사회는 계속되는 법정소송으로 인해 사회적 연대감을 파괴하고, 지역사회회 회복을 더디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icou 외,

2004). 또한 어민가족의 절반이 원유유출사고로 빚더미가 되어 어민가족의 최대 30%가 도시를 떠났다(Ott, 2005).

3.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관련연구

1)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및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진, 가뭄,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난과 교통사고, 화재, 폭발사고 등과 같은 인적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해들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를 가져온다. 이러한 재해가 빈발하면서 국가체계만으로는 예방과 복구에 한계가 드러났고 따라서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인명구조와 피해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재난재해 영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기여는 크게 증대되고 있다(이성록, 2003). 이러한 재해구호 활동의 개념을 살펴보면,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이란 태풍, 홍수, 폭설, 화재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지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해지역의 복구와 주민의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히 자연재난 지역의 복구를 위한 활동만이 아니라 화재, 환경오염과 같은 인적 재난 및 에너지, 전염병 등과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권영섭, 2008).

일반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 경찰, 군인이 인명구조작업을 벌이고 행정기관에서는 대피소 설정이나 긴급물자를 조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재난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가장 먼저 위기 상황에 개입하는 사람은 인근 지역사회 주민조직 혹은 특수 기능의 집단의 자원봉사자일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부문의 구호활동과는 다른 고유의 활동영역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종종 재해현장에서는 공공부문의 구호활동과 자원봉사활동내용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 한다.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은 군인이나 행정기관처럼 일사분란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균등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활동하기 보다는 공공부문에서 할 수 없는 틈새를 찾아내어 재해지역 주민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히 재해현장에서 행정의 보완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재해피해주민의 욕구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전국재해구호협회, 2007). 이처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재해를 당한 사람들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자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전국재해구호협회, 2005).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의 경험 등을 살펴보면, 한동우(2007)의 연구에서는 학교의 교사나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돕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침착하게 전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부문의 지원이 도달할 때까지 피해지역 주민들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태안반도에서 발생한 원유유출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지 32일 만에 100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복구활동에 참여해(세계일보 인터넷뉴스, 2008년 1월 8일자) '기적의 손길'이라 불릴 정도로 온 국민이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뜨거운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원봉사활동은 계획적으로 균등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를 당한 사람들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활동이며 이런 점에서 공평성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활동과 다르다(전국재해구호협회, 2005). 또한 재해지역은 재해발생 초기와 중기, 후기로 갈수록 재해지역의 상황이 서서히 변화되어 간다. 초기에는 집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도로가 유실되는 등의 재해지역 주민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피소로 이주하거나 복구된 집으로 돌아가는 재해피해주민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에 재해구호 자원봉사는 각각의 변화하는 재해지역의 상황을 살펴 보면서 각각의 분야에 활동을 전개한다. 자연스러운 재해복구의 원동력이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재해구호 자원봉사이다(이성록, 2007)

2)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내용 및 지원체계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내용은 크게 봉사자의 전문성유무와 활동시기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전국재해구호협회, 2003). 전문성 유무로 자원봉사 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전문적인 구호활동이란 재해발생 직후 법률이나 제도에 정해진 전문구호집단

의 조직적 활동이 수행되기 시작하고, 동시에 일반적 자원봉사자들의 긴급참여가 뒤따르고 또 전문 의료진과 토목, 건축기술자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살려서 일반 자원봉사자가 하기 힘든 영역을 담당하는데 이를 전문적인 구호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자원봉사자에 의한 구호활동은 어느 누구라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특히 노약자, 장애인 등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힘든 사람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이다. 재해피해주민구호에 있어서는 특히 재해지역 안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노약자, 장애인, 아동 등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힘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그분들을 조기 발견하여 고립을 막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이성록, 2003).

또한 활동시기에 따른 활동내용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고 그 내용도 점차 다양해진다. 또한 재해지역의 시간경과에 따라 인명구조기, 응급생활 복구기, 생활복구기, 장기생활 복구기로 나눌 수 있다(전국 재해구호협회, 2007). 인명구조기는 재해가 발생한 후 인명구조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자원봉사자가 인명구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인명구조기에는 훈련받은 자원봉사자만이 활동을 해야 하며 또한 119와 같은 현장 지휘팀의 통제에 따라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다음으로 응급생활 복구기는 재해가 발생하여 지역이 고립되거나, 피해위험이 예상되어 응급대피를 해야 하거나, 주택의 침수, 파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역의 학교나 체육관 등과 같은 임시 대피시설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대피기와 생활기반시설이 복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주민의 의식주 환경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지원활동과 더불어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복구화가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자원봉사활동은 대부분 대피시설 지원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긴급구호물품 전달과 급식과 빨래와 같은 활동을 펼치거나 전문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방역활동이 주로 이루어진다. 생활복구기는 응급생활 복구기가 끝나면 재해피해주민은 일상 활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초기 활동을 비닐하우스 철거와 농작물 복구 등 생계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복구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장기생활복구기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생애를 통해 지원활동을

지속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지역의 주민을 중심으로 행정도우미 활동이나 심리적 상담을 위한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표 1] 시기별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내용

구분	재해발생 후 ~ 1개월	재해발생 후 2개월 ~ 6개월
누구나 할수 있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소 활동(식수제공, 취사, 아이들과 놀아주기, 말 상대되어주기, 물품 운반, 정보수집, 휴게소 설치운영, 안내, 청소, 세탁, 모임장소 섭외 등) - 피해상황 정보 수집 - 구호물품 운반 - 쓰레기, 토사 치우기 - 방 정리, 가재도구 세척 - 몸이 불편한분 돌보기, 생활정보 제공 - 통원치료 도와주기 - 이용할 수 있는 가게나 목욕탕, 공공시설 정보 제공 - 농작물 복구 - 농업시설(비닐하우스 등)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도와주기. 청소, 방 정리 - 몸이 불편한 사람 통근·통학돕기 - 노약자가족 시장 봐주기, 통원치료 도와주기 - 이재민 돌보기(아이 봐주기, 공부 도와주기, 행사 도와주기) - 취미 활동이나 오락 도와주기 - 간단한 행사기획, 진행 - 피해지역 농작물 복구 - 농업시설(비닐하우스 등) 복구 - 임시주거시설 생활지원
전문성이 요구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제품 설치, 기계나 자전거 등 수리 - 건설자재 조달, 난간, 발판 설치 - 도배, 장판 수리 - 지붕 수리, 화단이나 벽 보수 공사, 가옥 구조 보강 - 노약자, 환자 등 호스피스, 부상자 돌보기, 유아 돌보기 - 수화 통역, 안내 - 정신 치료, 사회 복지 활동, 콘서트, 연극 - 이·미용, 마사지 - 트럭 등 대형차 운전, 미니버스 운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설치 - 아마추어 무선 - 광고지 제작, 정보수집, 경리업무 - 행정 단체와의 절충, 회의나 모임 운영 	

출처 : 권영섭(2008) 18p

4. 재해피해주민 관련연구

재난 이후 피해주민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실태조사 위주의 조사가 대부분이나, 점점 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동우 외 2004; 권용희, 2004; 채은희, 2005)

재해피해주민들이 겪는 문제들로는 우선 경제적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태풍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재해피해주민들은 재해로 인한 문제 중 가장 어려운 점을 경제적 문제로 꼽고 있는데(한동우 외, 2004), 이는 재해과정에서의 겪는 주택의 파손, 일자리 손실, 경제적 소득감소 등은 피해주민들의 생존자체 어렵게 하고 피해주민들의 자립을 어렵게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재해피해주민들은 겪는 심리적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재해는 일종의 정신적 외상으로 작용하여 많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심리적 문제들은 그 양상과 경과가 매우 다양하다. 외국의 많은 연구들은 재해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상당히 오랫동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Green(1980)의 조사에 따르면 재해피해주민의 1/3이상이 15개월 후에도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박사고 피해자들을 연구한 Henderson&Bostock(1977) 역시 재해피해주민들이 재해후 1-2년이 지난 이후에도 심리적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해피해주민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채은희(2005)의 연구에 따르면, 피해주민들의 우울증, 불안증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비재난지역에 비해 증상이 유의미하게 나빠졌으며, 정신건강 상담 및 진찰횟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져 재해피해로 인해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잠재적인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해의 형태와 재해피해 대상에 따라 재해피해주민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의 정도가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Baum et al(1983)은 인재를 겪은 재해피해주민들이 자연재해피해주민들보다 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윤주(2004)는 성인들에 비해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을 더 심각하게 받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재해지역 노인의 36.9%가 재해후 중등도 이상의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권용희, 2004). 이러한 연구

들은 모두 대규모 재난 이후에 피해주민들은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경험하게 되어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재해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해를 경험한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Gortner&Pennebaker(2003)은 지진피해와 전쟁 이후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한 지역민들의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전국재해구호협회, 2006 재인용)

III. 연구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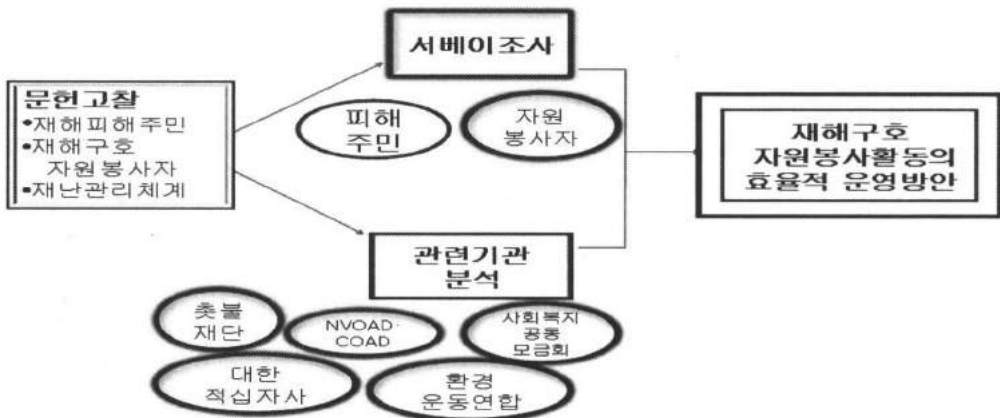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재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재건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구호서비스 개선방안이다. 이를 위해 재해를 직접 경험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봉사구호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현재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둘째,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이다. 실제로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셋째, 효율적인 재해구호활동 전략 및 실천방안 모색이다. 재해구호 전문구호기관으로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호활동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고, 이를 국내와 국외의 유사 기관과 비교분석하여 앞으로의 활동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흐름도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 재해피해주민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7년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경험한 피해주민이다.

먼저, 자연재난을 경험한 피해주민은 2007년 태풍 '나리'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전라남도 고흥과 제주도에 거주하며 실제로 수해를 경험하고 재산이나 인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지역은 각 도청, 시청, 군청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료를 토대로 가장 인적피해가 심했던 지역을 1차 선정한 후, 각 동, 면, 읍사무소에 다시 연락 및 확인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용담1,2동과 삼도1동, 아라동, 그리고 조천읍이 선정되었고, 전남 고흥군의 경우 고흥읍, 도양읍, 금산면이 선정되었다. 자료 수집은 사전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들이 연구보조원인 학부생들과 함께 각 동, 읍, 면사무소의 직원과 지역주민의 도움을 얻어 피해주민의 상가나 집을 방문하여 1:1 면접하거나, 인근 마을회관에서 면접하였다.

인적재난의 경우는 2007년 겨울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이하 원유유출)지역인 충청남도 태안군에 거주하며, 이로 인해 인적, 재산피해를 본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지역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인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파도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사전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들이 연구보조원인 학부생들과 함께 각 마을 이장의 도움을 얻어 인근 마을회관이나 도서관, 교회, 성당, 그리고 피해주민의 집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구두동의를 얻었다.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경우는 설문지를 직접 기입하게 하였지만, 글씨를 읽지 못하는 경우 조사원들이 질문을 읽어주고 답변을 들은 후 설문지에 표기하는 1:1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시간은 약 40분이었다. 총 수집된 535부의 자료 중 중도에 응답을 하지 않아 사용불가능한 설문지 51부를 제외한 484부를 분석에서 활용하였으며, 이중 자연재난 286부, 인적재난은 198부였다.

2)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세 이상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등 재해구호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이다.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2002년 ‘루사’ 피해지역 자원봉사자부터 살펴본 이유로는 태풍 ‘루사’가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의 원년(권영섭, 2008)이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는 재해구호전문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속의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인 전국의 248개 자원봉사센터 중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활발한 세 단체(경기도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강원도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전라북도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자료수집은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속의 자원봉사자의 경우 이메일을 통하거나 자원봉사자 모임이나 행사시 이루어졌으며,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소장 및 자원봉사담당자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회수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5월 한 달간이었으며, 전국재해구호협회 290부, 자원봉사센터 220부를 배포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 98부, 자원봉사센터 177부를 회수하였다. 여기서 중도에 응답을 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총 266부를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표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분류	재해피해주민 (N=484)	재해구호자원봉사자 (N=266)
자료수집기간	2008년 7~8월	2008년 5월
연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해피해 지역 : 286명 - 전라남도 고흥 : 144명 (고흥읍, 도양읍, 금산면) - 제주도 : 142명 (용담동, 삼도1동, 아라동, 조천읍) ● 원유유출피해 지역 : 198명 - 충청남도 태안 (소원면, 파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재해구호협회 : 98명 - 소속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센터 : 168명 - 경기도 파주시 - 강원도 강릉시 - 전라북도 장수군
자료수집방법	설문응답 및 1:1 인터뷰조사	이메일 및 우편발송

3. 연구도구

1) 재해피해주민 관련 설문조사 도구

(1) 신체적, 우울, 불안증상

신체적, 우울, 불안증상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발생한 신체적, 우울, 불안증상이 어떠한지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Colarossi, Heyman, Phillips(2005)의 질문지를 번역,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신체적 증상의 경우 '위장장애', '현기증' 등 8문항, 우울증상은 '나 자신에 대한 분노', '둔해진 감정' 등 8문항, 불안증상은 '집중력 저하', '긴장과 걱정' 등 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준은 22문항 각각에 대해 '있다'와 '없다'로 구분되어있으며, 우울증상과 불안증상은 각각 8항목과 6항목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증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Colarossi, Heyman, Phillips(2005)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hrombach's α)가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증상 .70, 우울증상 .74, 불안증상 .72로 나타났다.

(2) 외상적 경험 실태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평가(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TSDS)

이 도구는 연구자가 조상대상자의 외상적 경험의 실태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Foa 등(1993)이 개발한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DS)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PDS는 원래 총 49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DSM-IV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PTSD 증상을 묻는 질문 1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증상 문항들은 지난 2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거나 단 한번 그런 적이 있다'에 0점, '일주일에 한번이나 가끔'에 1점, '일주일에 2~4번정도'에 2점, '일주일에 5번 이상이거나 거의 매일 그렇다'에 3점으로 하여, 총 4점 척도로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PTSD 증상의 평가기준을 증상 문항 17개에 대한 총점을 구하여 10점 이하는 약함(mild), 11~20점은 중간 정도(moderate), 21점 이상은 심함(severe)으로 간주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Foa(1998)가 판별함수분석을 통하여 15점 이상을 임상적 PTSD 증상으로

구분한 것을 적용하기도 한다. 즉 집단 간 비교를 위하여 집단 I (외상경험 없음, PDS < 15), 집단 II (외상경험 있음, PDS ≥ 15)으로 나누었다. 외상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TSD 점수가 15점 이상 나온 것은 모두 제외하였고, 외상경험의 유형 가운데 원칙도 PTSD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 충격적인 사건들'에만 표기한 경우도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해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I은 외상경험과 PTSD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 집단 II는 외상경험은 있으나 PTSD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 집단 III은 외상경험도 있고, PTSD 증상이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 범위는 Cronbach alpha .83에서 .91이고(Foa et al., 1993, 1997),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는 .90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3)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는 재해피해주민이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를 만나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이성록(1993)의 질문지에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홍승혜(1995)의 척도를 피해주민의 입장으로 서술하여 사용하였다. 측정기준은 6문항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응답점수는 최저 6점부터 최고 30점으로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자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이성록(1993)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60,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4)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CSI)

재해피해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보기 위해 Amirkhan(1990)이 개발하고, 신혜진(2002)이 수정, 번안한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광범위한 스트레스 상황 및 대상 집단에 적용이 용이할 뿐 아니라 신뢰도와 타당도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스트레스 대응 전략평가도구이다.

CSI는 각각 11문항으로 이루어진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총 33문항의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 3개의 하위척도는 대처양식의 유형에 따라 문제해결중심, 회피중

심, 사회적 지지추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리커트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음)부터 3점(많이 했음)까지 표시하며, 하위 척도 점수는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그 분야의 대처전략이 높은 것이다. 각 하위 점수는 최소 11점부터 최대 33점까지의 범주에 있다. 이 척도는 Cronbach α 는 사회적 지지추구 .928, 회피중심 .894, 문제해결 중심 .839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추구 .871, 회피중심 .772, 문제해결 중심 .914로 나타났다.

2)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관련 척도

(1) 재해구호 자원봉사 지식척도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대한 지식은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2007)에서 발간한 “재해와 자원봉사활동” 교육매뉴얼에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선정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기준은 12문항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응답점수는 최저 12점부터 최고 60점으로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권영섭(2008)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74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63으로 나타났다.

(2) 참여동기 척도

참여동기는 자원봉사자가 어떤 동기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참여동기에 관한 척도는 Francies(1982)가 개발한 자원봉사 동기-욕구 프로필을 조휘일이 번안 사용한 것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각 범주별로 2문항씩 뽑아 재사용한 조상미(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기준은 14문항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응답점수는 최저 14점부터 최고 70점으로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조휘일의 사전조사에서 Chronbach's α coefficient를 사용해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60이

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상미(1996)의 연구에서는 .86, 권영섭(2008)에서도 14문항의 신뢰도는 .808, 본 연구에서는 .810으로 나타났다.

(3) 자원봉사기관 관리자와의 관계

자원봉사 관리자와의 관계는 자원봉사자가 느끼는 관리자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이성록(1993)이 제작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홍승혜(1995)의 논문과 이진(1995)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조상미(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기준은 5문항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응답점수는 최저 5점부터 최고 25점으로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리자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이성록(1993)이 제작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홍승혜(1995)의 논문과 이진(1995)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조상미(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조상미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hronbach's α)는 .92, 권영섭(2008)에서는 .81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15로 나타났다.

(4) 동료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

동료봉사자와의 관계는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간의 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이성록(1993)의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홍승혜(199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기준은 6문항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응답점수는 최저 6점부터 최고 30점으로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 봉사자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이성록(1993)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hronbach's α)는 .60, 권영섭(2008)은 내적 신뢰도(Chronbach's α)는 .889로 높게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91로 나타났다.

(5) 피해주민과의 관계

피해주민과의 관계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봉사활동 대상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이성록(1993)의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홍승혜(199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기준은 6문항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부여되었다. 따라

서 응답점수는 최저 6점부터 최고 30점으로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 피해 주민과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이성록(1993)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hrombach's α)는 .60, 권영섭(2008)은 내적 신뢰도(Chronbach's α)는 .80, 본 연구에서는 .801로 나타났다.

(6) 신체적, 우울, 불안증상

신체적, 우울, 불안증상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발생한 신체적, 우울, 불안증상이 어떠한지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Colarossi, Heyman, Phillips(2005)의 질문지를 번역,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신체적 증상의 경우 '위장장애', '현기증' 등 8문항, 우울증상은 '나 자신에 대한 분노', '둔해진 감정' 등 8문항, 불안증상은 '집중력 저하', '긴장과 걱정' 등 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준은 22문항 각각에 대해 '있다'와 '없다'로 구분되어있으며, 우울증상과 불안증상은 각각 8항목과 6항목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증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Colarossi, Heyman, Phillips(2005)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hronbach's α)가 .90으로 나타났다.

(7)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요인 측정은 Paton(1996)가 개발한 질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번역,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문항은 죽음과 파괴 정도가 큼, 무기력함, 다른 팀의 도움 부족 등 14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스트레스가 없으면 0점, 있으면 1점을 주어 측정하였으며, 전체점수는 0점에서 14점으로 분포한다.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요인이 많은 것이다.

(8)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은 Callero(1985)의 헌혈봉사자의 문항을 자원봉사자로 대처한 Grube, Piliavin(2000)의 질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해구호 자원봉사로 수정,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재해구호 자원봉사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등의 5문항으로 되어있다. 점수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후, 1번과 3번 문항은 역코딩하여

측정하며, 최소 5점, 최대 25점이다.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이다. Grube, Piliavin(2000)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Chrombach's α)는 .7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55로 나타났다.

(9) 소속된 재해구호 자원봉사기관에 대한 인식

재해구호 자원봉사기관에 대한 생각은 Callero(1985)의 헌혈봉사자의 문항을 자원봉사자로 대처한 Grube, Piliavin(2000)의 질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해구호자원봉사로 수정,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내가 소속된 기관에서 재해구호자원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봉사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등의 5문항으로 되어 있다. 점수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후, 1번과 3번 문항은 역코딩하여 측정하며, 최소 5점, 최대 25점이다. 해석은 점수가 높을 수록 기관에 대한 호의적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Grube, Piliavin(2000)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hronbach's α)는 .7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09로 나타났다.

(10) 기관의 자원봉사활동 관리과정 평가

자원봉사활동 관리과정에 대한 문항으로는 이성록(1993)이 제작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홍승혜(1995)의 논문과 이진(1995)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조상미(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25로 나타났다.

먼저 자원봉사 '업무와 배치'가 적절한지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측정기준은 2문항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응답점수는 최저 2점부터 최고 10점으로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와 배치가 잘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 관련 '교육'에 관한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전 사전교육의 유무, 재교육 유무, 사전교육과 재교육의 도움정도와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척도의 측정기준은 6문항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응답점수는 최저 6점부터 최고 30점으로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이 잘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원봉사활동 기관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인정보상'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이 측정항목의 측정기준은 3문항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응답점수는 최저 3점부터 최고 15점으로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정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원봉사활동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이 측정항목의 측정기준은 2문항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응답점수는 최저 2점부터 최고 10점으로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도감독 및 평가가 잘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는 SPSS 프로그램(version 12)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수해경험과 재해인식 비교는 χ^2 -test, t-test, ANOVA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재해피해주민 분석

재해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재건을 위한 자원봉사자 구호서비스 개선방안 모색

1) 재해피해주민의 일반적 특성

재해피해주민의 일반적 특성을 두 가지 대표적 재해유형인 자연재난(수해)과 인적재난(원유유출)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 분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35.8%, 여성 64.2%로써, 이중 수해의 경우 남성 40.8%, 여성 59.2%였으며, 원유유출의 경우 남성 28.4%, 여성이 71.6%로 나타나 원유유출피해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분포를 전체 재해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40세 이하가 15.1%, 41-50세가 19.0%, 51-64세가 34.1%, 65~74세가 21.9%, 75세 이상이 5.6%로 나타나, 51세 이상 중장년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해유형별 연령분포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분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무학 14.5%, 초등학교 졸업 24.0%, 중졸 17.1%, 고졸 31.1%, 대졸 이상 13.3%로 고졸 이상 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해의 경우 무학 15.7%, 초등학교 졸업 21.0%, 중졸 16.7%, 고졸 30.6%, 대졸이상 16.0%로 나타났고, 원유유출의 경우 무학 12.9%, 초등학교 졸업 28.4%, 중졸 17.5%, 고졸 31.9%, 대졸이상 9.3%로 나타나 재해유형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전체적으로 기혼자가 8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사별 10.1%로 나타났고 수해와 원유유출재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거주기간은 수해지역이 24.85년, 원유유출피해지역이 29.11년으로 원유유출 지역의 거주기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 분포는 전체적으로는 불

교가 30.1%, 기독교가 29.1%, 무교가 21.4%였으며, 재해유형별로는 수해지역에서는 불교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원유유출피해지역은 기독교가 40.9%로 가장 높아 재해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피해주민들의 현재 직업과 재해피해 당시의 직업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피해 전과 후에 무직자의 비율은 적었으며 차이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 전에 비해 피해 후 무직의 비율이 높아져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해지역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원유유출 지역의 경우 자영업자가 22.6%에서 16.8%로 감소하였으며, 농축어업 역시 37.4%에서 24.4%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수해지역의 경우 피해지역의 복구와 더불어 생업이 가능해졌으나, 원유유출피해지역은 복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려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이는 1989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엑손발데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민가족의 최대 30%가 빚을 지고 도시를 떠났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Ott, 2005)

월평균 소득은 전체적으로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2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해유형별로는 수해지역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100~150만원 대의 소득 수준에 가장 많이 분포한 반면, 원유유출 지역의 경우 150만원 이상에서 가장 많아 수해지역과 원유유출피해지역에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상태평가 역시 수해지역과 원유유출피해지역의 인식이 달랐는데 전자가 2.16, 후자가 1.98로 수해지역의 조사대상자들이 경제 상태를 약간 좋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재해피해주민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빈 도 수(%)		
		자연재난(수해) (N=286)	인재(원유유출) (N=198)	합 계 (N=484)
성별	남	116(40.8)	56(28.4)	172(35.8)
	여	168(59.2)	141(71.6)	309(64.2)
연령	40세 이하	44(15.4)	29(14.6)	73(15.1)
	41~50세	61(21.3)	31(15.7)	92(19.0)
	51~64세	83(29.0)	82(41.4)	165(34.1)
	65~74세	61(21.3)	45(22.7)	106(21.9)
	75세 이상	37(12.9)	11(5.6)	48(9.9)
	평균(SD)	56.46(14.81)	55.7(12.73)	56.16(13.97)
최종학력	무학	44(15.7)	25(12.9)	69(14.5)
	초등학교 졸업	59(21.0)	55(28.4)	114(24.0)
	중학교 졸업	47(16.7)	34(17.5)	81(17.2)
	고등학교 졸업	86(30.6)	62(31.9)	148(31.1)
	대학교 졸업이상	45(16.0)	18(9.3)	63(13.2)
결혼상태	미혼	13(4.9)	13(6.6)	26(5.6)
	기혼	217(81.0)	116(84.3)	383(82.4)
	이혼/별거	4(1.5)	5(2.5)	9(1.9)
	사별	34(12.6)	13(6.6)	47(10.1)
거주기간 (년)	10년 미만	78(27.5)	34(17.2)	112(23.2)
	11년~20년	55(19.4)	31(15.7)	86(17.8)
	21년~30년	49(17.3)	27(13.6)	76(15.8)
	31년~40년	33(11.6)	48(24.2)	81(16.8)
	41년 이상	69(24.2)	58(29.3)	127(26.4)
	평균(SD)	24.85(21.1)	29.11(18.4)	26.57(20.1)
종교	무교	69(24.4)	34(17.2)	103(21.4)
	불교	117(41.3)	28(14.1)	145(30.1)
	기독교	59(20.8)	81(40.9)	140(29.1)
	천주교	26(9.2)	50(25.3)	76(15.8)
	유교	7(2.5)	2(1.0)	9(1.9)
	기타	5(1.8)	3(1.5)	8(1.7)
현재직업	무직	43(15.2)	18(9.1)	61(12.7)
	농·축·어업	45(15.9)	48(24.4)	93(19.4)
	자영업	138(48.8)	33(16.8)	171(35.6)

	주부	27(9.5)	56(28.4)	83(17.3)
	기타	30(10.6)	31(21.3)	72(15.0)
피해당시 직업	무직	40(14.1)	8(4.1)	48(10.0)
	농·축·어업	44(15.5)	73(37.4)	117(24.4)
	자영업	144(50.7)	44(22.6)	188(39.2)
	주부	25(8.8)	42(21.5)	67(14.0)
	기타	31(10.9)	28(14.4)	59(12.4)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69(24.6)	44(23.3)	113(24.1)
	50만원~ 100만원미만	90(32.1)	49(26.0)	139(27.6)
	100만원 ~150만원미만	48(17.1)	35(18.5)	83(17.7)
	150만원이상	73(26.2)	61(32.2)	134(28.6)
주관적경제 상태평가	평균(SD)	2.16(.85)	1.98(.83)	2.09(.84)

2) 재해피해주민의 건강상태

(1) 재해피해주민의 건강상태평가 및 PTSD

재해피해주민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재해피해주민의 주관적 건강상태평가는 5점 만점에 2.23으로 재해피해주민들의 건강평가는 비교적 좋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해지역은 2.44, 원유유출피해지역은 1.92로 원유유출피해지역 거주자의 평가가 수해지역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7.058, p<.001$).

한 문항으로 측정된 재해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역시 5점 만점에 전체 3.66으로 비교적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해지역 3.56, 원유유출피해지역 3.79로 원유유출피해지역 거주자의 평가가 수해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2.474, p<.05$).

한편, 재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재해피해주민의 22.1%가 중간 정도(11점~20점), 32.1%가 심한정도(21점 이상)로써 54.2%가 중간정도 이상(11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임

상적으로 PTSD에 대한 전문적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해피해지역 거주자는 중간정도 22.5%, 심한정도 18.2%로, 전체의 40.7%가 중간정도 이상의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PTSD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유출 피해지역 거주자는 중간정도 21.5%, 심한정도 49.7%로, 전체의 71.2%가 중간정도 이상의 점수를 보여 PTSD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유유출 피해지역 거주자의 절반에 가까운 49.7%가 21점 이상의 '심한 PTSD 증상'으로 나타나, 외상경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을 비교해 보면 원유유출피해 지역거주자의 경우 PTSD가 수해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51.859$, $p<.001$).

위와 같이 수해지역에 비해 원유유출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수해에 비해 기름유출의 경우 원유나 폐기물 등 화학물질의 확산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유해한 환경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수해피해에 비해 원유유출피해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복구를 위해 유해환경에 더 장기간 노출되어 건강상태가 나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재해지역 거주자들의 재해 후 외상경험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자연재난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77.95%가 임상적으로 PTSD를 고려하여 세부적 진단이 요구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 것으로써(최남희 외, 2007), 재해피해주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수해지역의 경우 발생하는 지역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원유유출의 경우 전혀 발생하리라는 예측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해 PTSD와 같은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재해피해주민의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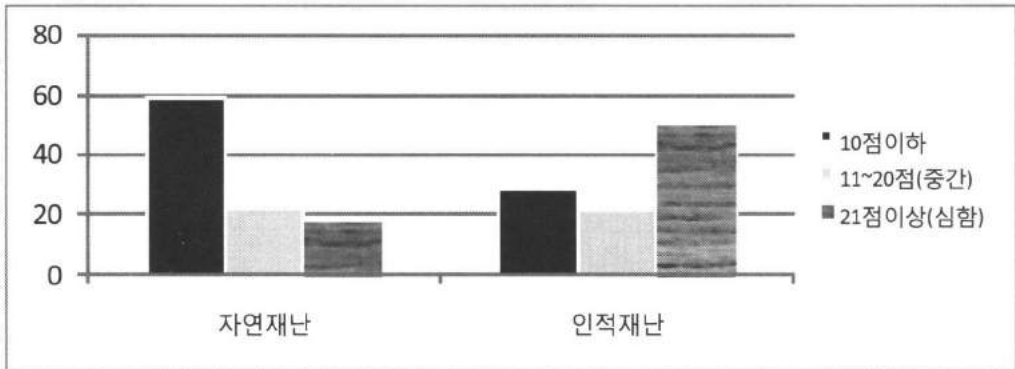
항 목	평 균(SD)			t
	자연재난(수해)	인재(원유유출)	합 계	
주관적 건강상태평가	2.44(.80)	1.92(.78)	2.23(.83)	7.058***
스트레스 정도	3.56(1.04)	3.79(.94)	3.66(1.01)	-2.474*

* $p<.05$, ** $p<.01$, *** $p<.001$

[표 5] 재해피해주민의 PTSD

항 목	빈 도 수(%)			X ²
	자연재난(수해)	인재(원유유출)	합 계	
10점 이하(약함)	111(59.3)	43(28.8)	154(45.8)	51.859***
11점~20점(중간)	42(22.5)	32(21.5)	74(22.1)	
21점 이상(심함)	34(18.2)	74(49.7)	108(32.1)	

*p<.05, **p<.01, ***p<.001



[그림 2] 재해피해주민의 PTSD

(2) 재해피해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경험

재해피해주민들이 경험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신체적 증상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위장장애 및 소화장애(36.4%), 두통(34.0%), 현기증(31.1%) 순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해지역 조사대상자는 위장장애 및 소화장애(29.8), 심장의 두근거림(26.7%), 현기증(24.6%)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유유출피해지역 조사대상자의 경우, 두통(50.0%), 위장장애 및 소화장애(46.0%), 현기증(40.4%) 순으로 나타나 수해지역 조사대상자에 비해 더 많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 증상은 우울증상과 불안증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우울증상의 경우, 외로움 및 희망없음(22.4%), 식욕부진 혹은 과식(18.8%), 관심(흥미)의 상실(18.5%) 순으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해지역 조사대상자는 외로움과 희망없음(17.9%), 나 자신에 대한 비난(13.0%), 식욕부진 혹은 과식(13.3%)

순으로 나타났고, 원유유출피해지역 조사대상자는 관심과 흥미의 상실(30.3%), 외로움과 희망없음(28.8%), 식욕부진 혹은 과식(26.8%)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항목 총 8개중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항목 수의 평균은 전체지역 1.26개로 나타났으며 이를 지역별로 보면 수해지역 .94, 원유유출피해지역 1.72로 나타나 두 지역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721, p<.001$).

불안증상은 쉽게 짜증이 남(32.9%), 긴장과 걱정(30.8%), 일에 대한 스트레스(30.6%) 순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해지역 조사대상자는, 쉽게 짜증이 남(23.9%), 긴장과 걱정(26.0%), 일에 대한 스트레스(23.5%) 순으로 나타났고, 원유유출피해지역 조사대상자는 쉽게 짜증이 남(46%), 일에 대한 스트레스(40.9%), 긴장과 걱정(37.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로 인해 병원치료를 경험한 재해피해주민들은 전체 총 48.0%였으며 이중 수해지역 44.7%, 원유유출피해지역 52.6%로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재해피해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와 [표 5], [표 6]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해지역 피해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 및 전문가들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재해피해주민의 재해 경험과 인식

(1) 재해피해주민의 재해경험특성

재해피해주민들의 재해경험특성은 [표 7]과 같다. 피해의 종류는 수해와 원유유출 모두 재산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각각 92.4%, 87.2%를 나타냈다. 평균 재산 손실율은 원유유출 59.75%로 수해피해 41.53%에 비해 손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6.087, p<.001$). 그러나, 이에 따른 복구율은 수해피해가 73.18%로 원유유출 26.0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4.669, p<.001$). 즉 원유유출피해지역은 재산손실율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율은 훨씬 낮았는데, 이는 자연재난의 경우 한정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원유유출과 같은 재해의

[표 6] 재해피해주민의 증상경험 (중복응답)

항 목	빈 도(%)		합 계	
	자연재난(수해) (N=286)	인재(원유유출) (N=198)		
신체 증상	위장장애, 소화장애	85(29.8)	91(46.0)	176(36.4)
	등이 아픔	53(18.6)	34(17.2)	87(18.0)
	가슴 통증	35(12.3)	41(20.8)	76(15.8)
	두통	65(22.8)	99(50.0)	164(34.0)
	현기증	70(24.6)	80(40.4)	150(31.1)
	심장이 두근거림	76(26.7)	73(37.1)	73(30.9)
	호흡이 가쁨	31(10.9)	45(22.7)	76(15.7)
	변비 또는 설사	42(14.7)	42(21.2)	84(17.4)
우울 증상	나 자신에 대한 분노	36(12.6)	43(21.7)	79(16.4)
	둔해진 감정	32(11.2)	44(22.2)	76(15.7)
	식욕 부진 혹은 과식	38(13.3)	53(26.8)	91(18.8)
	알콜 혹은 다른약물 사용	22(7.7)	19(9.6)	41(8.5)
	나 자신에 대한 비난	37(13.0)	36(18.2)	73(15.1)
	관심(흥미)의 상실	29(10.2)	60(30.3)	89(18.5)
	외로움, 희망 없음	51(17.9)	57(28.8)	108(22.4)
	죽음에 대한 생각	24(8.4)	28(14.1)	52(10.8)
	평균(SD)	.94(1.43)	1.72(1.96)	1.26(1.71) t=-4.721***
불안 증상	집중력 저하	58(20.4)	68(34.3)	126(26.1)
	긴장과 걱정	74(26.0)	75(37.9)	149(30.8)
	쉽게 짜증이 남	68(23.9)	91(46.0)	159(32.9)
	불면증	46(16.1)	65(32.8)	111(23.0)
	미래가 안보인다는 느낌	48(16.8)	65(32.8)	113(23.4)
	일에 대한 스트레스	67(23.5)	81(40.9)	148(30.6)
병원 치료 여부	병원치료여부	123(44.7)	100(52.6)	223(48.0)

*p<.05, **p<.01, ***p<.001

경우 빨리 막지 못하는 경우 피해가 계속 확장되어 더 넓은 지역에 까지 피해를 입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실제로 재해당시 당사자들이 복구에 참여했는지의 여부는 수해지역의 경우 76.8%가 참여한 반면 원유유출의 경우 97.9%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chi^2=41.328$, $p<.001$). 원유유출 지역에서 복구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유유출과 같은 재해의 경우 빨리 막지 못하면 피해가 계속 확장되고, 복구시기를 놓치면 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에 대한 공통의 인식도 원인이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더불어 원유유출 피해지역의 경우 전례가 없는 피해로 인해 국가로부터 복구참여자들에게 일일 복구수당이 지급되었던 점도 높은 복구참여율에 일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재해피해주민의 재해경험

항 목	구 분	빈도(%) 및 평균(SD)		χ^2/t
		자연재난(수해)	인재(원유유출)	
피해종류	재산피해	244(92.4)	130(87.2)	-
	인명피해	5(1.9)	8(5.4)	
	재산+인명피해	15(5.7)	11(7.4)	
재산손실율(%)	평균(SD)	41.53(28.6)	59.75(27.3)	-6.087***
피해복구율(%)	평균(SD)	73.18(34.7)	26.08(25.7)	14.669***
복구참여여부	참여했다	212(76.8)	191(97.9)	41.328***
	하지 않았다	64(23.2)	4(2.1)	

* $p<.05$, ** $p<.01$, *** $p<.001$

(2) 재해피해주민의 재해인식

재해피해주민들의 재해인식은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재해피해주민들의 안전인식도는 5점 만점에 3.27점으로 비교적 인식이 높은 편이었으며, 이중 수해피해 3.45, 원유유출 3.02로 수해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340$, $p<.01$). 재해발생시 가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일의 정도는 전체 평균이 2.69로

‘약간 할 수 있다’와 ‘보통’ 사이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서는 두 지역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지역 재해발생 가능성 지식정도는 5점 만점에 2.74로 재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식정도는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수해피해 2.89, 원유유출 2.54로 수해지역의 재해발생 가능성 지식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371, p<.01$). 재해재발과 관련하여 재발가능성 인식측면에서 보면, 5점 만점에 3.76으로 재발인식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해지역의 인식도가 4.06으로 원유유출피해지역의 3.32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6.930, p<.001$).

재해피해주민의 재해인식에서는 전반적으로 수해지역의 인식이 원유유출피해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재의 경우 전혀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재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8] 재해피해주민의 재해인식

항 목	평 균(SD)			t
	자연재난(수해)	인재(원유유출)	합 계	
안전인식도	3.45(1.33)	3.02(1.50)	3.27(1.41)	3.340**
재해시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의 정도	2.73(1.25)	2.63(1.27)	2.69(1.25)	.866
거주지역 재해발생 가능성 지식정도	2.89(1.10)	2.54(1.15)	2.74(1.13)	3.371**
재해 재발생여부	4.06(.96)	3.32(1.26)	3.76(1.15)	6.930***

* $p<.05$, ** $p<.01$, *** $p<.001$

(3) 재해피해주민의 비공식적 지지체계들과의 관계변화 평가

재해피해주민들의 재해로 인한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부부관계의 경우 원유유출 지역에 비해 수해피해 지역에서 관계가 더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였으며($t=5.279, p<.001$), 자녀관계 역시 원유유출 지역에 비해 수해피해 지역에서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t=2.630, p<.05$). 친척관계 경우도 원유유출 지역에 비해 수해피해 지역에서 관계가 더 좋

아진 것으로 평가했으며($t=5.074$, $p<.001$), 이웃관계에서도 원유유출 지역에 비해 수해피해 지역에서 관계가 더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였다($t=7.353$, $p<.001$).

전반적으로 비공식적 지지체계들과의 관계에서 수해지역의 경우 관계에 변화가 없거나 좋아지는 방향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원유유출피해지역의 경우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해의 극복가능성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수해의 경우 단기간 극복이 가능하지만, 원유유출과 같은 인재의 경우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길고 이로 인해 생업해결도 어려워지고 비공식적 지지체계간의 관계도 같등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9] 재해로 인한 사람들과의 관계변화

항 목	평 균(SD)			t
	자연재난(수해)	인재(원유유출)	합 계	
부부관계	1.99(.40)	1.73(.54)	1.89(.48)	5.279***
자녀관계	2.06(.41)	1.94(.46)	2.01(.41)	2.630*
친척관계	2.06(.36)	1.84(.51)	1.97(.44)	5.074***
이웃관계	2.11(.48)	1.70(.62)	1.94(.57)	7.353***

* $p<.05$, ** $p<.01$, *** $p<.001$

(4) 재해피해주민의 미래계획변화

재해피해주민들의 재해로 인한 미래계획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미래계획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수해피해주민은 38.7%임에 비해 원유유출피해주민은 60.8%로 인재의 경우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1.796$, $p<.001$). 미래계획 변화시 변화의 종류는 수해피해의 경우 46.9%가 이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유유출의 경우 50.4%가 생계수단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양상별로 미래변화에 대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2.517$, $p<.01$). 재해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미래에 대한 계획변화도 수해피해주민 14.3%에 비해 원유유출 37.9%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3.751$, $p<.001$). 전반적으로 원유유출피해주민들이 자신과 가족의 미래

에 대해 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10] 재해피해주민의 미래계획변화

항 목	구 분	빈 도(%)			χ ²
		자연재난(수해)	인재(원유유출)	합 계	
미래계획 변화여부	변화가 있다	105(38.7)	115(60.8)	220(47.8)	21.796***
	변화가 없다	166(61.3)	74(39.2)	240(52.2)	
변화종류	이사	60(46.9)	44(33.6)	104(40.2)	12.517**
	생계수단 변경	37(28.9)	66(50.4)	103(39.8)	
	기타	31(24.2)	21(16.0)	52(20.1)	
가족구성원 미래변화 계획	변화가 있다	38(14.3)	72(37.9)	110(24.1)	33.751***
	변화가 없다	228(85.7)	118(62.1)	346(75.9)	

*p<.05, **p<.01, ***p<.001

4) 재해피해주민의 복지욕구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

(1) 지원을 제공한 주체 및 지원받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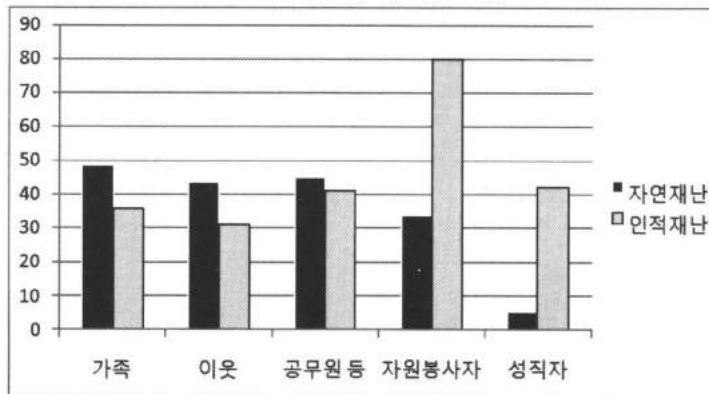
재해피해주민들이 재해시 지원을 받은 주체를 살펴보면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자원봉사자(52.7%), 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43.5%), 가족(43.3%) 순으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유형별로 보면, 수해지역의 경우 가족(48.4%), 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45.1%), 이웃(43.3%)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원유유출 지역의 경우 자원봉사(80.0%), 성직자(42.1%), 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41.1%)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즉 수해지역에서 가족이나 이웃 등 비공식적 체계들의 도움이 컸으며, 원유유출의 경우 자원봉사자와 성직자(종교기관) 등 공식적 체계의 도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지진 당시 쓰러진 건물에서 구출된 주민의 90%이상이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다(Yoshihiro, 2005)는 사례와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재난 발생 시 공공부문의 손길이 닿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서로 돕는 자원봉사활동의 중

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11] 재해시 지원 받은 곳 (중복응답)

구 분	빈 도 수(%)		
	자연재난(수해)	원유유출(인재)	합 계
가족	134(48.4)	68(35.8)	202(43.3)
이웃	120(43.3)	59(31.1)	179(38.3)
친구	33(11.9)	32(16.8)	65(13.9)
친척	31(11.2)	36(18.9)	67(14.3)
공무원/군인/경찰 /소방공무원	125(45.1)	78(41.1)	203(43.5)
자원봉사자	94(33.9)	152(80.0)	246(52.7)
성직자	15(5.4)	80(42.1)	95(20.3)
사회복지사	14(5.1)	46(24.2)	60(12.8)
재난관리전문협회	43(15.5)	72(37.9)	115(24.6)
기타	14(5.1)	11(5.8)	2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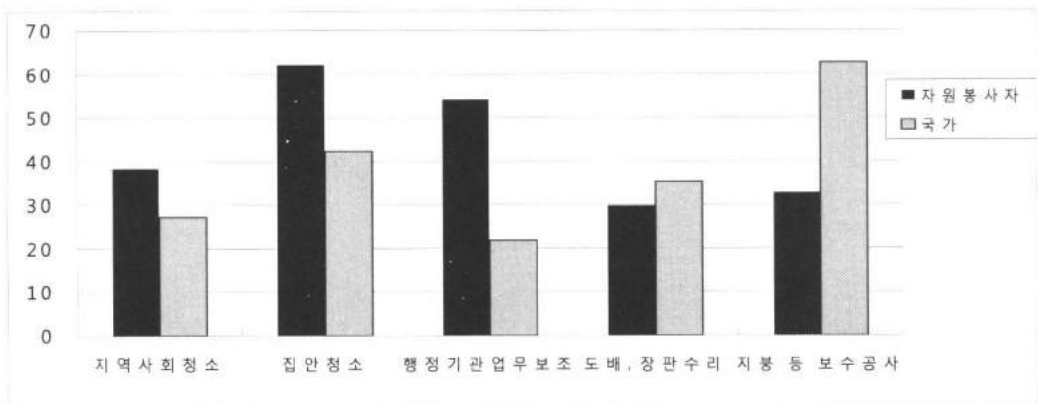
[그림 3] 재해시 지원 받은 곳 (중복응답)

다음으로 자연재난(수해) 피해주민들이 지원받은 내용과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은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지원의 내용은 자원봉사자와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자원봉사자로부터 받은 지원 내용은 방정리 및 청소(62.2%), 행정기관 및 자봉단체 업무보조(54.3%), 토사 및 쓰레기 치우기(38.4%), 지붕수리 등 보수공사(32.9%), 도배 장판수리(29.9%) 순으로 나타나 주로 주거지역의 청소 및 수리/보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재난 피해 특성상 주거지역 보수에 대한 도움이 가장 많이 요구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농작물 및 농업시설 복구(9.1%), 의료 및 간병서비스(9.1%) 등의 지원은 미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 내용은 수리 및 보수공사(62.6%), 방정리 및 청소(42.2%), 도배 및 장판수리(35.3%), 토사 및 쓰레기 치우기(27.3%), 피해상황 정보수집(20.3%) 순으로 자원봉사자의 도움내용과 유사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의료 및 간병서비스(6.4%), 심리치료(7.0%)의 지원은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및 국가로부터 받은 도움의 충분성을 0에서 1로 평가한 결과, 방정리 및 청소영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0.65), 지붕수리 등 보수공사(0.54), 행정기관 및 자봉단체 업무보조(0.50)순으로 나타나 도움을 받은 내용과 충분성에 대한 평가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해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전체적으로 청소 및 수리 등 주거환경 보수에 대한 지원내용이 많았고 충분했던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및 간병서비스 위로공연 및 심리치료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차적인 주거환경 지원과 동시에 신체치료 및 약품지원, 심리치료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자연재난(수해) 피해주민들이 지원받은 내용

[표 12] 자연재난(수해) 피해주민 지원내용과 충분정도 (중복응답포함)

항 목	빈 도 수(%)		
	자원봉사자 도움	국가의 도움	충분성
인명구조	38(23.2)	27(14.4)	0.30
대피소 지원활동	34(20.7)	27(14.4)	0.34
피해상황 정보수집	21(12.8)	38(20.3)	0.13
구호물품운반	27(16.5)	20(10.7)	0.25
재해쓰레기, 토사치우기, 재해지역청소	63(38.4)	51(27.3)	0.43
방정리 및 청소	102(62.2)	79(42.2)	0.65
행정기관 및 자봉단체 업무보조	89(54.3)	41(21.9)	0.50
마사지, 안마	33(20.1)	30(16.0)	0.32
도배, 장판수리	49(29.9)	66(35.3)	0.49
지붕수리, 화단이나 벽 보수공사	54(32.9)	117(62.6)	0.54
가전제품 수리 및 인터넷 통신설치	22(13.4)	23(12.3)	0.24
농작물, 농업시설복구	15(9.1)	32(17.1)	0.17
이·미용 서비스	20(12.2)	29(15.5)	0.21
의료 및 간병서비스	15(9.1)	12(6.4)	0.13
콘서트 연극 등의 위로공연 심리치료	20(12.2)	13(7.0)	0.08
기타	7(4.3)	14(7.5)	0.16

다음으로 원유유출피해주민의 경우 [표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으며, 우선 자원봉사자로부터 받은 지원 내용은 방정리 및 청소(68.2%), 도배 및 장판수리(59.4%), 수리 및 보수공사(58.2%), 의료 및 간병서비스(47.6%), 토사 및 쓰레기 치우기(40.0%) 순으로 나타나 주로 주거지역의 청소 및 수리/보수 지원과 의료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재(원유유출) 피해의 특성상 주거지역 보수에 대한 도움과 함께 건강관련 서비스가 가장 많이 요구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농작물 및 농업시설 복구(10.0), 구호물품운반(10.6) 등의 지원은 미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 내용 역시 수리 및 보수공사(39.2%), 도배 장판수리(36.1%), 농작물 및 농업시설복구(36.1%), 토사 및 쓰레기 치우기(35.1%) 순으로 자원봉사자의 도움내용과 유사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작물 및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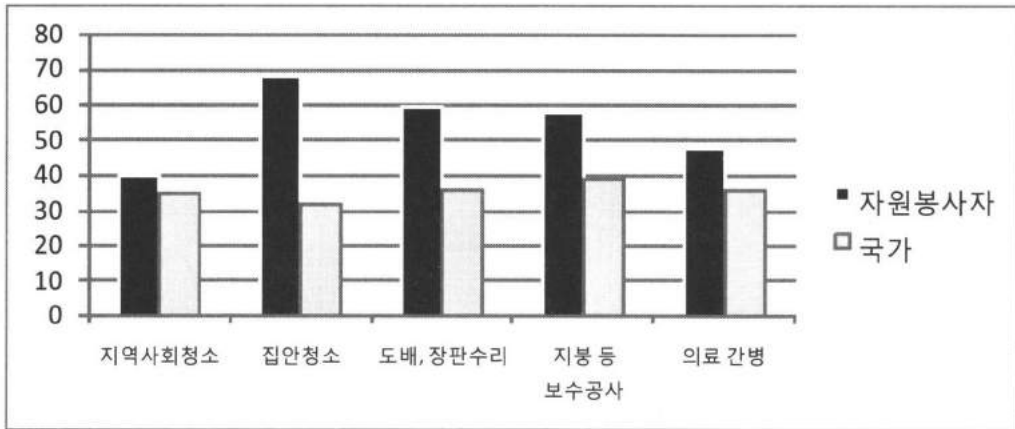
시설복구는 국가의 도움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의료 및 간병 서비스(2.1%), 구호물품 운반(8.2)의 지원은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및 국가로부터 받은 도움의 충분성을 0에서 1로 평가한 결과 방정리 및 청소영역이 가장 충분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0.58), 도배 및 장판 수리(0.55), 의료 및 간병서비스(0.53) 순으로 나타나 도움을 받은 내용과 충분성에 대한 평가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유출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을 볼 때 전체적으로 청소 및 수리 등 주거환경 보수지원, 의료 및 간병서비스 지원이 많았고 충분했던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 시설 복구, 이·미용서비스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보강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표 13] 원유유출 피해주민 지원내용과 충분정도 (중복응답포함)

항 목	빈 도 수(%)		
	자원봉사자 도움	국가의 도움	충분성
인명구조	36(21.2)	13(13.4)	0.48
대피소 지원활동	58(34.1)	14(14.4)	0.52
피해상황 정보수집	19(11.2)	31(32.0)	0.21
구호물품운반	18(10.6)	8(8.2)	0.35
재해쓰레기, 토사치우기, 재해지역청소	68(40.0)	34(35.1)	0.47
방정리 및 청소	116(68.2)	31(32.0)	0.58
행정기관 및 자봉단체 업무보조	38(22.4)	8(8.2)	0.32
마사지, 안마	46(27.1)	24(24.7)	0.41
도배, 장판수리	101(59.4)	35(36.1)	0.55
지붕수리, 화단이나 벽 보수공사	99(58.2)	38(39.2)	0.39
가전제품 수리 및 인터넷 통신설치	33(19.4)	26(26.8)	0.25
농작물, 농업시설복구	17(10.0)	35(36.1)	0.14
이·미용 서비스	30(17.6)	14(14.4)	0.19
의료 및 간병서비스	81(47.6)	2(2.1)	0.53
콘서트 연극 등의 위로공연 심리치료	55(32.4)	9(9.3)	0.38
기타	13(7.6)	3(3.1)	0.28



[그림 5] 원유유출피해주민이 지원받은 내용

(2) 재해피해주민의 자원봉사 인식

재해피해주민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은 [표 14]와 같이 나타났다. 재해피해주민들이 느끼는 재해시 자원봉사자에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3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해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해피해는 3.28, 원유유출은 3.76으로 나타나, 수해피해주민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t=-4.414, p<.001$). 따라서 이러한 수해지역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는 5점 만점에 3.48로 나타나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수해피해의 경우 3.51, 원유유출피해주민은 3.99로 원유유출피해지역 주민이 자원봉사자와의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t=-4.572, p<.001$). 수해피해주민에 비해 원유유출피해주민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계가 좋게 나타난 이유는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유유출피해지역에서 비공식적 지지체계의 도움보다 자원봉사자와 같은 공식적 체계의 도움을 수해지역보다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표 15]에서 살펴보면, 전문자원봉사자 부족(55.0%), 자원봉사자 관리미흡(41.3%), 제시시간에 오지 않음(39.9%) 순이었는데, 이중 수해의 경우 전문기술을 갖춘 자원봉사자의 부족(49.6%)과 제시시간에

오지 않음(43.9%)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 전문자원봉사자 확보와 자원봉사자의 신속한 파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유출의 경우 역시 전문기술을 갖춘 자원봉사자의 부족(62.1%), 자원봉사자 관리 미흡(52.6%) 순으로 불만족 이유가 나타났는데, 전문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유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14] 재해피해주민의 자원봉사 인식

항 목	평 균(SD)			t
	자연재난(수해)	인재(원유유출)	합 계	
자원봉사 만족도	3.28(1.08)	3.76(1.07)	3.73(1.05)	-4.414***
자원봉사자 관계	3.51(1.19)	3.99(.79)	3.48(1.09)	-4.572***

*p<.05, **p<.01, ***p<.001

[표 15] 재해피해주민의 자원봉사 불만족 이유

구분	빈 도 수(%)		
	자연재난(수해)	인재(원유유출)	합계
제시간에 오지 않음	54(43.9)	33(34.7)	87(39.9)
지속되지 않음	34(27.6)	20(21.1)	54(24.8)
자원봉사자와의 갈등	6(4.9)	4(4.2)	10(4.6)
자원봉사자가 방해가 됨	6(4.9)	7(7.4)	13(6.0)
자원봉사자의 준비부족	28(22.8)	33(34.7)	61(28.0)
전문자원봉사자 부족	61(49.6)	59(62.1)	120(55.0)
자원봉사자 관리미흡	40(32.5)	50(52.6)	90(41.3)
기타	25(20.3)	8(8.4)	33(15.1)

(3) 재해피해주민의 복지욕구

재해피해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살펴본 결과 도움받고 싶은 주체에 대해서는 [표 16]과 같이 나타났다. 이후에 또 재해가 발생한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53.1%), 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45.2%), 가족(42.5%)의 순으로 나타나 자원봉사자로부터의 서비스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해지역의 경우 가족(49.6%), 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43.9%), 이웃(43.2%)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표 11]에서와 같이 도움을 받았던 주체들과 앞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주체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원유유출피해지역에서는 앞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주체로 자원봉사자(71.0%), 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47.2%),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의 기관(41.5%) 순으로 응답하여 [그림 7]에서와 같이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주체들을 앞으로 중요한 도움의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유유출의 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같은 전문적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아 인재발생시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같은 전문적 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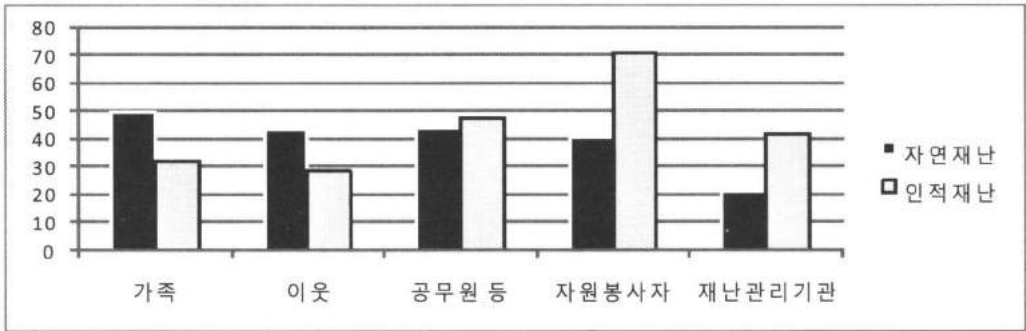
다음으로 재해시 받기를 원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표 17]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생필품지원(64.0%), 주택 및 환경복구 활동(59.5%), 재해지역 경제 복구 활동(55.7%) 순으로 나타나 우선적으로 물리적인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치료 및 약품지원(52.3%), 심리적 안정지원(37.7%)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복지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피해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높은 PTSD 경험 비율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심리치료 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해유형별로 받고 싶은 도움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해지역에서는 주택 및 환경복구활동(70.1%), 생필품 지원(64.8%), 지역경제 및 복구활동(4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유유출피해지역에서는 경제복구활동(64.4%), 생필품지원(62.8%), 신체적 치료 및 약품지원(61.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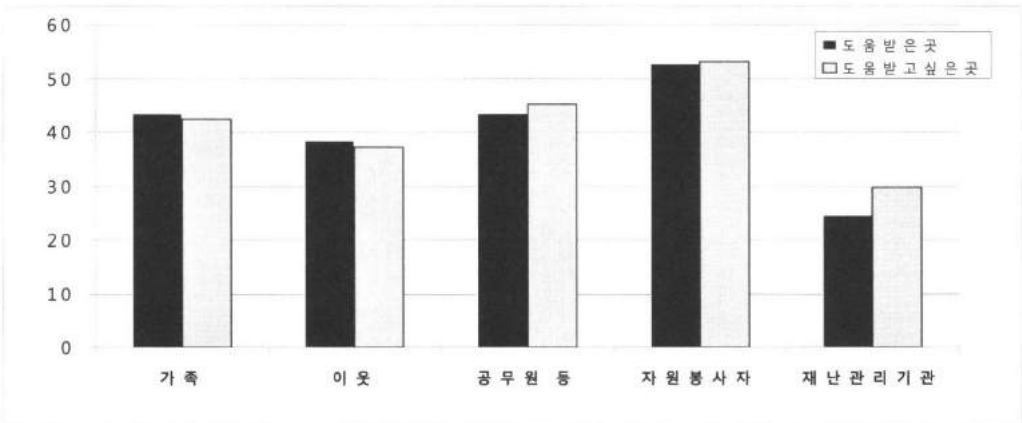
따라서 이후 재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 있어 이러한 재해의 특성에 따른 다른 욕구를 감안하여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원유유출피해지역에서는 심리적 안정지원과 재해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가 수해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6] 재해피해주민의 복지욕구 : 도움받고 싶은 대상(중복응답)

구 분	빈 도 수(%)		
	자연재난(수해)	인재(원유유출)	합 계
가 족	139 (49.6)	62(32.1)	201(42.5)
이 윗	121(43.2)	55(28.5)	176(37.2)
친 구	40(14.3)	42(21.8)	82(17.3)
친 척	33(11.8)	31(16.1)	64(13.5)
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	123(43.9)	91(47.2)	214(45.2)
자원봉사자	114(40.7)	137(71.0)	251(53.1)
성직자	10(3.6)	50(25.9)	60(12.7)
사회복지사	27(9.6)	45(23.3)	72(15.2)
재난관리협회 등 기관	60(21.4)	80(41.5)	140(29.6)
기타	18(6.4)	14(7.3)	3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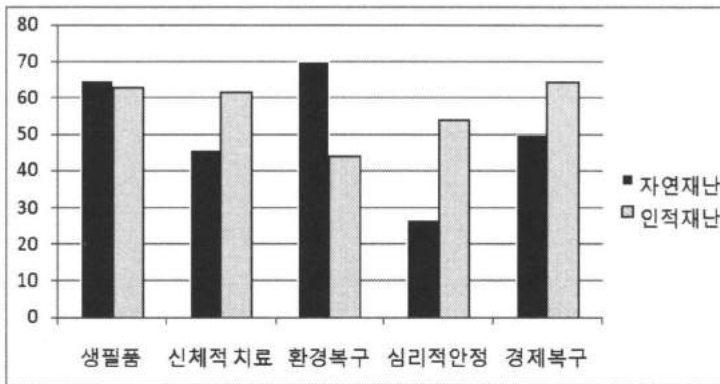
[그림 6] 재해피해주민의 복지욕구 : 도움받고 싶은 대상



[그림 7] 재해피해주민의 도움받은 대상과 도움받고 싶은 대상 비교

[표 17] 재해피해주민의 복지욕구② : 도움받고 싶은 내용 (중복응답)

구 분	빈 도 수(%)		
	자연재난(수해)	인재(원유유출)	합 계
인명구조	101(35.9)	48(25.1)	149(31.6)
생필품지원	182(64.8)	120(62.8)	302(64.0)
신체적 치료 및 약품지원	129(45.9)	118(61.8)	247(52.3)
심리적 안정지원	75(26.7)	103(53.9)	178(37.7)
주택 및 환경복구활동	197(70.1)	84(44.0)	281(59.5)
재해지역 경제복구 활동	140(49.8)	123(64.4)	263(55.7)
법적자문 및 컨설팅	24(8.5)	72(37.7)	96(20.3)
재해관련 정보제공	80(28.5)	80(41.9)	160(33.9)
다른 가족의 소식제공	43(15.3)	32(16.8)	75(15.9)
지역내기관 및 자원파악 연계	49(17.4)	64(33.5)	113(23.9)
기타	20(7.1)	22(11.5)	42(8.9)



[그림 8] 재해피해주민의 복지욕구 :도움 받고 싶은 내용

5) 재해피해주민의 대처 및 교육 홍보

(1) 재해피해주민의 대처행동

재해피해주민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표 18]과 같이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사회적 지지 추구, 문제해결중심, 회피중심 3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사회적 지지 추구는 3점 만점에 1.91점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재해유형별로 보면 수해의 경우 1.85, 원유유출 피해의 경우 1.99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38, p<.01$). 즉 수해지역 피해주민보다 원유유출피해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지지를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중심 대처는 3점 만점에 1.92점이었으며 이중 수해피해주민은 1.89, 원유유출피해주민은 1.94로 문제해결중심 대처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중심 대처는 3점 만점에 1.43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수해가 1.35, 원유유출 1.55로 나타나 원유유출피해주민이 회피중심 대처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5.774, p<.001$).

전체적인 재해피해주민들의 재난시 대처행동은 1.76으로 그 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해피해주민은 1.71, 원유유출피해주민은 1.83으로 원유유출피해주민이 좀 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287, p<.01$). 이러한 결과를 앞서 분석된 결과와 연결해 보면, 실제로 수해의 경우보다 원유유출의 경우 복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복구에 잘 참여하는 원유유출피해주민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8] 재해피해주민의 재해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

항 목	평 균(SD)			t
	자연재난(수해)	인재(원유유출)	합 계	
사회적지지추구	1.85(.47)	1.99(.48)	1.91(.48)	-2.838**
문제해결중심	1.89(.57)	1.94(.48)	1.92(.38)	-.874
회피중심	1.35(.32)	1.55(.54)	1.43(.35)	-5.774***
전체	1.71(.48)	1.83(.31)	1.76(.34)	-3.287**

* $p<.05$, ** $p<.01$, *** $p<.001$

(2) 재해피해주민의 대처요령 및 홍보교육

대처요령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은 [표 19]와 같다. 재해발생 전 피해방지요령과 재해발생시 대피요령 등 재난관련 행동요령에 대한 인식정도는 5점 만점에 수해피해주민 2.73로, 원유유출피해주민 2.38로 재해시 대처 인식정도가 수해와 인재 피

해주민 모두 보통인 편으로 나타났다. 수해피해주민에 비해 원유유출피해주민의 대처요령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낮았는데($t=3.525, p<.001$), 이는 수해의 경우 피해주민들이 과거의 경험 혹은 주변의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대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 비해, 원유유출은 재해의 형태상 예측과 정보습득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는 5점 만점에 수해는 3.29, 원유유출은 3.19로 나타나 다소 도움이 된 편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대처 및 예방교육에 대한 욕구는 5점 만점에 수해는 3.30, 원유유출은 3.54로 나타나 비교적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재해유형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예방이나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 여부는 수해나 원유유출 모두 약 60% 이상이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교육받은 것으로는 TV 및 라디오(70.0%)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도 신문 및 잡지(26.0%), 마을모임(22.0%)로 나타났다.

이렇게 재해피해주민들의 대처요령에 대한 낮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재해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는 약 4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재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수해지역의 경우 재해의 반복적 발생이 특징적이어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재해에 대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재해시 지역사회 활동

(1) 재해 및 복구활동 시 지역사회 활동 인식

재해피해주민의 재해와 재해 복구과정시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인식은 [표 20]과 같다.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 전체적으로 3.17로 나타났으며, 이중 수해지역이 5점 만점에 3.37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유유출피해지역의 경우는 2.8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4.359, p<.001$). 경제활성화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2.09점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재해 및 복구과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재해에 대한 인식이 증진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정도는 5점 만점에 3.33점으로

[표 19] 재해피해주민의 재해예방 대처교육 및 홍보현황

항 목	구 분	빈 도 수(%)		
		자연재난(수해)	인재(원유유출)	합 계
교육여부	받은 적 있다	108(38.8)	67(34.9)	175(26.7)
	받은 적 없다	170(61.2)	125(65.1)	295(63.3)
교육받은 곳	TV및 라디오	98(76.6)	58(61.1)	156(70.0)
	신문 및 잡지	34(26.6)	24(25.3)	58(26.0)
	인터넷	15(11.7)	15(15.8)	30(13.5)
	마을모임 및 반사회	20(15.6)	29(30.5)	49(22.0)
	주변사람들	25(19.5)	23(24.2)	48(21.5)
	기타	14(10.9)	9(9.5)	23(10.3)
항 목	평 균(SD)		t	
	자연재난(수해)	인재(원유유출)		
대처요령 인식정도	2.73(1.06)	2.38(1.04)	3.525***	
교육 도움여부	3.29(1.19)	3.19(1.09)	.662	
앞으로 교육받을 의향	3.30(1.30)	3.54(1.33)	.308	

*p<.05, **p<.01, ***p<.001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재해유형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및 복구과정을 통해 지역주민, 지방정부, 자원봉사자 간 의견충돌과 물리적 마찰이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2.72로 비교적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해의 경우 2.42로 비교적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편으로 나타났고, 원유유출의 경우 3.14로 다소 그런 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5.591, p<.001$). 재해와 복구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가 훼손됐는지 여부는 5점 만점에 3.30으로 비교적 그렇다고 인식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해는 2.53으로 그렇지 않은 편으로 인식하는데 비해, 원유유출피해주민들은 3.73점으로 그렇다고 인식하는 편으로 나타났다($t=-9.393, p<.001$).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들은 재해의 형태에 따라 지역사회가 다르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해의 경우 피해의 범위가 상대

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피해 형태나 내용도 비교적 명확하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대처방식 역시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처나 지역 관련기관들의 지원이 일관되게 수행될 수 있어 피해주민들이 지역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원유유출의 경우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 형태나 내용, 정도가 피해주민들마다 각각 다양한데다가 예측되는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처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고 지역관련 기관들의 지원역시 일관적으로 수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재해피해주민들에 비해 지역공동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재해지역의 자원봉사 계획과 활동시, 이러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재의 경우 지역정부, 주민, 자원봉사단체간에 갈등과 충돌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인재 지역에 지원을 위한 개입시 신중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해와 관련하여 형성된 주민대책위원회, 보상대책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3.23으로 필요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유유출은 3.34, 수해는 3.15로 원유유출피해주민들이 조직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623, p<.05$). 원유유출이 피해의 범위가 넓고 피해 형태가 다양한 인재의 특성상, 보상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높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이 주민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0] 재해피해주민의 재해 및 복구과정시 지역사회 활동인식

항 목	평 균(SD)			t
	자연재난(수해)	인재(원유유출)	합 계	
지역공동체의식	3.37(1.12)	2.89(1.26)	3.17(1.20)	4.359***
경제활성화 인식도	2.08(1.11)	2.10(1.17)	2.09(1.13)	-.271
지역사회의 재해에 대한 인식증진 정도	3.40(1.22)	3.22(1.23)	3.33(1.23)	1.607
지역단체와의 갈등	2.42(1.28)	3.14(1.47)	2.72(1.41)	-5.591***
지역공동체 훼손	2.53(1.39)	3.73(1.30)	3.30(1.47)	-9.393***
지역주민조직 인식	3.15(.75)	3.34(.78)	3.23(.76)	-2.623*

* $p<.05$, ** $p<.01$, *** $p<.001$

(2) 재해 및 복구활동시 지역주민조직 참여

재해피해주민의 지역내 주민조직 참여활동은 [표 21]과 같이 나타났다. 주민조직에 참여한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43.1%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수해는 27.8%, 원유유출의 경우 64.4%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원유유출 피해주민들의 주민조직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62.847, p<.001$). 이는 주민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피해복구 및 보상과 관련하여 원유유출피해주민들이 지역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이에 따른 참여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한 주민조직의 종류는 전체적으로 집회참석이 42.0%로 가장 많았으며, 토론회 참석 22.6%, 서명참석 20.4%, 항의전화 6.6%로 나타났다. 재해유형별로는 수해의 경우 서명이나 토론회 참석이 많았던 반면, 원유유출의 경우 집회참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조직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3.124, p<.001$).

앞으로의 주민조직 참여의사에 대해서는 참여할 의사가 69.0%로 나타나 비교적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유형별로는 수해나 원유유출의 경우 모두 앞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높았으나 원유유출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chi^2=9.207, p<.01$).

[표 21] 재해피해주민의 지역내 주민조직 참여

항 목	구 분	빈 도 수(%)			χ^2
		자연재난(수해)	인재(원유유출)	합 계	
주민조직 참여여부	참여	75(27.8)	125(64.4)	200(43.1)	61.847***
	비참여	195(72.2)	69(35.6)	264(45.9)	
참여종류	집회참석	16(17.8)	79(58.1)	95(42.0)	43.124***
	서명참석	26(28.9)	20(14.7)	46(20.4)	
	토론회참석	25(27.8)	26(19.1)	51(22.6)	
	항의전화	13(14.4)	2(1.5)	15(6.6)	
	기타	10(11.1)	9(6.6)	19(8.4)	
앞으로의 참여의향	있음	170(63.4)	148(76.7)	318(69.0)	9.207**
	없음	98(36.6)	45(23.3)	143(31.0)	

*p<.05, **p<.01, ***p<.001

7) 합의 및 제언

(1) 재해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 지원 필요

재해시 피해주민들의 지원욕구는, 주로 생필품 지원 및 환경 복구, 재해지역 경제복구 활동 등과 같은 1차적이고 물리적 지원에 대해 높은 욕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치료 및 약품 등의 의료지원, 심리적 안정지원에 대한 욕구도 높게 제시되고 있으므로,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해 유형별로 중점적으로 겪는 문제와 받고 싶은 도움의 내용이 다르므로, 재해지원대책 마련시 이러한 재해의 특성에 따른 피해주민들의 다른 욕구를 감안하여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해지역의 경우 피해특성상 주거지역 보수에 대한 도움이 가장 많이 요구되었고, 실제로 방정리 및 청소, 토사 및 쓰레기 치우기, 지붕수리 등 보수공사, 도배장판수리 등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작물 및 농업시설 복구, 의료 및 간병서비스의 지원은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1차적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신체치료 및 약품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팀을 조기에 파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유유출피해지역의 경우 경제복구 활동, 신체적 치료 및 약품지원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심리치료 등 이에 대한 지원과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2) 전문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실시

조사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피해주민들은 재해 경험을 전후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54.1%에 이르는 재해피해주민이 PTSD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재해피해주민들의 정신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원유유출피해주민들의 경우 PTSD 진단이 필요한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후 복지욕구 중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욕구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해피해주민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 도움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재해 시점 뿐만아니라 재해가 어느 정도 복구된 후에도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 후에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Follow-u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피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재해예방 및 대처교육 필요

위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해피해주민들은 재해에 대한 인식 및 대처요령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으로 재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는 약 4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해지역의 경우 재해의 반복적 발생이 특징적이어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재해에 대한 대처요령을 교육하고, 재해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 전문자원봉사 유치 및 체계적 관리 필요

재해피해주민들은 재해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지원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을 재해시에 가장 중요한 지원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어 자원봉사자로부터의 서비스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해시 자원봉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앞서 조사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 제시한 도착하지 않음, 전문자원봉사자의 부족, 관리의 미흡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신속한 대피활동이나 구호물품 전달, 주택 및 환경복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전문 자원봉사자의 유치와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유유출의 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같은 전문적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는 응답이 높는데, 인재 발생시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원봉사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재해구호전문기관으로써의 중심적 역할을 정립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분석

효율적인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모색

1)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성

(1)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성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 22]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자원봉사센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남성이 55.1%, 여성이 44.9%였고, 자원봉사센터는 남성이 35.1%, 여성이 64.9%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남성이 약간 많았고 자원봉사센터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0대, 30대가 86.7%로 주를 이루었고 50대 이상의 자원봉사자는 전혀 없는 반면, 자원봉사센터는 30대 32.9%, 40대 38.9%로 주로 30대, 40대가 주를 이루었으며, 50대 이상도 21.6%로 나타나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비해 고연령층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었다. 결혼 상태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미혼이 83.3%였으나 자원봉사센터는 결혼한 자원봉사자들이 84.9%로 대조적이었다.

종교는 두 기관모두 무교가 가장 많았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대학교 졸업이 84.5%로 가장 많았고 자원봉사센터는 대학교 졸업이 50.9%, 고등학교졸업이 35.8%로 나타났다. 직업을 살펴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학생이 32.0%, 회사원이 24.7%로 학생과 회사원이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공무원과 기능직이 각각 10.3%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원봉사센터는 주부가 36.7%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가 22.9%, 회사원이 13.3%였으

며 학생은 3%, 공무원은 4.8%에 그쳤다.

월평균 소득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대가 33.7%, 200만원에서 300만원대가 27.2%, 300만원에서 500만원대가 25.0%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센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대가 33.1%, 200만원에서 300만원대가 23.8%, 300만원에서 500만원대가 22.5%로 나타나 고른 분포를 보여주었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4점 만점에 전국재해구호협회 2.87, 자원봉사센터 2.91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상태도 4점 만점에 전국재해구호협회 3.28, 자원봉사센터 3.18로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표 22]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빈 도 수(%)		전 체
		재해구호협회 (n=98)	자원봉사센터 (n=168)	
성별	남	54(55.1)	59(35.1)	113(42.5)
	여	44(44.9)	109(64.9)	153(57.5)
연령	10대	11(11.2)	1(.6)	12(4.5)
	20대	65(66.3)	10(6.0)	75(28.3)
	30대	20(20.4)	55(32.9)	75(28.3)
	40대	2(2.0)	65(38.9)	67(25.3)
	50대	0	33(19.8)	33(12.5)
	60대	0	3(1.8)	3(1.1)
	평균연령	27.11(5.71)	44.15(9.29)	37.8(11.58)
결혼상태	미혼	80(83.3)	17(10.2)	97(37.0)
	결혼	15(15.6)	141(84.9)	156(59.5)
	이혼/별거	1(10.0)	5(3.0)	6(2.3)
	사별	0	3(1.8)	3(1.1)
종교	무교	44(45.4)	57(34.3)	101(38.4)
	불교	12(12.4)	50(30.1)	62(23.6)
	천주교	9(9.3)	16(9.6)	25(9.5)
	유교	1(1.0)	2(1.2)	3(1.1)
	기독교	31(32.0)	37(22.3)	68(25.9)
	기타	0(0)	4(2.4)	4(1.5)
최종학력	중졸이하	3(3.1)	12(7.2)	15(5.7)
	고등학교 졸업	9(9.3)	59(35.8)	68(26.0)

	대학교 졸업	82(84.5)	84(50.9)	166(63.4)
	대학원 졸업	3(3.1)	10(6.1)	13(5.0)
직업	무직	4(4.1)	4(2.4)	8(3.0)
	학생	31(32.0)	5(3.0)	36(13.7)
	주부	3(3.1)	61(36.7)	64(24.3)
	자영업	1(1.0)	38(22.9)	39(14.8)
	공무원	10(10.3)	8(4.8)	18(6.8)
	회사원	24(24.7)	22(13.3)	46(17.5)
	기능직	10(10.3)	6(3.6)	16(6.1)
	전문직	5(5.2)	7(4.2)	12(4.6)
	기타	9(9.3)	15(9.0)	24(9.1)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5(5.5)	22(13.8)	27(10.8)
	100만원 - 200만원	31(33.7)	53(33.1)	84(33.3)
	200만원 - 300만원	25(27.2)	38(23.8)	63(25.0)
	300만원 - 500만원	23(25.0)	36(22.5)	59(23.4)
	500만원 이상	8(8.7)	11(6.9)	19(7.5)
주관적 경제적 수준	평균(표준편차)	2.87(.646)	2.91(.661)	2.90(.655)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3.28(.647)	3.18(.624)	3.22(.633)

(2)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건강상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후의 봉사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발생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3]과 같다.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후에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한 경우는 14.9%로 나타났다. 신체적 증상을 살펴보면, 두통 9.3%, 위장장애 및 소화장애 7.5%, 변비 또는 설사 6.2%, 등이 아픔이 6.2% 등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증상은 우울증상과 불안증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울증상과 불안증상의 발생빈도는 높지 않지만 우울증상의 경우는 분노(3.7%)나 둔해진 감정(3.7%), 식욕부진 혹은 과식(3.7%) 등을 호소하였다. 불안증상의 경우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7.5%), 긴장과 걱정(6.2%) 등의 증상을 보고하였다. 이들 증상의 발생빈도는 낮지만 자원봉사후 봉사자들의 건강이나 스트레스 발생은 일상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재해구호 봉사활동 후 자원봉사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후 스트레스 경험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자원봉사자 중 25.3%가 스트레스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스트레스의 요인으로는 재해구호 자원봉사시 접근이 어려운 점(11.5%)과 한계에 부딪히는 점(11.4%)이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이 자원봉사에 대한 불명확한 역할(9.2%), 무기력함(6.9%), 관리자와의 문제(6.4%), 기진맥진(6.4%), 개인적인 위험(5.8%) 순으로 나타났다.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의 4분의 1가량이 봉사 후에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은 재해구호 자원봉사후에 봉사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불명확한 역할이나 관리자와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무기력함이나 기진맥진, 개인적인 위험 등의 요인은 재해구호 자원봉사시에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심리적 지지 등의 필요함을 나타내 주었다.

[표 23]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후 신체적, 정신적 문제

항 목		빈 도 수 (%)
신체, 정신증상 발생경험		37(14.9)
신체증상	위장장애 및 소화장애	12(7.5)
	등이 아픔	10(6.2)
	가슴 통증	3(1.9)
	두통	15(9.3)
	현기증	9(5.6)
	심장이 두근거림	2(1.2)
	호흡이 가쁨	2(1.2)
	변비 또는 설사	10(6.2)
우울증상	나 자신에 대한 분노	6(3.7)
	둔해진 감정	6(3.7)
	식욕 부진 혹은 과식	6(3.7)
	알콜 또는 다른 약물 사용	0(0)
	나 자신에 대한 비난	3(1.9)
	관심(흥미)의 상실	3(1.9)
	외로움, 희망 없음	3(1.9)
	죽음에 대한 생각	6(3.7)

불안증상	집중력 저하	4(2.5)
	긴장과 걱정	10(6.2)
	쉽게 짜증이 남	3(1.9)
	불면증	6(3.7)
	미래가 안보인다는 느낌	2(1.2)
	일에 대한 스트레스	12(7.5)
스트레스 발생경험		65(25.3)
스트레스 요인	죽음과 파괴 정도가 큼	3(1.7)
	무기력함	12(6.9)
	다른 팀의 도움 부족	9(5.2)
	한계에 부딪침	20(11.4)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과의 대면	4(2.3)
	관리자와의 문제	11(6.4)
	어린 아이의 죽음	2(1.2)
	불명확한 역할	16(9.2)
	일을 할 수 없게 됨	4(2.3)
	기진맥진	11(6.4)
	부적합한 정치	3(1.7)
	리더쉽 문제	8(4.6)
	접근의 어려움	20(11.5)
	개인적인 위협	10(5.8)

2)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 실태

(1)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특성

자원봉사자들의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경험의 특성을 소속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자원봉사센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24]와 같다.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일반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전체적으로 80.7%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자 78.9%,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81.6%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일반자원봉사 활동 기간은 전국재해구호협회 36.13개월이었고 자원봉사센터 73.61개월로 나타나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두 배 정도 길게 자원봉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구호 자원봉사 참여횟수도 전국재해구호협회

3.14회, 자원봉사센터 7.37회로 두 배 정도 많았다. 이는 전에 일반자원봉사 경험이 있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해왔던 사람들이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참여했음을 나타낸다.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기간 역시 전국재해구호협회 13.97개월, 자원봉사센터 52.91개월로 자원봉사센터 소속의 봉사자들이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장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한 자원봉사활동의 재해유형을 살펴보면, 인적재난인 원유유출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전국재해구호협회 44.6%, 자원봉사센터 6.4%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월등히 높았다. 수해, 폭설 등의 자연재난은 자원봉사센터 48.6%, 전국재해구호협회 15.2%로 자원봉사센터가 높게 나타나 원유유출 재해에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재해지역을 중복응답이 가능한 형식으로 2002년 이후부터 살펴보았다.

우선 2002년부터의 재해피해지역을 살펴보면, 자연재난으로는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해 강원도 강릉시와 삼척시, 동해시 등이 피해를 입었다. 2003년도 태풍 '매미'의 피해지역은 강원도 삼척시, 경남 마산시 등이었고, 2005년도는 폭설피해가 있었는데 충남 정읍시, 논산시, 전북 고창군, 장수군 등이 피해지역에 해당된다. 같은 해인 2005년 태풍 '나비'로 인해 울릉도, 전북 전주시, 부산시 등이 피해를 입었고, 2006년에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강원도 인제군과 평창군, 경남 진주시 등이 피해를 입었다. 2007년도는 태풍 '나리'로 인해 제주시와 고흥군이 피해를 입었고, 인적재난으로는 같은 해인 2007년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로 인해 태안군과 군산시 등이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재해지역을 살펴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83.0%), 자원봉사센터(39.7%) 모두 2007년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재해에 참여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재해의 경우 '태안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자원봉사자가 대거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006년 에위니아 피해지역에 40.4%, 2005년 폭설 피해시에 16.0%가 참여했으나, 다른 재해에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루사피해 지역 47.7%, 2003년 매미피해 지역 29.3%, 2006년 에위니아 피해 지역 24.1%, 2005년 폭설피해 지역 21.8% 순으로 지속적으로 재해구호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재해구호 자원봉사의 참여형태를 살펴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개인차원 36.8%, 친구 및 가족과 함께 32.6%, 소모임 형태 20.0%의 순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센터는 소모임 형태 51.3%로 과반수이상이었고 개인차원 23.3%, 친구 및 가족과 함께 9.3%순으로 나타났다. 재해구호 자원봉사 참여경로는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가 46.9%로 약 절반정도를 차지하였고, 친구 및 가족의 권유 27.1%, 다른 자원봉사자의 권유 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자원봉사자의 권유 30.5%, 종교, 취미, 사회단체의 권유 25.8%, 신문 방송을 통해서 13.2%, 친구 및 가족의 권유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해구호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서는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매체의 역할과 홍보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동시에 친구, 가족, 소모임 등을 통해 참여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사람들의 권유나 제안 등도 중요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시 소유기술을 살펴보면, 두 기관 모두 응급처치기술, 도배 및 장판 기술, 의료 및 간호 기술, 운전기술을 소유한 자원봉사자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구호 자원봉사의 참여동기를 살펴보면, 전체 참여동기는 5점 만점에 3.54점으로 비교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성취동기가 3.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해구호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개인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을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중요한 동기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 3.60, 전국재해구호협회 3.47로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의 참여동기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위영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경험동기, 책임동기, 접촉동기, 기대동기, 성취동기는 자원봉사센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정동기, 교환동기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자원봉사센터 모두 성취동기가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동기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기대동기였으며 자원봉사센터는 인정동기였다.

한편 두 기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동기는 2개였다. 특히 책임동기의 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 3.73, 자원봉사센터 3.97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2.608, p<.01$). 또한 기대동기도 전국재해구호협회 2.69, 자원봉사센터 3.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5.933, p<.001$). 이는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이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속 봉사자들에 비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해결에 책임이 있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봉사에 많이 참여하며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봉사에 더욱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체 적극도는 5점 만점에 3.78이었고 전국재해구호협회 3.86, 자원봉사센터 3.73이었다. 이는 두 기관의 봉사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 지속의지는 3점 만점에 2.20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거주지의 재난발생 여부를 살펴보면, 거주지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는 전국재해구호협회 17.9%, 자원봉사센터 80.2%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냈다($\chi^2=96.392, p<.001$). 또한 봉사자 본인이 직접 피해를 당한 경험도 전국재해구호협회 9.4%에 비해 자원봉사센터는 38.6%로 큰 차이를 보였다($\chi^2=25.766, p<.001$). 이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봉사자들은 거주지에 재난 경험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재해를 경험해보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4]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특성

항 목	구 분	빈 도 수(%)		전 체	t/ χ^2
		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센터		
일반자원 봉사 활동경험	있다	75(78.9)	142(81.6)	217(80.7)	-
	없다	20(21.1)	32(18.4)	52(19.3)	
자원봉사 활동 총기간	평균(SD)	36.13(60.19)	73.61(74.61)	60.9(72.1)	-4.166***
재해구호 자원봉사 참여횟수	평균(SD)	3.14(3.91)	7.37(8.63)	5.7(7.42)	-5.202***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기간	평균(SD)	13.97(12.06)	52.91(62.31)	37.5(52.5)	-6.198***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참여 재해유형	인적재난	41(44.6)	9(6.4)	50(21.6)	-
	자연재난	14(15.2)	68(48.6)	82(35.3)	
	인재+자연	37(40.2)	63(45.0)	100(43.1)	

참여한 재해지역	2007년 허베이	78(83.0)	69(39.7)	147(54.9)	-
	2007년 나리	3(3.2)	17(9.8)	20(7.5)	
	2006년 에위니아	38(40.4)	42(24.1)	80(29.9)	
	2005년 나비	2(2.1)	31(17.8)	33(12.3)	
	2005년 폭설	15(16.0)	38(21.8)	53(19.8)	
	2003년 매미	5(5.3)	51(29.3)	56(20.9)	
	2002년 루사	1(1.1)	83(47.7)	84(31.3)	
	기타	2(2.1)	35(20.1)	37(13.8)	
참여형태	개인차원	35(36.8)	35(23.3)	70(28.6)	-
	친구, 가족함께	31(32.6)	14(9.3)	45(18.4)	
	소모임 형태로	19(20.0)	77(51.3)	96(39.2)	
	기타	10(10.5)	24(16.0)	34(14.9)	
참여경로	친구, 가족권유	26(27.1)	16(10.6)	42(17.0)	-
	다른 자원봉사자 권유	13(13.5)	46(30.5)	59(23.9)	
	종교, 취미, 사회단체 권유	2(2.1)	39(25.8)	41(16.6)	
	신문, 방송	4(4.2)	20(13.2)	24(9.7)	
	인터넷사이트	45(46.9)	2(1.3)	47(19.0)	
	포스터홍보지	2(2.1)	0(0)	2(0.8)	
	기타	4(4.2)	28(18.5)	32(13.0)	
자원봉사 활동 참여시 소유기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0(0)	0(0)	0(0.0)	-
	도배, 장판기술	1(1.1)	3(1.9)	4(1.6)	
	가전, 전기기술	0(0)	1(6)	1(0.4)	
	의료, 간호기술	1(1.1)	2(1.3)	3(1.2)	
	대형차량 운전기술	1(1.1)	4(2.6)	5(2.0)	
	노력봉사	89(93.7)	128(83.1)	217(87.1)	
	기타	3(3.2)	16(10.4)	19(7.6)	
참여동기 M(S.D)	경험동기	3.47(1.005)	3.55(.990)	3.52(.994)	-.608
	책임동기	3.73(.788)	3.97(.646)	3.88(.710)	-2.608*
	접촉동기	3.70(.835)	3.74(.758)	3.72(.786)	-.403
	기대동기	2.69(.796)	3.37(.945)	3.12(.950)	-5.933***

	인정동기	3.38(.805)	3.24(.930)	3.29(.886)	1.162
	교환동기	3.51(.816)	3.37(.970)	3.42(.915)	1.128
	성취동기	3.89(.809)	3.95(.771)	3.92(.784)	-.682
	전체동기	3.47(.546)	3.60(.526)	3.54(.535)	-1.769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시 적극도 M(S.D)		3.86(.738)	3.73(.886)	3.78(.835)	1.308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 참여의 지속의지 M(S.D)		2.21(.503)	2.20(.485)	2.20(.491)	.145
거주지의 재난발생 경험		17(17.9)	134(80.2)	151(57.6)	96.392***
본인의 직접피해 경험		9(9.4)	64(38.6)	73(27.9)	25.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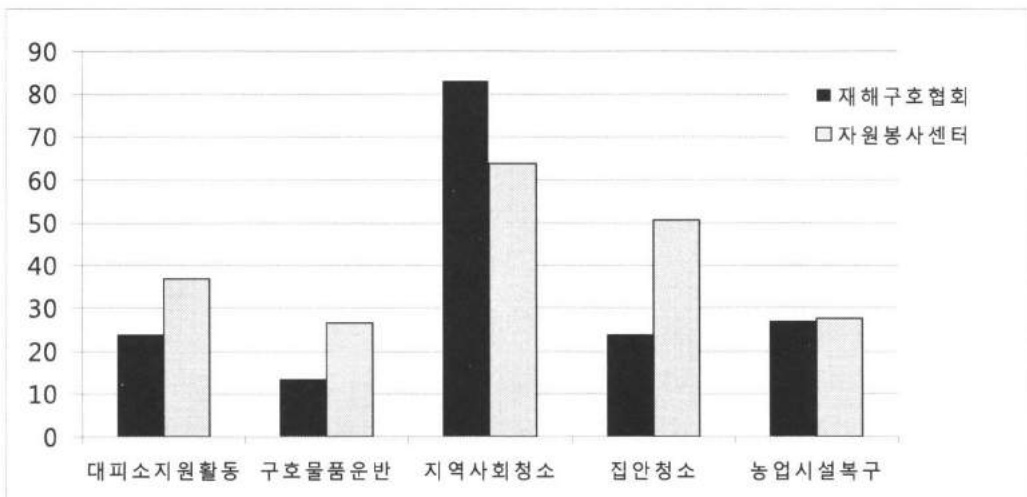
*** p<.001, ** p<.005, * p<.05

(2) 참여한 재해구호 봉사활동 내용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봉사활동을 소속기관별로 구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자원봉사센터로 구분하여 살펴본 내용은 [표 25]와 같다. 우선 전반적으로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시에 가장 많이 한 활동은 재해 쓰레기, 토사치우기, 재해지역청소로 전체의 70.7%를 차지하였고, 방정리 및 청소 41.1%, 대피소 지원활동 32.2%, 농작물, 농업시설복구 27.4%로 나타나 앞서 [표 24]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부분 노력봉사 활동이 많았다. 그리고 전문적인 활동, 가전제품 수리 및 인터넷 통신설치나 화단이나 벽 보수 공사 등의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해구호 자원봉사시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마사지, 안마나 이·미용 서비스, 심리치료 등의 활동 비율도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해구호 봉사활동내용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활동이었고, 진행된 봉사활동이 재해발생 직후 초기 1~2개월에만 초점을 맞춘 단순한 봉사활동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전문기술을 갖춘 자원봉사 참여자를 활성화시키고 재해 후에도 장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하겠다.

[표 25]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내용

활동내용	빈도수 (%)		전체
	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센터	
인명구조	1(1.0)	15(8.6)	16(5.9)
대피소 지원활동	23(24.0)	64(36.8)	87(32.2)
피해상황 정보수집	5(5.2)	11(6.3)	16(5.9)
구호물품운반	13(13.5)	46(26.4)	59(21.9)
재해 쓰레기, 토사치우기, 재해지역청소	80(83.3)	111(63.8)	191(70.7)
방정리 및 청소	23(24.0)	88(50.6)	111(41.1)
행정기관 및 자봉단체 업무보조	1(1.0)	38(21.8)	39(14.4)
마사지, 안마	0(0)	5(2.9)	5(1.9)
도배, 장판수리	7(7.3)	24(13.8)	31(11.5)
지붕수리, 화단이나 벽 보수공사	3(3.1)	20(11.5)	23(8.5)
가전제품 수리 및 인터넷 통신설치	0(0)	6(3.4)	6(2.2)
농작물, 농업시설복구	26(27.1)	48(27.6)	74(27.4)
이·미용 서비스	0(0)	13(7.5)	13(4.8)
의료 및 간병서비스	1(1.0)	21(12.1)	22(8.1)
콘서트 연극 등의 위로공연 심리치료	2(2.1)	9(5.2)	11(4.1)
기타	3(3.1)	11(6.3)	14(5.2)



[그림 9]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내용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자원봉사센터를 비교해 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쓰레기, 토사치우기, 재해지역 청소가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농작물, 농업시설 복구가 27.1%, 대피소 지원활동, 방정리 및 청소가 각각 24%, 구호물품운반이 13.5%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센터는 재해쓰레기, 토사치우기, 재해지역청소 63.8%, 방정리 및 청소 50.6%, 대피소 지원활동 36.8%, 농작물, 농업시설 복구 27.6%, 구호물품운반 26.4%순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 모두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비해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는 도배장판수리(13.8%), 지붕수리 및 화단이나 벽 보수공사(11.5%), 의료 및 간병서비스(12.1%) 등 기술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3)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시의 사람들과의 관계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피해주민, 재해구호 자원봉사 기관 관리자, 다른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와 재해로 피해와 관련된 사람들과 경험을 나타낸 결과는 [표 26]과 같다. 우선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재해지역의 피해주민을 만난경험은 전체 66.4%로 나타났고,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이 76.2%,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봉사자들이 49.5%로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이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시에 피해주민과 직접적으로 만난 경험이 많았다($\chi^2=19.290$, $p<.001$).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의 주변사람들의 피해여부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이 57.6%, 전국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자들의 29.5%가 있다고 대답했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이 친인척의 피해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chi^2=19.100$, $p<.001$). 재해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7.3%임에 비해 자원봉사센터는 45.0%나 되었고($\chi^2=41.598$, $p<.001$), 재해로 인해 죽은사람이 있는 경우는 전국재해구호협회 봉사자가 4.2%, 자원봉사센터 봉사자가 33.3%로($\chi^2=29.702$, $p<.001$) 나타났다. 그 중에 친구가 5.6%, 가족이 1.2%로 나타나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가 재해지역의 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재해지역 거주자와 직접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활동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

피해주민들과의 관계는 3.81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피해

주민들이 변화되고 활동에 만족감을 비교적 높게 갖는 것으로 보아 피해주민과의 관계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 3.63, 자원봉사센터 3.90으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피해주민들과의 관계가 더 좋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281$, $p<.001$).

자원봉사 기관관리자와의 관계도 전국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센터 각각 3.75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였다. 다른 동료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는 전체가 4.01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의 이해와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 서로 돕는 과정을 통해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속기관별로는 전국재해구호협회 3.86, 자원봉사센터 4.11로 자원봉사센터가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371$, $p<.001$).

[표 26]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시의 사람들과의 관계

항 목	빈 도 수 (%)		전 체	t/x ²
	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센터		
피해주민 만난경험	47(49.5)	125(76.2)	172(66.4)	19.290***
주변사람 피해여부	28(29.5)	95(57.6)	123(47.3)	19.100***
재해지역에 아는 사람	있다	7(7.3)	72(45.0)	41.598***
	가족	2(2.1)	11(6.9)	
	친구	4(4.2)	20(12.5)	
	기타	1(1.0)	41(25.6)	
재해로 인해 죽은 사람을 아는지 여부	있다	4(4.2)	54(33.3)	29.702***
	가족	0(0)	2(1.2)	
	친구	0(0)	9(5.6)	
	기타	4(4.2)	43(26.5)	
피해주민과의 관계 M(S.D)	3.63(.520)	3.90(.475)	3.81(.503)	-3.281***
자원봉사 기관관리자와의 관계 M(S.D)	3.75(.586)	3.75(.661)	3.74(.612)	.053
동료 자원봉사자와의 관계 M(S.D)	3.86(.613)	4.11(.530)	4.01(.632)	-3.371***

*** $p<.001$, ** $p<.005$, * $p<.05$

3)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인식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인식을 소속기관별로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자원봉사센터로 구분하여 나타낸 결과는 [표 27]과 같다. 우선 소속기관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3으로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3.56, 자원봉사센터는 3.5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세부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치업무부여 3.76, 교육에 대한 만족 3.48, 인정보상 3.26, 기관에 대한 평가 3.67, 지도감독 평가 3.50, 기관에 대한 이미지 3.93으로 나타났다. 즉 기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고 인정보상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았다. 시설별로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자원봉사센터의 세부 영역별 만족도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인정보상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전국재해구호협회 3.52로, 자원봉사센터가 3.1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4.182, p<.001$).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5점 만점에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자원봉사센터가 각각 3.60으로 같게 나타났다. 이는 자원봉사자들이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을 대체적으로 자원봉사 이상의 의미있는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속된 기관에 대한 인식도 전국재해구호협회 3.63, 자원봉사센터 3.65로 유사하게 나타나 소속된 기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대체적으로 의미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욕구

(1)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지원 욕구

재해구호자원봉사자의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위해 필요한 지원 욕구를 [표 28]과 같이 살펴보았는데, 1순위로는 교통지원이 32.8%, 다양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18.0%, 봉사장비 제공이 14.8%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욕구 중 2순위로는 교통지원과 봉사장비 제공이 각각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식사제공도 17.6%로 높게 나타났다. 3순위로는 봉사장비 제공이 2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통지원이 14.8%, 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1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재해구호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에 교통

지원, 봉사장비 제공, 식사 제공 순으로 물리적인 지원을 우선 필요로 하고 있으며, 봉사자들을 위한 보험 가입도 재해구호 자원봉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욕구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7]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인식

구 분	평 균(표준편차)		전 체	t	
	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센터			
기관 자원봉사 활동 관리과정 평가	배치업무부여	3.76(.747)	3.76(.711)	3.76(.723)	.094
	교육	3.46(.689)	3.50(.842)	3.48(.787)	-.300
	인정보상	3.52(.630)	3.10(.904)	3.26(.835)	4.182***
	기관에 대한 평가	3.61(.775)	3.71(.815)	3.67(.800)	-.967
	지도감독평가	3.41(.814)	3.55(.799)	3.50(.806)	-1.226
	기관에 대한 이미지	3.99(.747)	3.90(.775)	3.93(.764)	.837
	전체	3.56(.5705)	3.52(.639)	3.53(.612)	.433
재해구호 자원봉사 인식	3.60(.700)	3.60(.615)	3.60(.648)	-.017	
소속된 기관에 대한 인식	3.60(.639)	3.65(.726)	3.63(.709)	-.582	

*** p<.001, ** p<.005, * p<.05

[표 28]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지원욕구

항 목	1 순위	2 순위	3 순위
교통지원	80(32.8)	43(18.0)	35(14.8)
식사제공	13(5.3)	42(17.6)	25(10.5)
봉사장비 제공	36(14.8)	43(18.0)	56(23.6)
숙박제공	4(1.6)	9(3.8)	8(3.4)
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32(13.1)	25(10.5)	30(12.7)
사회제도적 인정	6(2.5)	11(4.6)	7(3.0)
다양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PG	44(18.0)	25(10.5)	28(11.8)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초대	3(1.2)	17(7.1)	19(8.0)
기관의 지도감독과 협력	24(9.8)	24(10.0)	26(11.0)
기타	2(0.8)	-	3(1.2)
합계	244(100)	239(100)	237(100)

(2) 재해지역 복구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원봉사활동

재해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원봉사활동은 [표 29]와 같다. 1순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살펴보면, 대피소생활지원이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택복구활동 16.6%, 의료서비스가 9.7%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를 살펴보면, 주택복구 활동이 33.7%로 가장 높았고, 의료서비스 21.4%, 대피소 생활지원이 15.6% 순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는 농작물 및 농어업시설 복구활동이 29.3%로 가장 높았고, 주택복구활동 14.9%, 대피소생활 지원이 13.2% 순이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재해지역 복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급식, 세탁, 구호물품, 노약자 및 어린이, 부상자들을 돌보는 대피소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토사제거, 가재도구 세척, 가전수리 등의 주택복구 활동과 농작물 청소, 비닐 하우스 복구 등의 농작물 및 시설 복구 활동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으로 긴급구호의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간병서비스와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서비스의 필요성도 높게 나타나 재해구호자원봉사자들이 재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재해지역 복구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원봉사 활동

항 목	1 순위	2 순위	3 순위
대피소생활지원	135(54.7)	38(15.6)	32(13.2)
주택복구활동	41(16.6)	82(33.7)	36(14.9)
농작물 및 농어업시설복구활동	12(4.9)	35(14.4)	71(29.3)
심리적, 정신적 위로활동	10(4.0)	9(3.7)	25(10.3)
기타 서비스: 이미용 및 마사지 안마서비스	-	1(0.4)	6(2.5)
의료서비스	24(9.7)	52(21.4)	26(10.7)
재해지역 경제복구활동	15(6.1)	17(7.0)	23(9.5)
법적 자문 및 컨설팅	1(0.4)	-	3(1.2)
기타	9(3.7)	9(3.7)	20(8.3)
합계	274(100)	243(100)	242(100)

5) 합의 및 제언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제언을 제시해보면 첫째, 전반적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비해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이 자원봉사기간이 길고 재해구호시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참여동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해구호 자원봉사운영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데 대그룹 단위의 자원봉사 운영보다 소그룹의 지역단위별 자원봉사 운영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재해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직접 재해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한다는 결과를 통해 지역 단위로, 재해지역의 욕구에 맞는 재해구호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전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교육 및 관리를 제공하기 보다는 현재 자원봉사 사업을 수행중인 지역 기관들이 질 높은 재해구호 자원봉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재해구호자원봉사자들의 모집이나 교육, 사후 관리 등의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특별 기술 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재해 발생 직후 초기에 필요한 활동들에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재해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위해 전문자원봉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재해 후에도 장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전 단계, 재해발생시의 반응 단계, 재해 복구 단계 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준비나 실제 봉사활동과 관련된 계획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재해구호 자원봉사 후에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줄 수 있는 심리적인 지지 등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재해구호자원봉사자들의 모집 및 홍보방법에 대한 고민이 중요할 것이라 보여진다. 조사 결과에서 재해구호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참여형태는 개인차원, 소모임 형태의 참여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원봉사를 하게 된 참여경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거나 친구 및 가족,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권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며, 개인이나 그룹형태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인한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재해구호 자원봉사 운영에 있어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조직으로서의 역할 정립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수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중앙조직으로서 지역의 자원봉사 기관들이 재해구호 자원봉사 조직으로서 강화되기 위한 지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할 자원봉사 운영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욕구로 높게 나타난 교통지원, 장비제공 등의 지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도 중요하게 제기되며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자원봉사자들의 인정, 보상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3. 관련기관 분석

효율적 재해구호활동 전략 및 실천방안 모색

1) 촛불재단(Point of light foundation)²⁾

(1) 기관의 설립배경 및 비전과 미션

가. 기관의 설립배경

촛불 재단은 미국 전역에 있는 민간 봉사 단체들을 회원 단체로 하여, 운영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민간 기구로서, 1990년 제정된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에 따라 창립되었다.

촛불 재단은 세법상 501(c)(3)에 해당하는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이며 비영리적인

2) <http://www.pointsoflight.org>

단체로서, 1989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역사회 봉사를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자 개발한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발족된 기관으로서, 그 전략들은 다음 세 단계(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①모든 미국인과 미국 가정, 기업, 학교, 종교기관, 노동조합, 단체와 클럽 등이 사회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여 문제해결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호소하고, ②성공적이고 유망한 지역사회 프로젝트와 시도들이 확인되고 확대 증식되며, 그래서 그들의 성공이야기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전국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며, ③다른 사람에게 빛과 같이 도움을 주는 ‘촛불(Point of Light)’ 리더들을 발견하고 격려하며 개발하여 봉사하는 삶의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모든 미국인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다.

나. 기관의 비전과 미션

촛불재단은 1991년 전국자원봉사센터(The National Volunteer Center)와 통합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 체계화, 연구, 개발,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기관의 설립 비전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을 돕는 자원봉사 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에 두고 있으며, 그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명으로써 다음과 같은 미션을 두고 있다.

① 옹호(advocacy)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지역사회 서비스에, 모든 사람들과 조직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과 자원봉사 및 서비스와 관련된 공공정책을 공유하는 것이다.

② 지역사회 동원(community mobilization)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생산적으로 지속적인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인도, 배치, 유지하도록 지역조직들의 가능성을 구축하는 것이다.

③ 지식리더십(knowledge leadership)

개인과 조직, 기업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자원봉사자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실천과 행동을 증진시키는 정보들을 발전, 체계화,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촛불 재단은 350여 개의 지역 자원봉사센터들과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비영리부문의 전국적인 단체로

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수많은 기업 파트너들, 민간단체들, 정부 그룹들과 전세계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다.

(2) 조직의 업무영역 및 역할

촛불재단은 자원봉사가 초점이며 회원과 이해관계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 기업, 재단, 정부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심 있는 개인과 일반대중이다. 재단은 미션에 충실하게 운영되며 프로그램과 활동의 결과가 미션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업무 및 조직을 3개의 전략적 영역-대변과 공중인식(Advocacy & Public Awareness), 모델 프로그램과 지식개발(Model Programs & Knowledge Development), 인프라 개발과 전달체계(Infrastructure Development & Delivery Systems)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그 외의 조직으로 인사를 담당하는 회장실과 운영과 법적 책임을 가지는 이사회가 있다. 이사회는 청소년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언론, 대학, 종교기관, 민간단체, 자원봉사센터 및 기업 지도자들 34명(임기 3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주요사업 및 대표프로그램

촛불 재단의 주요사업은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 체계화, 연구, 개발, 지원 등의 역할을 위해 크게 8개 분야의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고취 사업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대표적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의 공로를 인정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개인, 그룹, 가족, 기업 당사자 및 그 프로그램들을 자원봉사 공로자로 선정하여 발표, 수상한다.

창립 당시부터 ‘오늘의 촛불(Daily Points of Light award)’을 매주 선정하여 수여하고 있으며, 매년 우수기업 자원봉사단을 대상으로 ‘일터에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The award for excellence in workplace volunteer program)상과 가족 자원봉사상(National family volunteer award)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4월 하순 자원봉사주간에 지역사회 개인, 가족, 노조, 기업, NGO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통령

표창선발 및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상(The president's community volunteer award), 지역사회 자원봉사 서비스상(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를 선정하여,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수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을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재단인 촛불재단은 정부 등 공식적인 영역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옹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나. 자원봉사활동 지원 강화 사업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TV 및 라디오, 잡지나 신문 등의 미디어의 적극적으로 활용에 초점을 두는 사업을 하고 있다.

다. 자원봉사 지부와의 효과성(effectiveness) 증대사업

촛불재단은 지역에 기반한 425개의 자원봉사 지부들과의 네트워크 회의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지원 기회를 연계하고,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가능성을 구축하고, 자원봉사를 증진하여 당면한 지역욕구를 우선시하여 자원봉사가 수행되도록 한다. 이러한 자원봉사 네트워크(Volunteer center national network council)는 지역의 자원봉사 센터와 촛불재단을 연결하는 공식적인 루트가 되고 있다.

또한 촛불재단은 아동청소년 및 가족들을 더 효과적으로 자원봉사에 결합시키기 위해 2003년 'The foundation's youth&family outreach unit'을 발족시켰으며, 이를 통해 가족과 아동청소년들에게 더욱 다양한 자원봉사 서비스와 프로그램,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Service learning Impacting citizenship, 어린이 자원봉사 동아리(kids care club), 프루덴셜 청소년 리더쉽 학교운영, International youth hall of fame, 자원봉사 의 날(National volunteer day) 개최 등이 있다.

라. 자원봉사활동 시스템 지원 제공사업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기술적인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매월 3만 5,000명의 활동문의를 받는 1-800-VOLUNTEER 웹사이트 (1-800-volunteer.org)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센터-재단을 연계하는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MissionFish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포털 및 웹사이트사와 계약하여 인터넷 유저들이 사이트에서 직접 비영리단체에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가면서 재정 및 기술, 자원을 지원받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켈로그 재단이 지원하는 가족자원봉사 캠페인 및 프로그램 보급이 있다.

마. 지속적 자원봉사

연간 시즌별로 다양한 활동을 배치, 구성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시즌별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4월은 자원봉사주간으로 선정하고, 11월은 가족자원봉사자의 날, 10월에는 자원봉사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한다. 또한 장애인들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국제자원봉사를 지원한다.

바. 효과적인 협력관계 및 모델 구축사업

① 미국연결하기(Connect America) 운동을 실시

100여개가 넘는 다양한 비정부기관, 기업, 종교단체, 지방정부와 연계를 통해 지역이슈에 효과적인 해결책 제시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미국연결하기(Connect America)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② 가족기능 강화 및 이웃활용(transformation)

2000년부터 가족기능강화와 이웃활용을 골자로 한 'Neighboring model'을 개발하여 특히 저소득 지역에서의, 저소득지역 주민들에 의한, 저소득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③ 신뢰기반 협력관계 구축

자원봉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뢰기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공식적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설과 기업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현재 200개 기업회원 및 100여개 기업자원봉사 지역협의회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④ 50+Volunteering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자 및 50세 이상 노인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RSVP)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실시하는 자원봉사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⑤ EITC 사업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정에 대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사.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사업

촛불재단은 매년 지역 자원봉사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회의에는 수천 명의 다양한 전문직들, 기관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참여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다양한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잡지 「Leadership」 발간 전문서적과 사례집 발간 및 주문판매, 전문가의 자문과 훈련제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 연구조사사업

촛불재단은 각 대학들과 연계를 갖고 연구 조사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자원봉사 관련 계획 및 연구, 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4) 재해지역 지원 프로그램

가. 자원봉사 센터 지원

재해구호와 관련하여 지역 및 전국협력기관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대처 계획 적용과 발달을 도모하는 자원봉사 센터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 연계망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을 코디네이팅 함으로써 재해피해주민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 9월에는 Volunteer Center National Network와 함께 재해 복구와 예방을 위한 구축을 위해 32개 센터에 약 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교부하였으며, 이 지원은 Universal Peace Federation (UPF)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나. 재해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활동

또한 촛불재단은 2002년에는 NVOAD, FEMA 등의 전국의 재해관련 기관들과

함께, 재난시 적절하고 효과적인 자원봉사 배치를 위한 역량강화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공동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특히 자원봉사센터전국네트워크(Volunteer Center National Network)와 함께 재난시 연계망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부조직으로서 NVOAD Volunteer management steering committee에 소속되어 공동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①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촛불재단은 Volunteer Center National Network와 함께 재해시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 자원봉사자 연계 및 등록을 지원하는 웹사이트(HelpinDisaster.org)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재해 복구 노력을 위한 필요한 숙련된 자원 봉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역량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도움내용에 대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이 재해시 집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재해지역에서 요구되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내용, 피해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② National Service Disaster Training 서비스 제공

촛불재단은 Volunteer Center National Network와 함께 국가 및 지역 서비스제공 단위들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시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③ 청소년 대응 교육 프로젝트 실시

촛불재단은 Volunteer Center National Network와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해시 건강, 안전, 보안 계획들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Ready to Respond program)’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실시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10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service-learning projects를 적용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④ Challenge Grant program

국토안전부와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촛불재단과 Volunteer Center National Network는 14개 자원봉사 센터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효과적인 자원봉사 관리를 통해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센터들의 역량을 강화, 증진하는 것으로써, 비영리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한 설립된 Challenge Grant program을 통해 펀드를 교부받는다.

2) NVOAD (National Volunteer Organization Active in Disaster) 및 COAD(Communit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

미국의 민간재난관리 및 구호체계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민간부문은 서로 다른 목적과 이해관계를 다양한 자원봉사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다양한 기관들의 재해구호활동은 필연적으로 협력과 조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NVOAD와 COAD를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AD의 설립배경 및 비전과 미션, 조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NVOAD (National Volunteer Organization Active in Disaster)³⁾

(1) 기관의 설립배경 및 비전과 미션

가. 기관의 설립배경

미국의 재해분야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움직임에 앞서 민간부문의 재해구호활동 참여기관들 사이에서도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196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1970년 7월 미국 적십자사의 책임자였던 W. D. Dibrell의 주된 노력 하에 7개 민간자원봉사기관의 책임자들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모여 NVOAD를 결성하였다. 결성당시 NVOAD 조직의 성격은 반드시 순수한 자발 조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이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비법인 형태로 출발하였다. 이후 전국의 회원기관의 가입이 계속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역할수행 및 원활한 모금활동을 위해 1994년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의 성격을 전환하게 되었다. NVOAD가 결성된 후 여러 주에서 해당 주의 재해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조정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로서 NVOAD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 차원의 VOAD의 필요성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3) <http://www.nvoad.org>

나. 기관의 비전과 미션

비영리법인인 NVOAD는 의사소통, 조정, 협력, 협조, 중재, 회합주선 및 아웃리치를 통해서 재해피해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조직의 업무영역 및 역할

NVOAD는 재해구호를 위한 자원봉사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참여 기관들간에 협력관계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 NVOAD는 재해구호를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협력, 조정, 의사소통, 교육, 중재, 회합주선 및 아웃리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다양한 간접적인 지원 서비스를 회원기관에게 제공하는 협의체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서로 다른 목적과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자원봉사 기관들이 VOAD의 회원으로서 재해구호활동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VOAD에 대한 회원기관의 헌신 또는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VOAD 회원들간의 결속이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가는 중요하다. VOAD 회원들의 결속은 회원기관들 간에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질 때에만 개별 기관들의 재해구호활동이 가장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VOAD회원이 됨으로써 NVOAD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NVOAD는 VOAD를 위해서 경험, 지식, 정보,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연구결과 등의 자원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개별 기관들이 쉽게 얻기 힘든 귀중한 자원이다.

이러한 역할과 함께 NVOAD는 재해구호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재해피해주민들의 미충족 욕구조사'등과 같은 연구 및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COAD(Communit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

(1) 기관의 설립배경 및 비전과 미션

가. 기관의 설립배경

COAD는 1993년 미국의 중서부지역 수해로 인한 희생자들의 복구와 회복을 위

한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나타냄으로서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관의 대표자들에 의해 지역별로 설립되었다. COAD는 NVOAD(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s)와 VOAD(State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s)의 자발적 회원기관으로 이들로부터 정보나 훈련 등의 지원을 받고 지역사회의 리더쉽과 지역사회 그룹들을 포함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재해구호의 주요역할자(key player)로서 활동해왔다.

NVOAD는 가능한 한 많은 VOAD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국차원의 재해구호활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즉 VOAD는 해당 주의 회원기관 및 민간자원봉사기관에 대해서 VOAD와 같은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NVOAD의 회원 VOAD는 NVOAD와의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서 해당 VOAD가 NVOAD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재해구호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에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 기관의 비전과 미션

COAD는 지역사회와 주민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재해에 되어 교육되어지고 계획되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인 재해구호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회원조직들에 의해 파트너쉽을 통한 총체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재해구호 계획을 원조하는 것이다. COAD는 지역의 독특한 욕구와 강점, 자원을 확인하고 준비하여 지역사회 기관이 자발적으로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빠르게 재해복구에 대처하는 것에 비전을 두고 있으며, Cooperation, Communication, Coordination, Collaboration(4C)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간서비스, 주거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발전 문제들을 통합시스템으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공적이고 사적인 자원들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COAD는 재해로부터의 완화, 준비, 반응, 회복의 4단계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재해시에 인간 고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한다.

(2) 조직의 업무영역 및 역할

가. COAD의 조직

COAD는 재난관리의 어떤 면에서라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재해서비스 기관, 재난 관리기관, 자원봉사관리센터, 사적 혹은 비영리 조직 등이 포함된다. COAD는 공통된 목표에 의해 모든 참여기관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재해구호활동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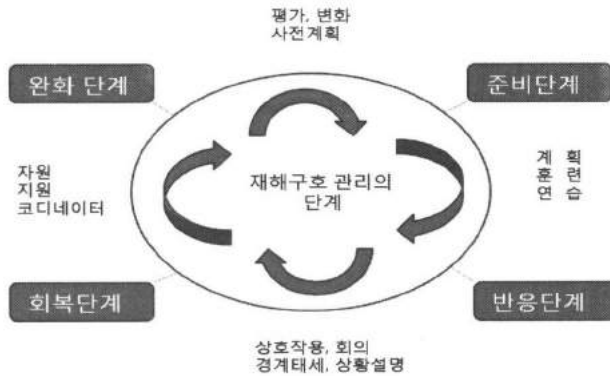
나. COAD의 목적

COAD는 재해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직면할 때, 지역사회의 욕구에 대처하고 긴급한 재해구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아래의 목적을 채택하여 활동하게 된다.

첫째, 재해관리와 관련하여 주민, 자원봉사자, 관련 기관들을 중재하는 그룹으로서 기관간의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모든 관련 기관들이 COAD에 등록하게 되고 재해관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만남을 갖는다. 둘째, COAD 혹은 하위그룹은 재해 이후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따라 즉각적인 기능을 시작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참여자들은 재해관리 과정에 익숙해져야 하고 훈련되어야 하며, 활동 배치를 위한 시스템을 통해 함께 공유되어지고 발전되어야 한다. 모든 참여자들은 재해피해주민을 위한 서비스 전달 순서를 이해해야 한다. 셋째, 재해관리에 적합한 모든 기관들은 재해시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적합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기관들이 효과적인 자원봉사 관리를 위한 훈련과 배치, 수퍼비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스트레스, 안전, 책임 등에 관심을 갖고 훈련되어진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필요한 인식이나 기술 등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한다. 넷째, 재해사건에서 공급품과 기증품(기부) 종류의 수령과 분배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그 계획은 미디어와 모든 기관의 욕구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조정하고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각각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에 분배되는가를 결정한다. 다섯째, COAD 멤버들은 긴급재난상황과 관련된 관리 이슈를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훈련을 받는다.

(3) 주요사업 및 대표프로그램

COAD는 재해에 대한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추어 지역재해관리 계획, 지역사회 재해교육, 지역사회 위험분석, 재해에 대피하기 위한 훈련, 연습, 그리고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관리, 지역사회 전체의 주민들에게 총체적인 재해의 인식을 가져오기 위한 전문적 기술을 사용한다. 또한 재해관리의 완화, 준비, 대응, 그리고 복구단계의 네 단계에서 적합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10] COAD 재해관리 파트너십 계획의 사이클

가. 완화단계 (Mitigation)

완화단계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위험감소 계획을 집행하며,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해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재해 촉진 요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재해요인이 가급적 표출되지 않도록 억제 또는 예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COAD의 활동은 예방활동이 중심이 된다. 즉 지역사회의 위험확인, 재해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날씨 인식 주간과 같은 특별한 예방 이벤트 참여, 지역사회 재해 교육 실시, 지역사회에서의 예방 효과 모니터링과 같은 활동을 실시한다. 이러한 완화단계는 장기적이고 보다 일반적인 재해감소 문제를 다루는 활동이기 때문에, 주로 지역사회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나. 준비단계(Preparedness)

준비단계는 재해발생시의 재해 대응정책을 위한 운영능력을 개발시키려는 활동들로서 재해로 인한 긴급상황에 대한 준비 자세를 향상시키고 작전상의 능력을 확장시키거나 발전시키는 활동들을 말한다. COAD의 활동들로는 기관과 개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지역사회 재난계획에 참여, 재해시 지원 가능한 기관과 서비스들의 자원 확보, 재난관리 기관들 간의 상호협동 등이 이루어진다. 재해를 예방하고 경감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해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준비단계에서는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가급적 정확히 예상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원활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다. 반응단계 (Response)

반응단계는 실제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관리기관들이 수행하여야 할 각종 임무 및 기능을 적용하는 활동과정이다. 반응단계는 완화단계와 준비단계의 활동들과 상호 연계함으로서 재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복구단계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는 재해관리의 실제 활동 국면을 의미한다. 따라서 즉각적인 사전준비로 목숨을 구하고 부상을 최소화 시키고, 재산손실을 줄이며 회복의 효과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긴급 상황 후의 즉각적인 직접적인 활동들이 포함된다.

반응단계에서는 조직측면에서 재해관리기관간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중심 장소로서의 재해운영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피해주민과 관리인력, 자원봉사자들이 일상적인 재난대응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재해 대응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상황관리에 초점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OAD의 활동은 재해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원조와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자들의 직접 서비스제공에 대한 코디네이터 및 관리가 주요 활동이 된다. 반응단계는 재해 직전과 재해 중 그리고 그 직후에 취해지는 응급활동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응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예방활동과 준비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라. 복구단계 (Recovery)

복구단계는 재해가 발생한 후부터 피해지역이 재해발생 이전으로 더욱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재해피해 지역

의 주민을 비롯한 모든 지역공동체가 재해이전의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체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재난으로 인한 희생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단기적, 임시적 응급복구와 장기적 원상복구를 행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COAD의 활동들로는 재해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확인하고 복구와 관계되는 직접서비스와 자원 지원, 복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관리, 재해피해주민들을 위한 옹호활동 등이 복구 활동에 포함된다.

(4) 재해지원 프로그램

재해재난 대처시의 COAD를 통한 활동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멤버 조직들간의 강화를 최대화 하여 지역사회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 긴급상황시에 효과적으로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재해관련 기관들과의 상호작용이 증대될 수 있는데 지역사회와 정부기관 사이의 관계가 강화되고 재해에 장기간 대처하기 위한 자원들을 조직화 하며, NVOAD와 긴밀한 연계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재해구호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관이나 자원봉사자들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창출, 자원봉사자 훈련, 재해관련 교육, 준비 등을 통해 재해에 저항력을 갖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⁴⁾

(1) 기관의 설립배경 및 비전과 미션

가. 기관의 설립배경

우리나라 공동모금은 6·25전쟁 이후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모든 기반시설과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관주도로 시작되었으나, 모금활동이 산발적으로 증가하자

4) <http://www.chest.or.kr>

1951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하고 자선기금모금규제를 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재정을 위한 모금행위가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민간단체를 내세워 사회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공동모금제도를 시행하였는데, 1970년 1월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공동모금회의 설립을 규정하였고, 1971년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목적은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모금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경제적·의식적 수준이 성숙되지 못했고, 사업진행체제의 미비, 대중매체와 사회단체의 비협조, 전문가 부족 등의 이유로 실패하였고, 관주도의 불우이웃돕기모금활동은 꾸준히 전개되었다. 정부는 1980년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하고 이웃돕기성금, 장애인성금, 불우아동결연후원금 등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통합하여 보건사회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한국사회복지협회의 주관아래 기존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모금활동으로 조금씩 이양시키고자 하였지만, 민간단체의 기금이 정부에 의해 쓰인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1997년 3월 이웃돕기성금적립금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다. 그리하여 제도적으로 중앙공동모금회와 지역공동모금회가 모금과 배분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동모금 배분 대상과 민간공동모금회의 자율성이 제한되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으로 공동모금회의 적극적 활동과 전문성이 제약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1999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었다.

나. 기관의 비전과 미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 11월에 설립된 모금단체이며 서로 나누고 돕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개발,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 비전은 '나눔으로 함께 사는 사회'로써, 자발적 기부문화 정착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변화를 추구한다.

(2) 조직의 업무영역 및 역할

가. 조직구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구조는 다음 [그림 11]과 같이 이루어졌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7). 사무총장 이하 기획관리본부와 사업본부가 있으며 기획관리본부에서의 경영기획팀에서는 전략, 제도, 사업계획/예산, 전산을 하고, 총무회계팀에서는 총무, 회계, 인사, 구매, 회관관리를 하고 있다. 홍보팀에서는 홍보사업, 나눔문화관 운영을 하고, 나눔정보연구센터는 조사, 연구, 평가, 정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본부의 사업기획팀은 사업 기획,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자원개발팀에서는 일반 모금사업, 현물 기부사업, 배분팀에서는 일반 배분사업, 사회공헌협력팀은 지정기탁 배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 외부감사 수감을 하고 있다.



[그림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

나. 기관의 예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모금을 중심으로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마다 모금액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연도별 모금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모금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유형별 모금액은 여전히 일반기부가 많은 부분을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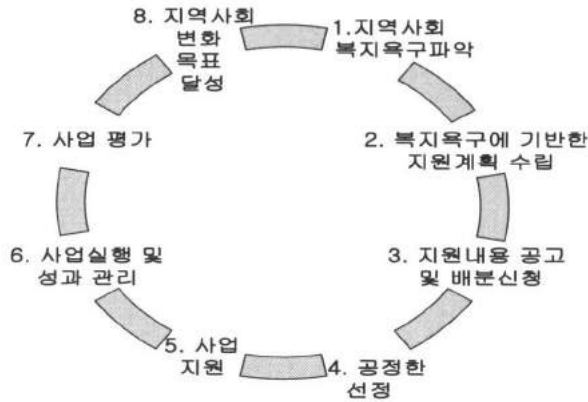
지하고 있고,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 최근 지정기탁과 물품 기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의 경우 일반기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회의 경우는 지정기탁과 물품기탁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기부자별 모금은 전국적으로 볼 때, 개인 및 기타는 최근 조금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체의 모금이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종교나 공공/산하기관도 모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회의 경우, 중앙은 기업체 모금이 8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회의 경우는 공공/산하 기관의 모금은 저조해도 개인 및 기타,업체, 사회/종교기관의 모금이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 2007).

(3) 주요사업 및 대표프로그램

가. 사업진행과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다음 [그림 12]와 같은 사업진행과정을 수행하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간보고서, 2007). 이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기관과 개인에게 투명하게 전달되는 절차로서 활용된다.

1단계로 지역사회복지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 현장 조사와 복지 지표 연구, 시민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한다. 2번째 단계는 복지욕구에 기반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3번째로는 지원내용 공모 및 배분신청이다. 이는 모금 종료 후 결과에 따라 지원결정액을 조정하고, 지원사업을 공모하며, 사업 신청 접수 및 심사를 받는 단계이다. 4단계는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인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배분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기관을 선정한다. 5단계는 사업지원이다. 이는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사업성과 및 책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6단계는 사업 실행 및 성과관리이다. 기관에서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전문인으로 구성된 사업지원단은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실제적인 어려움을 나누고, 사업 성과를 관리한다. 7단계는 사업 평가인데 사업을 평가하고, 성과를 측정하며, 더 나은 사업을 위해 의견을 교환한다. 마지막으로 8단계에서는 지역사회 변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림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진행과정

나. 배분과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배분을 받고자 하는 개인과 기관은 배분사업별로 공고된 기일 내에 제출처에 모금회가 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데,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더라도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시설은 개별적으로 배분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이나 정치·종교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동일년도에 시행되는 신청사업, 제안기획사업, 테마기획사업을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배분신청시 배분사업별로 정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배분사업별로 정한 자부담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기준은 사업수행기관의 신뢰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수행 경험, 인력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목적 및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의 적합성, 사업주체에 부합하는 산출 및 성과의 실현가능성 등이며, 심사과정에서는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다. 기관사업 분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사업 분야는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7). 첫째, 아동·청소년복지이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보호와 양육을 위해 가족과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학교사회사업, 청소년자원봉사캠프, 빈곤지역아동 통합서비스, 성학대·폭력가정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교육, 난치병어린이 돕기(희귀병, 소아암 등), 빈곤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 등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노인복지분야이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역사회의 노인인식개선 및 노인역량강화, 전통문화지도사 양성 및 파견, 저소득노인의료비·간병도우미 파견, 노인 일자리 만들기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여성·가족복지 분야로서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주여성 한국문화교육, 가정폭력피해여성 쉼터와 상담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예방 교육, 성매매여성 직업교육 및 생계비 지원, 빈곤여성 자활 및 창업 지원, 보육도우미파견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등이다. 특히, 자활사업에서 다른 분야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였고, 다문화 가족 인식개선 분야로 인해 26개 사회복지기관에서 400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장애인 복지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지원, 장애인 의족 및 특수화 지원, 장애아동 통합교육(교육)센터 지원,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장애청소년 자립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복지로, 주로 농촌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과 복지소외지역을 지원하였다. 생계를 위한 지원이 많았으며, 저소득층 사랑의 집고치기,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월동난방비 지원, 빈곤가구 식비·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농어촌 이동복지관·이동목욕차량 지원, 홈헬퍼 파견, 사회복지사업 교육지원사업, 찾아가는 밥차 등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지원이다. 이는 독거노인, 저소득다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본적인 의료비 및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자립과 자활의 기틀을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복지기관 및 시설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 주민이나 재해지역, 희귀난치병, 이주노동

자, 북한, 에이즈 및 HIV인 쉼터 운영비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해외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에 있어서의 특징으로는 2가지를 볼 수 있다(감운왕, 2007). 첫째, 사업별 배분내역은 지정기탁사업(50%), 기획사업(30.8%), 긴급지원사업(13.1%), 신청사업(6.1%) 순이다. 둘째, 분야별 배분내역은 지역복지(56.6%), 아동, 청소년(14.9%), 장애인(13.2%), 노인(12.3%), 여성(3%) 순이다. 한편, 2009년 예정으로 되어있는 배분사업을 살펴보면, [표 28]과 같이,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으로 나누어 있다.

[표 30] 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구 분	사업내용	지원규모	신청 시기	제출처	
신청사업 (일반사업)	지역복지 증진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사업 내용을 정해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받아 배분하는 사업	· 프로그램사업 2,000만원 이하 · 기능보강사업 1,500만원 이하	2008년 7월	지회	
기획 사업	제안 기획 사업	· 전국사업 : 전국단위의 사회문제 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시범사업을 제안받아 배분하는 사업 (컨소시엄 및 네트워크형 지원사업 포함)	2억원 이하 (사업별 별도지정)	별도 공지	중앙회
		· 지역사업 : 지역단위의 사회문제 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시범사업을 제안받아 배분하는 사업 (컨소시엄 및 네트워크형 지원사업 포함)	1억원 이하 (지역별, 사업별 별도지정)	별도 공지	지회
	테마 기획 사업 (지정 주제 사업)	지역복지 증진,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기획사업으로 모금회에서 주제를 정해 배분하는 사업 취약한 사회복지현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복지사업으로 모금회에서 주제를 정해 배분하는 사업 기초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모금회에서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별도지정	별도 공지	중앙회 / 지회

긴급지원 사업	재해·재난 긴급구호, 저소득층의 긴급한 의료 및 생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배분하는 사업	별도지정	별도 공지	중앙회 / 지회
지정기탁 사업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부자가 지역, 대상, 사용용도 등을 지정한 배분사업	기관은 연5억원 이하, 개인은 연 1억원 이하	수시	중앙회 / 지회

(4) 재해지역 지원 프로그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재해구호란,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긴급지원이란, 재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단체의 의식주를 포함한 의료, 구호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해 관련 지원은 저소득 주민 명절 지원사업과 이동빨래방 지원사업,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개인 긴급 지원 사업 등의 기초생활지원 분과로 볼 수 있다. 2006년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재해 지원사업에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지역에 36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난재해로 인해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상담 등을 지원하였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6년 긴급지원사업 중 호남지역 폭설피해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긴급 생계비 및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지원 내용으로는 폭설피해 재해피해가구, 폭설피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재해피해주민 가구는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한도 내에서 긴급생계비로 지원하였다. 사회복지기관, 시설도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산정하여 사회복지기관, 시설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복구비로 지원하였다.

신청 및 지원은 수시로 중앙회 및 지회에서 받았으며 신청자가 긴급지원신청서를 제출·접수하면, 배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내용이 조정 및 승인이 된 후, 지원결정 및 통보, 지원금 입금이 이루어졌다. 기관은 사업종료 후 결과 보고를 해야했는데, 신청단체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결과보고를 실시하였다.

4) 대한적십자사 5)

(1) 기관의 설립배경 및 비전과 미션

가. 기관의 설립배경

적십자의 창시자인 장 앙리 뒤낭이 상병자를 구호하기 위한 헌신적이고 자격있는 자원 봉사구호단체를 각 국에 설치할 것과 이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인 조약 체결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시절인 1903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고종황제 칙령47호로 대한적십자사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가 탄생하였다. 독립 후인 1949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공포됨으로서 오늘날의 대한적십자사가 설립되었다.

나. 기관의 비전과 미션

대한적십자사의 기본원칙은 7가지로 볼 수 있다(염병진, 2004). 첫 번째는 인도적 원칙이다. 이는 국제적십자운동이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 없이 도우는 의도에서 탄생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고난을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십자는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존중을 보장하여 모든 국민간의 상호이해, 우의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킨다. 둘째, 공평으로 적십자는 국적, 인종, 종교, 계급 또는 정치적 견해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하며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위급한 재난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중립으로 적십자는 모든 사람의 신뢰를 끊임없이 받기 위해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정치, 인종, 종교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넷째는 독립으로 적십자는 그 나라 정부의 인도주의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국내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자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봉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자발적 구호운동이다. 여섯째, 단일로 한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만 존재하여 그 나라 영토 전역에 걸쳐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야

5) <http://www.redcros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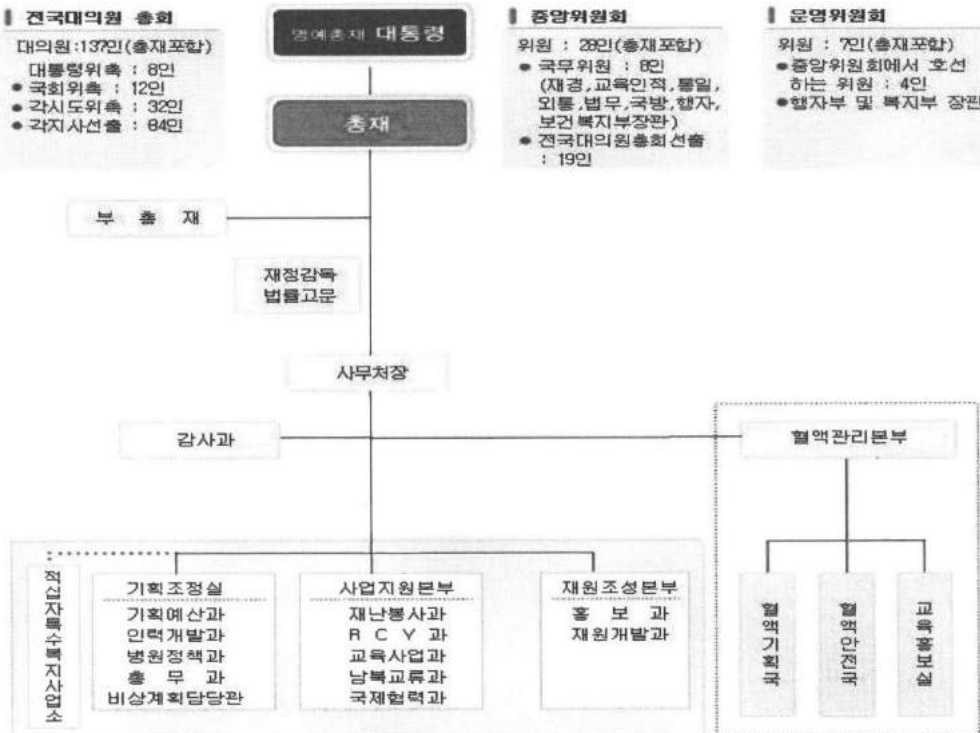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십자운동은 범세계적이며 그 안에서 모든 적십자사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서로 돕는데 있어서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대한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입각한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

(2) 조직의 업무영역 및 역할

가. 조직

대한적십자사는 의결기관으로 임원으로는 총재, 부총재, 개정감독, 법률고문이 있다. 그리고 [그림 13]과 같이 3개의 부서가 있는데, 기획조정실, 사업지원본부, 자원조성본부가 있다. 여기서 사업지원본부 중 재난봉사과가 있다. 그리고 본사 외에 14개의 지사와 2개의 적십자회관 등 45개 기관이 있다.



[그림 13] 대한적십자사 조직

나. 예산

대한적십자사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모금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22조에 의해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다(염병진, 2004). 그러나 국가의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산하기관이라는 인식이 커져(염병진, 2004), 전국민이 많이 내는 적십자회비에 재원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대한적십자사, 200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개요). 특히, 지사의 세입예산을 보면, 회비수입이 크며, 기부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적은 편이다.

(3) 주요사업 및 대표프로그램

가. 기관 사업 분야

대한적십자사의 분야는 7가지이다. 첫째,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희생자 구호사업이다. 둘째, 전시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이다. 셋째, 수재, 화재, 기아, 악질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이다. 넷째, 의료사업,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연맹 관련 교육사업, 기타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이다. 다섯째, 적십자가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이다. 여섯째, 적십자가 사업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로 적십자가가 관련한 사업이라고 하였다(대한적십자사, 1998).

나. 재해구호 관련 사업

① 조직구성

재해발생시 대한적십자사는 전문재해구호기관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존중이라는 취지하에 식량, 침구, 의류, 취사도구, 기타 생필품의 제공과 재해피해주민 수용보호, 급식, 응급처치, 의료지원, 아동복지 등의 종합적 구호활동을 하고 있다(성기환, 2006). 특히, 전문봉사원을 포함해서 7만여명의 적십자 자원봉사단원과 16만명의 청소년적십자단원을 보유하고 있어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이

들이 적십자사직원과 함께 재난구호봉사단으로 편성되어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는 1개의 중앙조직과 전국 14개의 지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을 활동거점으로 하여 청년, 여성, 장년, 노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단위 봉사단이 상시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적십자 자원봉사단은 지역지부의 관리아래 각 시·군·구 지역까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재해발생시에는 해당 지부가 관할하는 지역의 적십자자원봉사단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의 구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에서는 재난봉사과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코디네이터와 지원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 구분은 다음 [표 31]과 같은데(성기환, 2006), 재해시 사무국장은 단장, 구호복지팀장은 부단장을 맡으며, 병원과 혈액원장이 보좌역으로 돕게 된다. 이때 지구협의회장이나 봉사관장인 현장지휘단장이 일임하며, 상황반, 대피수용반, 재난심리상담반, 구호물자반, 자원봉사반이 하위체계로서 편성되어 있다.

②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역의 적십자 자원봉사단에 가입 후 소정의 교육을 거쳐 지역단위 봉사단원으로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재해시에는 이러한 지역단위 조직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구호 자원봉사를 펼치거나, 타지역에서 발생한 재해지역에 조직적으로 파견되어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재해시 재해구호 자원봉사단은 상황반, 대피수용반, 구호물자반, 자원봉사반, 재난심리상담반으로 조직구성을 갖추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분담은 각 지역 단위봉사단마다 미리 구성되어져 있어, 긴급을 요하는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모든 활동은 지역단위 봉사단이 주체가 되어 자체적으로 활동하며, 따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무국에서는 일정 조정, 물품지원 등의 전체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일반적인 지역단위 자원봉사단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무선동호회(HAM) 자원봉사단이나 긴급인명구조봉사단과 같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문봉사단이 조직되어 전국 지역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중앙차원에서는 최근에는 한국심리학회와 협약을 맺고 재난심리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표 31]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봉사단 조직

구분	임무
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구호 현장업무의 총괄 지휘, 통제
부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구호봉사단 운영계획 수립 재난현장 상황에 따른 구호대책 강구
보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의료, 보건 및 혈액수급 등에 관한 지원
현장지휘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 협력 모색 및 각반 지휘, 통제
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현장 피해조사, 상황 판단 및 각반 업무조정 지사 긴급재난구호대책 본부에 재난상황 보고 재난구호 활동 기록, 확인 및 구호비용 조치 유관기관 협조 재난구호활동 취재 및 언론기관 홍보협조 재난현장 사진, 비디오 촬영 및 보존
대피수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피해주민, 구호요원 등 재난 현장 무료 급식 및 세탁 재해피해주민 등록, 관리 및 가족찾기 지원 집단 대피소 관리 및 탁아소 운영
재난심리상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현장 응급의료요원 배치 및 지원 재해피해주민 심리적 지원
구호물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호장비, 소모품 등 현장 소모물자 조달 및 관리 재난의연금품 접수, 관리 및 지급 재난 구호품 전달 및 관리 긴급 구호물품 수송 지원
자원봉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구호 자원봉사활동 안내 및 상담 재난현장 구호요원(직원, 전문봉사원) 배치 재난현장 봉사원 모집, 등록, 교육, 배치 및 관리 부족인력 지원 민간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연계인력 관리

대한적십자사는 이러한 봉사활동에 대해 별다른 보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자원봉사의 무보수성에 근거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교육후 수료증 발급을 통해 교육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봉사활동에 대해 일정 기한별로 봉사시간을 인정하고 포상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자원봉사교육

대한적십자사는 지역단위 봉사단에 가입한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필

요한 기초지식 습득과 도움을 위한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지역단위별로 연 2~3회의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에서 연 1회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의 봉사자는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봉사회에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치고 봉사원 서약을 한다(정혜숙, 2002). 그리고 봉사자들이 그 활동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단계별 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비교육, 기본교육, 보수교육, 간부교육, 총무연수로 나눌 수 있다. 기본교육의 경우 적십자의 이념이나 역사, 봉사자의 자세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3시간가량의 교육을 받지만, 보수교육은 수료 후 2년 이상 된 일반회원의 소명의식과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2박3일간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적십자 구호 사업 중 재해구호 지침을 1시간 이상 교육을 한다. 전문교육의 경우도 재해구호 원칙 외 9개 과목을 구호요원교육으로 30시간 가량 교육한다(정혜숙, 2002). 이러한 교육 후 대한적십자사 총재명의로 된 수료증을 발급한다.

(4) 재해지역 지원 프로그램

대한적십자사의 재해관련 사업으로는 2007년 발생한 제주 태풍 '나리' 피해 지원이 대표적이다. 구호기간은 2007년 9월 15일에서 30일로 1,497가구의 3,118명에게 3가지 주요 지원을 하였다.

우선 구호물품 지원 사업이다. 재해지역에 긴급구호품세트와 응급구호물품, 식수, 컵라면, 쌀, 운동복, 수건 등을 지원하였는데 이중 긴급구호물품은 대규모 재해 피해주민 발생시 피해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임시구호품이며, 응급구호품은 대규모 재해시 대피시설 거주 재해피해주민 등 응급구호 상황에서 세대단위로 지급하는 구호품이다(대한적십자사, 2006).

두 번째로는 급식지원 사업이다. 재해 초기에는 급식을 하되 이후에는 피해주민 스스로 취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부식비는 지사에서 우선 지원을 한다.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 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구호품 배부, 급식소 운영 지원, 침수가구 피해 복구활동 지원, 환자수송, 차량견인 등을 실시하였다.

5) 환경운동연합⁶⁾

(1) 설립배경 및 비전과 미션

가. 기관의 설립배경

환경운동연합은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부터 시작하여, 1988년에 '공해반대 시민운동협의회'와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가 통합되어 발족한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가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최초의 환경운동단체이다. 특히,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피해자 중심의 반공해운동에서 시민으로 폭을 넓힌 환경운동으로, 지역에 국한된 활동에서 전국적 연대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을 추구하기 위한 연합체를 결성하게 되었다. 1993년 4월 2일 공추련 등 전국 8개의 환경단체(서울 공해추방운동연합, 부산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진주 남강을지키는시민의모임, 광주 환경운동시민연합, 대구 공해추방운동협의회, 울산 공해추방운동연합, 마산·창원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목포녹색연구회)들이 통합되어 전국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환경연합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현장성, 대중성, 전문성에 기반하여 국내 최대의 환경단체를 넘어 아시아 최대의 환경단체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의 주요 역할로 1990년대 지리산·점봉산·덕유산 보호, 시화호 살리기, 동강 살리기, 가야산 골프장 저지, 핵폐기장 강행 저지, 새만금 살리기, 서남해안 습지 보전, 비무장지대 보호, 팔당상수원 보호, 낙동강살리기, 시민 대기 조사, 대만 핵폐기물 반대 등이 있다. 국제연대에서는 핵물질 이용 반대, 고래 보호, 기후변화 대응 등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2002년 세계에서 가장 큰 '지구의 벗' 회원단체로 정식 가입하여 「지구의 벗 한국」의 자격으로 국제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 기관의 비전과 미션

환경운동연합의 이념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이 파괴되

6) <http://www.kfem.or.kr>

는 현실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 평화, 참여를 중심 가치로 삼아·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환경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중장기적인 비전과 대안을 수립하고 실현하고자 매진하고 있다.

(2) 조직의 업무영역 및 역할

환경운동연합의 조직은 [그림 14]와 같이 이루어져 있으며, 공동대표 3인 아래 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사무처의 경우 40여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서울지부의 경우 15명가량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담당팀은 시민참여국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이후 신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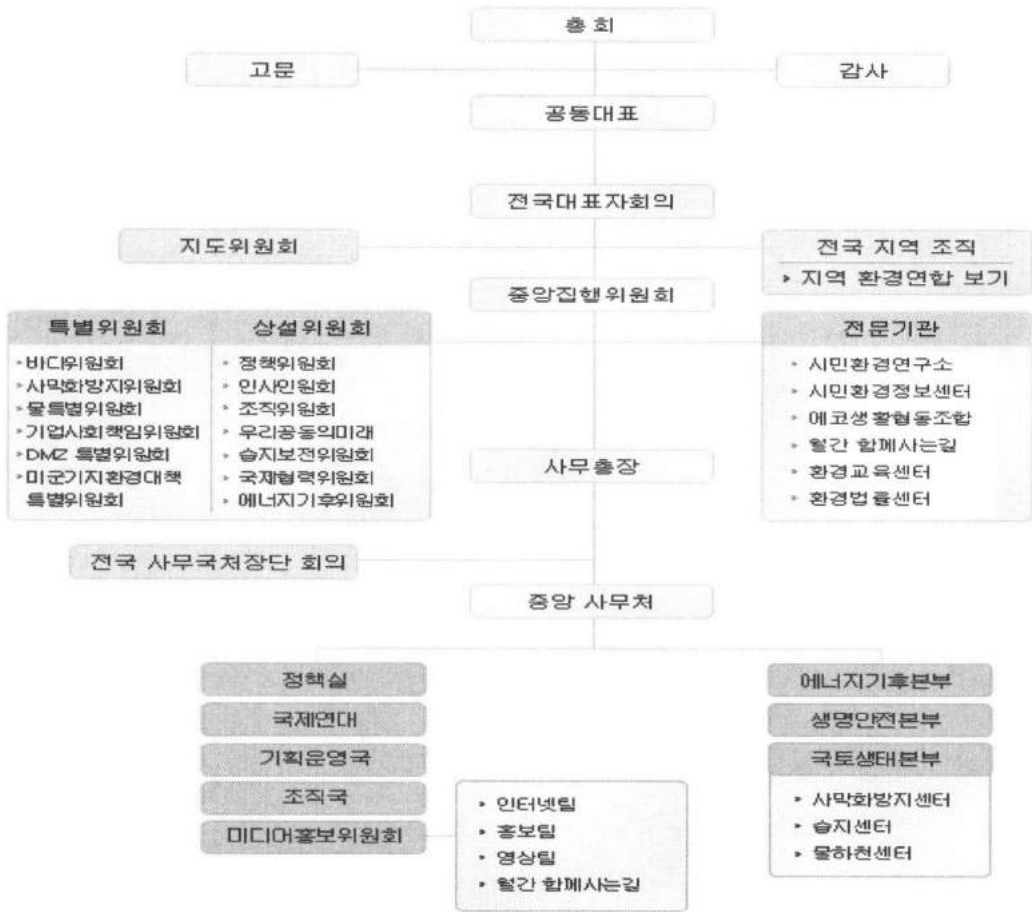
(3) 주요사업 및 대표프로그램

가. 사업진행과정

환경운동연합의 사업 진행과정은 ‘운동’인 만큼 습지/해양, 에너지/기후변화, 생활환경, 물/하천, 국토생태, 기업사회책임, 국제연대, 정책, 환경교육 등에 대해 시민들의 조사, 정책토론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나. 기관사업 분야

-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제시 사업
- 환경피해지역과 지역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
- 환경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 사업
-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 기타 환경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그림 14] 환경운동연합 조직

(3) 주요사업 및 대표프로그램

가. 사업진행과정

환경운동연합의 사업 진행과정은 '운동'인 만큼 습지/해양, 에너지/기후변화, 생활환경, 물/하천, 국토생태, 기업사회책임, 국제연대, 정책, 환경교육 등에 대해 시민들의 조사, 정책토론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나. 기관사업 분야

-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제시 사업
- 환경피해지역과 지역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
- 환경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 사업
-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 기타 환경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4) 재해지역 지원 프로그램

환경운동연합의 자원봉사관리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직접사업뿐이다. 2008년도 11월 현재, 자원봉사관리는 시민참여국 참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주로 환경운동연합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였으며, 보조적으로 봉사활동관련 인터넷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메일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러한 자원봉사에 대한 사전교육은 없으며, 자원봉사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동안 안전교육 등이 직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원봉사 활동업무 또한 사전에 배치되지 않으며 다만 남성이 다소 체력이 건장하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에 한해 식사와 마스크, 방제복 등 장비와 상해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교통비 때문에 자원봉사자들로부터 20,000원을 활동비로 받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자원봉사에 대한 특별한 시상제도는 없으며, 자원봉사시간 등의 확인서는 군이나 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연합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해 초기에는 회당 400~600명이 참여하였던데 비해, 중기에는 30명 미만이 참여하여 등 급격하게 자원봉사인원이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에서는 재해지역인 태안군이나 보령시에서 배 등의 교통비나 식사제공이 끊긴 점과 언론에서 더 이상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에 대해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6) 전국재해구호협회⁷⁾

(1) 기관의 설립배경 및 비전과 미션

가. 기관의 설립배경

1960년대 초 매년 예고 없이 다가오는 태풍과 호우로 국민들의 삶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각 언론사에서는 이러한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의연금품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발생한 대규모 수해를 계기로 각 언론사에서 모집한 의연금품을 통합적으로 관리, 배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 대표와 사회각계단체 대표가 모여 전국수해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구호사업 일원화 발판을 마련하였다. 1964년 전국재해대책협의회로 이름을 변경하여 사회단체로 활동하였고, 2002년 재해구호법의 제정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법정구호기관이 되었다.

나. 기관의 비전과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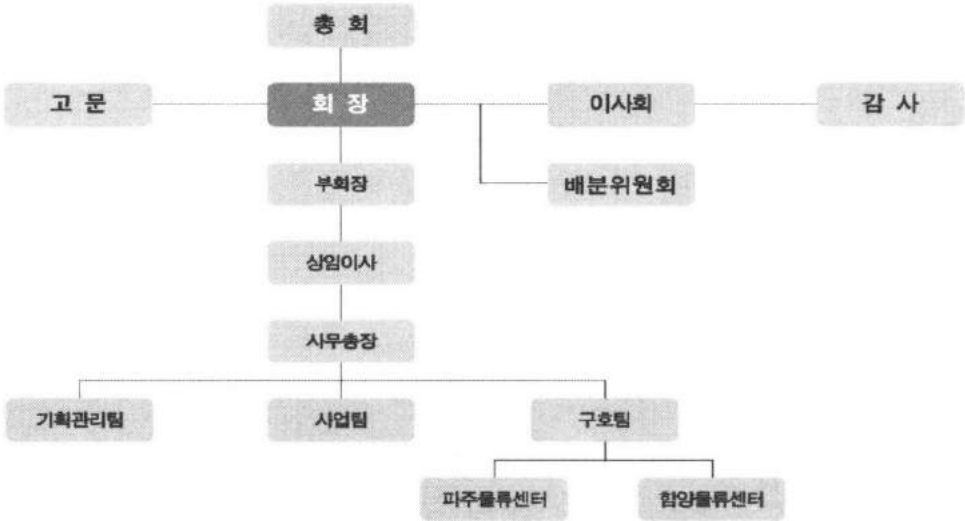
자연재난 발생 시 재해로 인한 피해 주민을 효율적으로 구호하고자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로,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해 의연금품의 모집 및 배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피해지역의 재건을 위한 다양한 구호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직의 업무영역 및 역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조직은 [그림 15]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 실질적으로 재해구호관련 사업은 사무처에서 수행하며, 주요 의결사항은 이사회,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사무처는 기획관리팀, 사업팀, 구호팀으로 3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획관리팀은 정책, 제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대외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팀은 의연금 모금 및 배분, 기부자 관리, 콜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맡고 있다. 구호팀은 자원봉사자 교육·운영 및 의연물품관리, 구호세트 제작 및 물류센터 운영,

7) <http://www.relief.or.kr>

세탁차량 운영, 임시주거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15]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조직

(3) 주요사업 및 대표프로그램

가. 주요 사업 내용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주요사업 분야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재해의연금품의 모집 및 배분사업이다. 이는 재해지역 피해이웃을 돕기 위해 각 언론사(신문·방송 등) 및 인터넷, ARS 등을 통해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피해 규모에 따라 모금액을 정하고 소방방재청의 허가를 받아 모금을 실시하며, 배분은 2007년 9월 새로 개정된 재해구호법에 따라 의연금배분의 중복, 편중, 누락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표 32]의 소방방재청 훈령 제79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10년간 총 5천 7백여억원을 모금했으며, 총 6천억원 이상을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했다(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연보, 2008). 또한 2008년부터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피해주민 개개인의 은행통장으로 직접 성금을 입금하고 있다. 그리고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을 완료하

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내역서, 배분 내역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표 32] 소방방재청 훈령 제79호 의연금의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지 원 액
사망자 및 실종자	인	세대주	10,000천원 이내
		세대원	5,000천원 “
부 상 자	인	세대주	5,000천원 “
		세대원	2,500천원 “
전 파 주 택	세 대		5,000천원 “
반 파 주 택	세 대		2,500천원 “
침 수 주 택	세 대		1,000천원 “
농업·어업·임업 ·염생산업	세 대		1,000천원 “
소 상 공 인	세 대		1,000천원 “

둘째, 구호물품 비축 및 지원 사업이다. 이는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파주와 함양 두 곳의 물류센터에서는 매년 당해 연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량의 구호세트를 제작하여 비축하고 있다. 구호세트는 현재 일시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재가구호세트 등 3종류로 재해발생 전에 각 시·도 및 시·군·구와의 계약을 통해 준비, 보관하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긴급지원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총 28만 세트 이상을 피해 지역에 지원했다.

셋째,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 등 재해구호활동 관련 사업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현장의 복구와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자원봉사교육을 통해 리더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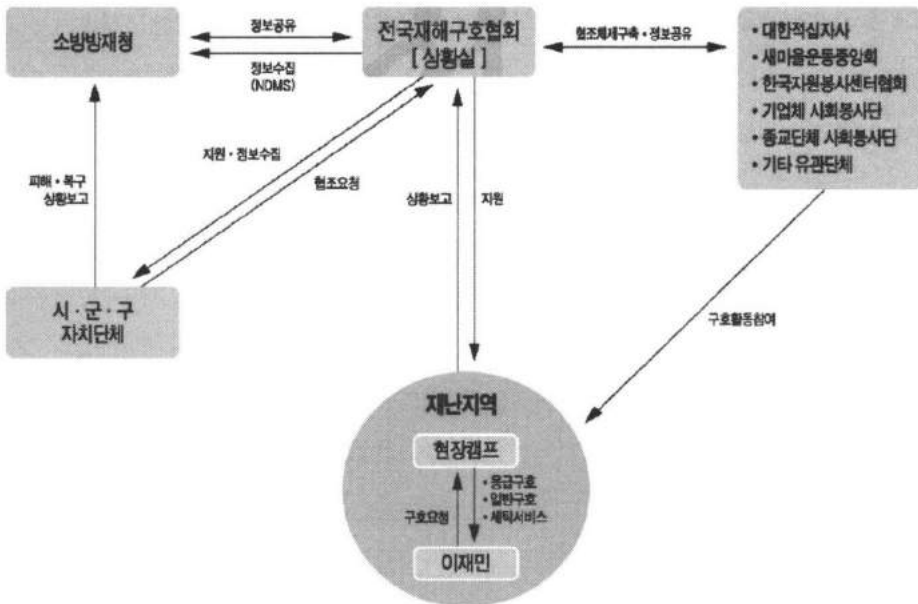
넷째, 재해구호관련 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를 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구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재난관련 전문가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국내 구호활동 개선을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활동 등을 위해 다양한 행사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 재해지역 지원 프로그램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체계는 [그림 16]과 같다. 협회는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지역으로부터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유관단체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구호세트 및 물품 지원, 응급구호 및 피해지역 복구활동, 세탁구호활동을 전개한다. 피해지역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현장에 파견하고 지원하며, 피해주민의 욕구에 맞는 구호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전개한다. 특히 세탁구호활동은 태풍이나 호우 등 수해로 인한 옷가지, 이불빨래 등 다량의 빨래를 세탁차량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고 있다. 또한 재해 현장을 복구하고, 재해지역 피해가구의 청소 등을 돕는 것 외에 재해지역 농경지 복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재해피해 주민 겨울나기 지원사업 및 심리지원 사업 등 응급복구 외에 필요한 다양한 구호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협회의 활동은 주로 인터넷(협회 홈페이지 및 싸이월드, 해피빈 등)⁸⁾을 통해 모집된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재난의 특성 상 사전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참가하는 봉사자의 경우는 현장으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동영상과 안내문을 통해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협회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양성과 전문구호활동을 위해 무지개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지개봉사단은 현장 복구활동에서는 팀리더로 활동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피해지역을 모니터링하여 마을잔치 및 어린이 대상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의 화합과 건강한 마음 만들기를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8) 협회 홈페이지외에 싸이월드 타운홈피(<http://town.cyworld.com/1365>), 해피로그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http://happylog.naver.com/1365>)모집한다.



[그림 16] 전국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활동체계

또한 협회는 재해현장에서 봉사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면서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전문교육, 리더 및 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2003년 이후 2008년까지 총 4,30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했으며, 1,200여명 이상이 자원봉사 관리자 및 리더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2008년에는 재해사진촬영, 재난심리, 재난리더십 등 총 70여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재해구호 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재해구호 자원봉사 교육용 동영상 DVD와 ‘재해와 자원봉사활동’ 매뉴얼을 2003년, 2004년, 2007년 총 3회에 걸쳐 제작·배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한 재해구호활동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재해피해주민 및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에 대상으로 한 조사실시와 분석, 국내외 관련기관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재해피해주민에 대한 분석결과

1) 재해피해주민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재해피해주민의 성별 분포는 남성 35.8%, 여성 64.2%이므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원유유출피해주민 중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 분포는 51세 이상 중장년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해유형별 연령분포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최종학력분포를 고졸 이상 학력자가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전체적으로 기혼자가 비율이 높았다. 조사대상자들의 거주기간은 평균 26.57년이었으며 종교별 분포는 불교, 기독교, 무교 순이었다.

피해주민들의 재해피해 전후의 직업은, 무직자의 경우 피해 전에 비해 피해 후 무직의 비율이 높아져 차이가 다소 있었다. 재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해지역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원유유출 지역의 경우 농축어업이 크게 감소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전체적으로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경제상태평가는 수해피해지역 조사대상자들이 원유유출 피해지역 주민에 비해 경제 상태를 약간 좋게 인식하고 있었다.

2) 재해피해주민의 건강상태

재해피해주민의 건강평가는 비교적 좋지 않은 편이었으며 비교적 스트레스 정도

도 높았다. 이중 원유유출피해주민의 평가가 수해지역에 비해 좋지 않았으며, 스트레스 정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전체 54.2%가 중간정도 이상의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적으로 PTSD에 대한 전문적 진단이 필요하였으며, 특히 원유유출 피해지역 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49.7%가 21점 이상의 '심한 PTSD 증상'으로 나타나, 외상경험 정도가 매우 높았다. 원유유출피해 지역주민의 경우 PTSD가 수해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재해피해주민들이 경험한 신체적 증상은 위장장애 및 소화장애, 두통, 현기증 순이었으며 원유유출피해주민이 수해피해 주민에 비해 더 많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증상은 우울증상과 불안증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우울 증상의 경우, 외로움 및 희망없음, 식욕부진 혹은 과식, 관심(흥미)의 상실 순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항목 총 8개중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항목 수의 평균이 1.26개였다. 원유유출피해주민이 수해피해 주민에 비해 유의미하게 응답항목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불안증상은 쉽게 짜증이 남, 긴장과 걱정, 일에 대한 스트레스 순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로 인해 병원치료를 경험한 재해피해주민들이 전체 48.0%로 재해피해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재해피해주민의 재해 경험과 인식

재해피해주민들이 겪은 피해의 종류는 수해와 원유유출 모두 재산피해가 가장 컸으며, 평균 재산손실율은 원유유출피해주민이 수해피해주민에 비해 더 높았다. 그러나, 원유유출피해지역의 재산손실율이 수해지역에 비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율은 훨씬 낮았다. 실제로 재해당시 당사자들이 복구에 참여했는지의 여부는 수해지역의 경우 76.8%가 참여한 반면 원유유출의 경우 97.9%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간 차이가 컸다.

재해피해주민들의 재해에 대한 안전인식도는 비교적 인식이 높은 편이었으며, 재해발생시 가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일의 정도로는 '약간 할 수 있다'와 '보통'

사이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재해발생 가능성 지식정도는 ‘보통’이었으며 재발가능성 인식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재해피해주민의 재해인식에서는 전반적으로 수해지역의 인식이 원유유출피해지역보다 높았다.

4) 재해피해주민의 비공식적 지지체계들과의 관계변화 평가 및 미래계획변화

재해로 인한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공식적 지지체계들과의 관계에서 수해지역의 경우 관계에 변화가 없거나 좋아지는 방향으로 평가하였고, 원유유출피해지역지역의 경우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로 인한 미래계획에 변화여부는 수해피해주민에 비해 원유유출피해주민은 훨씬 높았으며 미래계획 변화시 변화의 종류는 수해피해의 경우 이사를 우선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유유출의 경우 생계수단의 변경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양상별로 미래변화에 대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원유유출피해주민들이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 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재해피해주민의 복지욕구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

재해피해주민들이 재해시 지원을 받은 주체는 자원봉사자, 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수해지역에서는 가족이나 이웃 등 비공식적 체계들의 도움이 컸으며, 원유유출의 경우 자원봉사자와 성직자(종교기관) 등 공식적 체계의 도움이 컸다.

지원받은 내용과 지원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수해지역이 경우 청소 및 수리 등 주거환경 보수에 대한 지원내용이 많았고 충분했던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및 간병서비스 위로공연 및 심리치료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유출 지역의 경우 청소 및 수리 등 주거환경 보수지원, 의료 및 간병서비스 지원이 많았고 충분했던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시설 복구, 이미용서비스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피해주민들이 느끼는 재해시 자원봉사자에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으며,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는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전문자원봉사자 부족, 자원봉사자 관리 미흡, 제시시간에 오지 않음 순이었다.

재해피해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분석해본 결과 도움받고 싶은 주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 가족 순으로 나타나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주체들을 앞으로도 중요한 도움의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시 반기를 원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생필품지원, 주택 및 환경복구 활동, 재해지역 경제복구 활동 순으로 나타나 우선적으로 물리적인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이 외에도 치료 및 약품지원, 심리적 안정지원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재해유형별로 받고 싶은 도움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원유유출피해지역에서는 심리적 안정지원과 재해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가 수해지역에 비해 매우 높았다.

6) 재해피해주민의 대처 및 교육, 홍보

재해피해주민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사회적 지지 추구는 비교적 낮았으며, 문제해결 중심 대처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피해주민들의 재난시 대처행동은 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수해피해주민에 비해 원유유출피해주민이 좀 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련 행동요령에 대한 인식정도는 보통인 편이었으며, 수해피해주민에 비해 원유유출피해주민의 대처요령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는 다소 도움이 된 편으로 나타났고 앞으로의 대처 및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비교적 교육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예방이나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 여부는 약 60% 이상이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교육받은 것으로는 TV 및 라디오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7) 재해 시 지역사회 활동

재해피해주민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이었으나 수해지역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데 비해 원유유출피해지역의 경우는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었으며, 재해 및 복구과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재해에 대한 인식이 증진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재해 및 복구과정을 통해 지역주민, 지방정부, 자원봉사자 간 의견충돌과 물리적 마찰이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편이었으며 재해와 복구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가 훼손됐는지 여부는 비교적 그렇다고 인식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수해의 경우 비교적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편인데 비해, 원유유출의 경우 다소 그런 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재해와 관련하여 형성된 주민대책위원회, 보상대책위원회의 필요성 대해서는 필요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원유유출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직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재해피해주민이 주민조직에 참여한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43.1%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원유유출피해주민들의 주민조직 참여가 더 높았다. 참여한 주민조직의 종류는 전체적으로 집회참석이 가장 많았으며, 앞으로도 주민조직에 비교적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에 대한 분석결과

1)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성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남성이 55.1%, 여성이 44.9%였고, 자원봉사센터는 남성이 35.1%, 여성이 64.9%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남성이 약간 많았고 자원봉사센터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두 배 정도 많았다. 연령분포는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0대, 30대가 대다수였고 50대 이상의 자원봉사자는 전혀 없는 반면, 자원봉사센터는 30대, 40대가 주를 이루었으며, 50대 이상도 21.6%로 나타나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비해 고연령층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았다. 결혼상태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미혼이 83.3%였으나 자원봉사센터는 결혼한 자원봉

사자들이 84.9%로 대조적이었다.

종교는 두 기관모두 무교가 가장 많았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두 기관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학생과 회사원이 절반이상이었고 자원봉사센터는 주부가 가장 많았다. 월평균 소득은 두 기관 모두 고른 분포를 보여주었으며 주관적 경제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두 기관 자원봉사자 모두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2)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건강상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후에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한 경우는 14.9%였으며 신체적 증상은 두통, 위장장애 및 소화장애, 변비 또는 설사, 등이 아픔이 순이었다. 정신적 증상은 우울증상과 불안증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울증상과 불안증상의 발생빈도는 높지 않지만 우울증상의 경우는 분노나 둔해진 감정, 식욕부진 혹은 과식 등을 호소하였다. 불안증상의 경우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 긴장과 걱정 등의 증상을 보고하였다.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후 스트레스 경험은 전체 자원봉사자 중 25.3%가 스트레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요인으로는 재해구호 자원봉사시 접근이 어려운 점과 한계에 부딪히는 점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불명확한 역할, 무기력함, 관리자와의 문제, 기진맥진, 개인적인 위험순으로 나타났다.

3)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 실태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일반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전체적으로 80.7%가 경험이 있었으며 일반자원봉사 활동 기간은 전국재해구호협회 36.13개월, 자원봉사센터 73.61개월로 나타나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두 배 정도 길게 자원봉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구호 자원봉사참여횟수도 전국재해구호협회 3.14회, 자원봉사센터 7.37회로 두 배 정도 많았다.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기간 역시 전국재해구호협회 13.97개월, 자원봉사센터 52.91개월로 자원봉사센터 소속의 봉사자들이 재

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장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한 자원봉사활동의 재해유형을 살펴보면, 인적재난인 원유유출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전국재해구호협회 44.6%, 자원봉사센터 6.4%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월등히 높았다. 수해, 폭설 등의 자연재난은 자원봉사센터 48.6%, 전국재해구호협회 15.2%로 자원봉사센터가 높게 나타나 원유유출 재해에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재해지역을 살펴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자원봉사센터 모두 2007년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재해에 참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006년 ‘에위니아’ 피해지역과 2005년 폭설 피해시에 참여했으나, 다른 재해에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였다. 이에 비해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루사’ 피해 지역, 2003년 ‘매미’ 피해 지역, 2006년 ‘에위니아’ 피해 지역, 2005년 폭설 피해 지역 순으로 지속적으로 재해구호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재해구호 자원봉사의 참여형태를 살펴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개인차원,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소모임 형태 순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센터는 소모임 형태가 과반수 이상이었다. 재해구호 자원봉사 참여경로는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가 46.9%로 약 절반정도를 차지한데 비해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자원봉사자의 권유 30.5%, 종교, 취미, 사회단체의 권유 25.8% 순이었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시 소유기술을 살펴보면, 두 센터모두 응급처치기술, 도배 및 장판 기술, 의료 및 간호 기술, 운전기술을 소유한 자원봉사자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구호 자원봉사의 참여동기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성취동기가 가장 높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경험동기, 책임동기, 접촉동기, 기대동기, 성취동기는 자원봉사센터가 높았고, 인정동기, 교환동기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체 적극도는 두 기관의 봉사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 지속의지는 3점 만점에 2.20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거주지의 재난발생 여부를 살펴보면, 거주지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는 전국재해구호협회 17.9%, 자원봉사센터 80.2%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봉사자 본인이 직접 피해를 당한 경험도 전국재해구호협회 9.4%에

비해 자원봉사센터는 38.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이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시에 가장 많이 한 활동은 재해 쓰레기, 토사치우기, 재해지역청소로 전체의 70.7%를 차지하여 대부분 노력봉사 활동이 많았고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의 비율이 낮았다. 이중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쓰레기, 토사치우기, 재해지역 청소가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농작물, 농업시설 복구, 대피소 지원활동, 방정리 및 청소, 구호물품운반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센터는 재해쓰레기, 토사치우기, 재해지역청소, 방정리 및 청소, 대피소 지원활동, 농작물, 농업시설 복구, 구호물품운반 순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 모두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비해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4)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시의 사람들과의 관계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재해지역의 피해주민을 만난경험은 전체 66.4%로 나타났고,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이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시에 피해주민과 직접적으로 만난 경험이 많았다.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의 주변사람들의 피해여부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친인척의 피해가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해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죽은 사람을 아는 경우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비해 자원봉사센터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가 재해지역의 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주민들과의 관계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자원봉사 활동에 만족감을 비교적 높게 가지고 있었다. 이중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피해주민들과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기관관리자와의 관계도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으며 다른 동료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자원봉사센터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5)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인식

소속기관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으며, 세부영역별로는 기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고 인정보상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았다. 시설별로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자원봉사센터의 세부 영역별 만족도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인정보상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자원봉사센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은 자원봉사자들이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을 대체적으로 자원봉사 이상의 의미있는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소속된 기관에 대한 인식도 대체적으로 의미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욕구

재해구호자원봉사자의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지원 욕구로는, 1순위로는 교통지원, 다양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봉사장비 제공 순이었다. 2순위로는 교통지원과 봉사장비 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식사제공도 높았다. 3순위로는 봉사장비 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통지원, 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순으로 나타나,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시에 물리적인 지원을 우선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원봉사활동은, 1순위로는, 대피소생활지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택복구활동, 의료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를 살펴보면, 주택복구 활동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료서비스, 대피소 생활지원 순이었다. 3순위는 농작물 및 농어업시설 복구활동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택복구활동, 대피소생활지원 순이었다. 종합적으로 재해지역 복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급식, 세탁, 구호물품, 노약자 및 어린이, 부상자들을 돌보는 대피소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욕구로 나타났고, 토사제거, 가재도구 세척, 가전수리 등의 주택복구 활동과 농작물 청소, 비닐하우스 복구 등의 농작물 및 시설 복구 활동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기관분석에 대한 결과

1) 촛불재단

촛불재단은 자원봉사와 관련된 광범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 특별히 재해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전반적인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 관리와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재해 자원봉사 관리에 활용해 볼만한 좋은 참고 사례가 된다고 보여진다.

특히 지역의 자원봉사 센터들과의 연계구축과 다양한 활용방안들이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피해자/자원봉사자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지역 자원봉사센터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참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센터-재단을 연계하는 허브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 시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 자원봉사자 연계 및 등록을 지원하는 웹사이트(HelpinDisaster.org)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해관련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은, 자원봉사자의 관리와 적절한 자원 활용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구조사에서 재해 피해자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 꼽은 ‘자원봉사자 관리미흡’과 ‘전문자원봉사자 부족’ 문제들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재해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2) NVOAD 및 COAD

COAD가 수행하는 재해관리의 예방, 대피, 대응, 복구의 4가지 과정에서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상호 단절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상호 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각 과정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종의 복구활동의 결과 및 노력 그리고 경험은 최초의 완화단계의 활동에 환류되어 장기적인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과정에서 자원봉사체계가 갖추어지고 통합될 때만이 효과적인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재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 투입 시 재해과정의 단기별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방과 준비단계에서의 자원봉사자들의 교육과 훈련, 배치 준비 등의 체계구축이 필요할 것이며, 반응 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해 후에도 장기적으로 활동을 하며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의 스트레스나 안전 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COAD는 재해 시 지역사회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 민간, 센터 등의 연계를 강화하는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정보교류 등의 활동은, 자원봉사자의 중복 배치, 조정의 어려움, 관리 부족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따라서 각각의 활동 단체들이 통합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환경정비와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과 배분을 통해 사회복지 기관들을 지원하는 중앙조직으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문배분위원회가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별 소위원회 회의 후 배분에 관한 최종승인은 배분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배분과정은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평가하여 지원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또한 중간모니터링과 종결 후 사업결과보고를 통해 지원기관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방식은 전국적으로 동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전국 사업과 사회복지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관의 홍보와 관련 분야의 파급효과가 있다. 따라서 재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완화, 준비, 대응, 복구사업에 관련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심사 방식과 내용을 참조하여 배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긴급상황 시 배분을 구분하여, 빠르고 신속하게 재해피해주민에게 배분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4)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는 대북지원 등 일반구호활동과 더불어 재해피해주민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 시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수많은 적십자 자원봉사단원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앙의 재난봉사과를 비롯해 지부단위의 활동을 통해 재해구호 및 재해구호 자원봉사기관으로써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

조직된 봉사단이 주체가 되는 적십자사의 봉사활동은, 미리 훈련된 지역단위 봉사단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해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 반면, 기존 적십자 조직에 속하지 않거나, 1회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인들의 상이한 욕구에 따라 손쉽게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 자원봉사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의 전문자원봉사단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단 운영은 재해피해주민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더불어 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효과적이었는데, 특히 재난심리상담반과 같은 특화서비스 제공은, 본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그 필요성과 욕구가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단계별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숙련성을 증가시켜 자원봉사의 지속적인 활동을 고무시키고 있다. 더불어 적십자 봉사단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인 대상의 사이버 교육은 재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관홍보에도 효과적이므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재해구호 자원봉사 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지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당시 2500여명이 14호에 걸쳐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재해발생즉시 인터넷 hot-line을 구축하여, 홈페이지의 첫 화면을 재해구호 Hot-line체제로 변경하고, 프

로그래의 출발일시, 집결장소, 준비물, 프로그램 일정안내 등 자원봉사 활동을 안내하고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긴급구호 시 홈페이지 및 잘 활용한다면, 자원봉사를 욕구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 시, 자원봉사자들에게 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나 식비와 같은 실비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의 무보수성이나 자발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해 시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보상제공 방안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I. 제 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와 피해주민의 실태와 다른 나라 각 기관들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들은 아직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대처와 자원봉사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중요한 함의를 제시해 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함의를 바탕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재해시의 자원봉사자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1. 재해유형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방안 마련

본 연구결과 재해 유형별로 중점적으로 겪는 문제와 필요로 하는 도움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방안도 이를 중심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자연재난(수해) 지역의 경우

(1) 자원봉사자 조기 파견

수해지역의 경우 가족, 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 이웃, 자원봉사자의 순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원봉사자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해지역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파견이 좀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신속한 대피활동이나 구호물품 전달, 주택 및 환경복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신체치료 및 약품지원 제공을 위한 신속한 자원봉사팀 파견

수해지역특성상 주거지역 보수에 대한 도움이 가장 많이 요구되었고, 실제로 방

정리 및 청소, 토사 및 쓰레기 치우기, 지붕수리 등 보수공사, 도배 장판수리 등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작물 및 농업시설 복구, 의료 및 간병서비스의 지원은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차적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신체치료 및 약품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자원봉사팀을 파견하도록 해야 한다.

(3)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초기지원

본 조사결과 수해지역 피해주민의 40.7%가 PTSD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초기지원이 요청되며, 정신건강 증상을 초기에 도와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재해 대처요령 및 스트레스 대처교육 프로그램 제공

재해관리에 있어서 사람들의 재해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자연재난에서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수해피해주민들의 대처요령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해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 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는 약 4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수해지역의 경우 재해의 반복적 발생이 특징적이어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재해에 대한 대처요령을 교육하고, 재해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유유출피해지역의 경우

(1)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파견 시스템 마련

본 조사결과 대체로 원유유출피해지역에서는 피해복구 시 걸리는 시간도 길게 나타나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정부, 주민들, 단체 간의 갈등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히 기름띠를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

나라 장기간의 복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시기적절하게 파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파견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2) 전문적 자원봉사자 파견으로 심리적 안정지원

재해지역 경제복구 활동, 신체적 치료 및 약품지원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심리적 안정지원은 앞으로 이들 서비스 외에 가장 욕구가 큰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재의 경우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사건의 발발로 인해 수해지역에 비해 심리적인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유유출 피해지역 주민의 71.2%가 PTSD 진단이 필요하고, 그중 49.7%는 21점 이상의 심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어 치료가 요청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불가결할 것으로 해석된다.

(3) 전문자원봉사자 파견을 통한 가족 및 이웃관계 회복지원

원유유출피해지역의 경우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사고이전에 비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유출의 경우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 형태나 내용, 정도가 재해피해주민마다 각각 다양한데다가 예측되는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처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고 지역관련 기관들의 지원역시 일관적으로 수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재난피해주민들에 비해 지역공동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의 의식을 높이고, 지역단체와의 갈등을 줄여 이웃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문적 자원봉사자의 파견이 필요한 영역이다. 물론 자원봉사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전문가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적 자원봉사자 파견이 요청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상담이나 지역축제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4) 전문자원봉사자 파견을 통한 미래계획 변경예정주민 지원

원유유출피해지역의 경우 미래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생태계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태여서 생업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업의 문제를 안고 다른 일을 계

확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지역의 주민을 위한 전문자원봉사자의 진로상담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재해발생시기를 고려한 자원봉사활동 지원방안 마련

1) 재해발생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 자원봉사활동 계획 및 진행

재해가 발생한 시기를 전후기로 나누어 자원봉사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대체로 자원봉사활동은 전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권영섭, 2008), 본 연구결과에서도 재해가 발생한 후 6개월이 지나면 거의 봉사자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해발생초기에는 신속하게 일반자원봉사를 모집하여 재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재해발생후 2개월부터는 자원봉사자의 관심도 줄어들게 되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도 어려워지므로 미리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재해발생후 2개월부터는 주로 간병, 심리적 위로, 가전제품의 수리 등과 같은 지원이 필요해 지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미리 확보해 두도록 계획하여 지원해야 한다.

2) 재해지역 사후 모니터링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앞서 언급한대로 재해지역 자원봉사활동은 마스크에 의해 주목을 받을 때만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긴급복구가 이루어진 후 재해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활동은 앞으로 재해예방은 물론 완전한 지역사회복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한 후 지역복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 필요한 도움은 없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

3. 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반 신설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심리학회와 협약을 맺고 재해시 '재난심리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피해주민의 건강 및 심리를 위해 중앙단위 전문가와 지부에서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 및 재해구호봉사단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건강을 체크하고, 심리상담 안전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심리상담반' 운영은 재해피해주민들에 대한 차별화된 구호서비스 제공과 함께 재해구호전문기관으로써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인식제고의 효과를 갖는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특별한 기술 없이 노력봉사위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재해구호에서 노력봉사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재해피해주민들의 욕구에서 살펴보면 전문자원봉사의 필요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해복구시에 도배나 장판 수리, 보수공사, 가전제품 수리, 이미용 서비스 등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이나 사후 경제적, 심리적, 법적 지원 등에도 전문자원봉사활동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또한 재해피해주민들이 밝힌 자원봉사자에 대한 불만족 이유에서도 전문기술을 갖춘 자원봉사자의 부족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으므로 이후 재해구호 자원봉사 관리시 전문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조직화하여 재해현장에 체계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회 내에 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4.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한 종합적 관리기반 마련

본 연구에서 재해피해주민들은 재해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지원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재해 시에 가장 중요한 지원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어 자원봉사자로부터의 서비스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재해 시 자원봉사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로 '관리 미흡'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재해피해주민들의 조사결과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같은 전문적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기 때문에 재해 발생시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원봉사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재해구호전문기관으로써의 중심적 역할을 정립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1) 재해예방 및 준비, 반응, 복구의 전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관리체계마련

본 연구에서 언급한 재해구호 기관인 COAD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시에는 재해예방, 재해준비, 재해반응, 재해복구의 전 단계에 걸쳐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하고 이는 재해대처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해 발생 즉시의 재해 반응 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특별 기술 없이 단기적으로 대처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재해 발생 직후 초기 1~2개월에 필요한 활동들에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재해 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속적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자원봉사활동은 매우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재해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위해 재해단계별로 자원봉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재해 후에도 장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전 단계, 재해발생시의 반응 단계, 재해 복구 단계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나 역할 등을 제시한 자원봉사활동 매뉴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 훈련 등에도 단계별 특성에 맞는 계획 및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각 단계별 가능한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 내용을 2002년 미국의 UPS와 촛불재단, 그리고 전국자원봉사자협의회, FEMA가 공동으로 개최한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전국리더쉽포럼(Volunteer 21, 32, p18. 재해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재해방지를 위한 노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완화단계 : 지역 곳곳을 비상사태 관리 담당자와 함께 조사하여 위험여부와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모색, 가정이나 사업체 소유자들에게 자신들의 자산이나 이웃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쉽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보 배포,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시설의 오래

된 시설물을 바꾸어 위험요소를 최소화, 폭우를 대비해서 배수 및 낙수시설을 청소하고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제거하여 홍수때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 진흙사태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식물심기, 지역내 모든 시설에 연기 감지기 설치, 노인시설물에 대한 수리보수 실시하여 폭풍에 따른 피해 대비, 모든 필요한 시설물에 방화벽 설치 및 안전점검

- 대처단계 : 기초의 재해구호 단체에 합류하여 필요한 훈련을 받고 재해대비 실천 훈련에 참가. 자원봉사센터와 지역비상사태관리국에 연락하여 자원봉사활동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재해대처 프로젝트가 있는지 알아봄. 이웃간 재해대응계획을 포함하여 시민 대처활동에 대한 교육참여. 지역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 재해대처와 응급조치훈련 교육, 여러 사례나 뉴스, 홍보자료를 통해 비상상태 관리에 관해 숙지함으로써 자신이나 가족의 인식 높임.
- 대응단계 : 자원봉사센터나 지정 자원봉사단체에 연락하여 재해대응단계동안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기회에 대해 알아봄. 재해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지역자원봉사 코디네이션에 연락하여 현재 자원봉사자의 수요와 등록방법 알아봄. 재해지역에서 직접 자원봉사 참여.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웃, 특히 노인이나 약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나 지원 등이 필요한지 파악
- 복구단계 : 지역청소 프로젝트 구성하는 일, 기부 운영 관리 활동을 마감하는 일,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일 알아보는 일, 수리와 재건 프로젝트 참여.

2) 효과적 자원봉사 모집 및 관리를 위한 Hot-line 구축 및 웹사이트 운영

재해의 특성상 자원봉사자들의 모집 및 관리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자원봉사자 관리 미흡’이나 ‘전문자원봉사자 부족’ 문제들에 대한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재해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써, 촛불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1-800-Volunteer, help disaste.org 등과 같은, 재해시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 자원봉사자 연계 및 등록을 지원하는 hot-line 개설 및 웹사이트 운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의 재해시 긴급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도 좋은 실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재해관련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은 자원봉

사자의 관리와 적절한 자원 활용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웹사이트 운영시에는 HelpinDisaster.org에서처럼 단순한 교육 및 홍보내용 게시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 내용에 대해 등록하고, 재해피해주민이나 기관들은 전문자원봉사자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인들은 재해지역에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도움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홍보, 자원봉사관리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의 스트레스 관리 필요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재해구호에 참여한 봉사자들 중 스트레스 경험을 한 봉사자가 4분의 1정도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보여주었고,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은 재해구호 활동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거나 무기력해지거나 기진맥진해지는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의 이후 스트레스 대처나 안전, 자원봉사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건강 등의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4)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 함양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실무자나 전문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지역을 활동거점으로 잘 활용하여, 청년, 여성, 장년, 노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 및 직장 봉사단에게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지식이나 기술을 갖춰 전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문봉사단을 이끌어가고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기초교육인 오리엔테이션 이후, 봉사자들이 그 활동에 필요한 기초지식 습득과 도움을 위한 기술연마를 가

르치기 위해 단계별 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년 뒤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재해구호협회도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을 위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직접적 교육이 아닌 중앙 지원조직으로서 재해구호기관 리더들을 위한 교육이나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의 체계마련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인정·보상 체계 마련

자원봉사자들의 인정, 보상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본 연구조사결과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의 기관에 대한 전체 만족도 중에 인정, 보상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제로 촛불재단은 자원봉사자의 날을 만들고, 자원봉사자에게 상을 주는 등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인정과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주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인정,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료증이나 인증서 발급, 정기적인 재해구호 자원봉사상 및 자원봉사 공로상 수여(award) 등과 같은 보상체계를 만들어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을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재해구호 자원봉사관리를 위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방향모색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관리에 있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자원봉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기관들과의 관계 설정을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외 기관 사례들을 검토해 본 결과 실제로 COAD와 같은 기관들은 산하에 조직들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시 중앙과 지방조직을 가지고 배분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방안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대해 협력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처럼 배분위원회를 통해 관련기관을 지원하는 간접적 방식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1) 지역 자원봉사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관리방안

이 방안은 COAD나 촛불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고유의 사업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산하의 단체들을 두고 있는 모델이다. COAD는 산하의 단체들을 가지고 있지만, 촛불재단의 경우 지역의 자원봉사 관련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경우 산하에 다른 단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 COAD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촛불재단과 같이 지역에서 자원봉사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있는 기관들 몇 개를 네트워크 기관으로 지정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때 네트워크 회원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는 주로 수해나 인재와 같은 재해를 경험했던 지역의 자원봉사관련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다. 본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비해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이 자원봉사기간이 길고, 재해구호시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으며, 참여 동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직접 재해피해를 당했을 경우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지역 단위로, 재해지역의 욕구에 맞는 재해구호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 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기관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하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원봉사자들이 재해피해주민 및 위험지역의 잠재적 피해주민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고, 또한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추어 재해지역 관리, 교육, 지역사회의 위험분석, 대응을 할 수 있어 성공적인 재해구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해시의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의 전국 시군구에 설립되어 있는 지역의 관련 기관들,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등과 네

트위크를 형성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아직 재해구호 영역으로 봉사활동이 특화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있지만, 재해와 관련해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동기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재해발생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를 신속히 모집하도록 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비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자원봉사자가 신속히 피해지역에 도착하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매뉴얼을 작성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피해주민들을 위한 심리지원사업이나 가족캠프, 재해피해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음악회,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밤 등 기관고유의 사업을 개발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방식의 경우 장점으로서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많은 업무를 네트워크 기관들과 공유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조직과 협력할 때 중앙의 자원봉사센터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2)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단체 지원을 통한 간접적 자원봉사활동 관리 방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자원배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으로 강사양성을 통한 재해관련 지역 자원봉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공모, 재해관련 특별프로그램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자원배분의 주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문자원배분위원회가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자원배분위원회의 위원장은 및 배분위원회원은 기관 협회나 실무진의 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천받아 주로 사회복지 단체나 기관, 그리고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배분위원회의 모집이 형식적으로가 아닌 사회복지현장의 실제적 경험을 아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현장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야가 좁아지고,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이 아닌 의

료현장 등에서도 자원 배분의 욕구가 있음에 따라, 시민단체나 의료, 법률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배분위원회로 선정되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각 분과마다에는 소위원회가 있어서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한 달에 한번 필수적으로 회의를 한다. 특히, 기획테마사업은 배분위원회의 모임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고,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창구를 마련하기도 한다. 소위원회의 회의 후 배분에 관한 최종승인은 배분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도 이러한 재해에 관련된 사항을 나눌 수 있는 배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자원배분 전문팀의 소위원회를 세분화하여, 완화, 준비, 대응, 그리고 복구사업에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자원배분의 과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일반사업과 기획사업, 그리고 긴급사업으로 분류하여,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접수가 된다. 그러면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배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 배분분과위원회가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를 한 후, 사업수행기관의 신뢰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 경험, 인력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목적 및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의 적합성, 사업주체에 부합하는 산출 및 성과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한다. 이후 지원을 한 후 중간모니터링 과정을 필수적으로 하며, 종결 후 사업결과보고를 신청 단체,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표 혹은 보고를 진행한다. 이는 자원 배분과정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분과정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재해라는 특수한 상황시 완화, 준비, 대응, 그리고 복구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심사기준과 심사내용을 참고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자원배분의 예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배분 예산 과정을 살펴볼 때, 일반사업과 기획테마사업의 비율이 38%, 33%으로 고루 분포되어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각 기관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시소와 그네' 등 기획테

마사업 등으로 직접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원배분 예산은 전국적으로 동일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는 전국 사업과 사회복지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홍보와 관련 분야의 파급효과까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해구호협회의 현재 자원봉사 예산액인 운영자금에서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직접 지원비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4) 자원배분의 분야

COAD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구호 전 단계에서의 예방 및 준비, 재해시의 대응활동, 재해 후의 복구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사업프로그램 제안 가능하도록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지만, 현재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배분방식을 진행한다하더라도 첫 번째 방식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매뉴얼 작성이나 재해피해주민들을 위한 심리지원사업, 가족캠프, 재해피해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음악회,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밤 등 전국재해구호협회만의 고유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재해구호금을 모금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데에 있지만, 단점으로는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자원배분이 재해발생당시 프로포절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위기개입과 같은 즉각적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6. 기타제언

1) 재해구호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강화

재해구호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홍보의 방법으로는 첫째, 재해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민간기관 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 등의 국가기관 등 다양한 재해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과 둘째, 캠페인 및 교육 등의 공동사업 실시를 통해 재해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 확산을 이끌어내는 것, 셋째, 언론이나 미디어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해 재해구호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다.

2) 재해구호전문기관으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재해관련 지원기관으로서 기관의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에서 재해구호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참여형태는 개인차원, 소모임 형태의 참여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원봉사를 하게 된 참여경로는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거나 친구 및 가족,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권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며, 개인이나 그룹형태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인한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앞서 효과적 자원봉사 관리를 위해 언급한 것과 같이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홍보 전략을 강화하고,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 시에 기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마스코트나 의상착용, 본부 설치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웹 동아리나 사이트 등과 연계하여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홍보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원도청. (2006). 2006년 7월 집중호우 인명피해. 현황보고서, 강원도청 건설방재국 긴급대책계.
- 강혜주. (2006). 신문사의 이념에 따른 국제뉴스 프레임에 관한 연구 : 카트리나관련 재난보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경상북도청. (2006). 2003-2006 태풍 인명피해. 현황보고서,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치수방재과.
- 권영섭. (2008).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용희. (2004). 수해지역 노인의 외상후 스트레스 조사 연구. 서울대 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태호, 박희, 양기근. (2007). 지역자율방재조직 활동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 전국재해구호협회.
- 김 구. (2003). 재해활동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재해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방안 -광산구 지역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조선 대학교지역사회발전연구원, 8(1), p. 39-60.
- 김승태, 김병로, 홍경수, 정유숙, 유범희, 김도관. (1997). 삼풍사고 생존자들에서의 급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신경정신의학회. 36(3). 475-487.
- 김운왕. (2007). 공동모금회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 김주란. (2005). 카트리나 피해 복구에 앞장서는 광고주들 외. 광고정보. p 116-117
- 대한적십자사. (2006). 구호사업종합계획서. 대한적십자사.
- 대한적십자사. (2008). 2008년도 구호사업 종합계획서. 대한적십자사.
- 대한적십자사. (2008). 200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개요. 대한적십자사.
- 박성희, 조유미. (2006)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국 내 보도 프레임 분석-<뉴욕타임즈>를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38(2). p. 61-84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7). 2007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간보고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 2006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간보고서.
- 성기환. (2006). 재난관리와 파트너십. 한국학술정보(주).

- 성기환. (2008).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활동의 실태분석을 통한 필요 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8(1), 395-398.
- 소방방재청. (2005). 방재 및 재난관리행정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국립방재연구소.
- 소방방재청. (2006). 2004 재해연보. 국립방재연구소.
- 손건수. (2005). 해양유류오염사고 대응활동 성과 및 정부정책과제. GS칼텍스 씨프린스호 해양주류오염사고10주년 국내심포지움자료집.
- 신동아. (2008). 겹눈으로 본 태안 원유유출사고. 2008-02-25
- 신선인. (2002). '재해 및 재난구호시 요구되는 정신보건사회사업 서비스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0, p 61-83.
- 신유섭. (2005). 초점 : 미국 초점 ; 카트리나 피해와 미국 사회. 월간 아태지역동향. 165, p.25- 30
- 신혜진. (2002). '스트레스 대처전략검사의 타당화 연구 - 한국대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외상 경험과 인지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6(1).
- 염병진. (2004). 적십자회비모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경영대학원
- 오금호, 정길호, 최현주, 조율. (2002).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시민안정봉사자 활성화 방안연구. 국립방재연구소, 12.
- 이민수, 김종남, 신동균. (1997). 삼풍 사고 생존자들의 임상양상 및 성격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p.183-195.
- 이옥철, 이정자, 고영애, 고진남, 윤근순, 성기환. (2000). 재해봉사자 기초교육과정 개발. 적십자간호전문대학논문집, 23, p.168-177.
- 이운주. (2004). 재난피해의 심리적 영향과 재난극복을 위한 심리적 조력의 방법 : 아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2(1).
- 이은애. (2004). 재난대비 긴급자원봉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재난재해대비 긴급자원봉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p.61-65.
- 이재환. (1995). 일본의 재해대응. 한일문제연구. 3. p.71-91.

- 이창원, 강제상, 이원희. (2003). 국가 재해재난 관리 조직의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세미나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p.1-39.
- 이현송. (2006). 자연 재해의 사회적 과정 :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수해 사례를 중심으로. 영미연구 제15집 p. 153-177
- 전국재해구호협회. (2005). 재난구호자원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전국재해구호협회
- 전국재해구호협회. (2006). 재난지역 주민의 재난이후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 전국재해구호협회.
- 전국재해구호협회. (2007). 재해와 자원봉사활동, 서울: 전국재해구호협회.
- 정순돌, 기지혜. (2007). 강원도 노인의 수해경험과 재해인식에 관한 연구-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비교- 방재학회 논문집, 8(1), p.57-62.
- 정순돌, 김고은, 박지영. (2008). 수해경험 노인의 인적자원과 서비스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 방재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p.143-146.
- 정혜숙. (2002). 적십자 자원복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적십자 성인자원봉사자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중앙재해대책본부. (2003). 풍수해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행정자치부.
- 채경석. (2004). 위기관리정책론, 대왕사.
- 채은희. (2005). 재난이 피해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에 미친 장단기적 영향 및 재난 정신건강관리체계 개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전공 박사논문.
- 최남희, 변주훈, 한동일, 임숙빈. (2007). 자연재난 집중호우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우울. 정신간호학회지. 대한간호학회정신간호학회, 16(7), p.139-149.
- 최진호, 김진욱. (2006). 우리나라 재해 임시주거의 거주 만족도 조사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연구.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31(3), p. 175-189.
- 태 안. '기적의 손길' 100만 돌파 (2008. 01. 08). 세계일보.
- 통계청. (2001). 2001 사회통계조사.
- 통계청. (2005). 2005 사회통계조사.
- 한귀현. (2004). 사전방재기능의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자연재해 대책법을

중 심으로-.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5(2), p.575-598.

한동우외. (2004). 우리나라의 재해·재난관리 및 긴급지원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동우. (2007). 재난관리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연구. 2007년 국제위기관리 학술회의 논문자료집, p.100-124.

홍원화, 여명길, 전규엽, 이지희. (2004). 재난 자원봉사의 지원 및 관리체계 분석 및 제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0), p.337-344.

홍원화, 전규엽, 박경현, 여명길. (2003). 대구지하철 화재조사 분석: 재난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체계 특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3(2), p.889-892.

Antai-Otongm, D. (2007). The art of prescribing pharmacologic manage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43(1), p. 55-59.

Baldi, J. J.(1974). Anatomy of survey under disaster conditions. *Gerontologist*, 14, p.100-105.

Baum, A., Fleming, L & Davison, L. M. (1983). " Natural Disaster and technology catastrophe". *Environment and Behavior*, 15(3), p 333~354.

Bolin, R. & Klenow, O. J. (1983). Older people in disaster: A comparison of black and white victim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6, p.29-43.

Bowie, S. L. (2003). Post-disaster crisis intervention with older adults in public housing communities. *Crisis Intervention and Time Limited Treatment*, 6(3), p.171-184.

Bowyer, R, T., G.M. Blundell, M. Ben-David, S.C. Jewett, T.A. Dean, and L.K. Duffy. (2003). Effects of the ExxonValdez oil spill on river otters: Injury and recovery of a sentinel species. *Wildlife Monographs*. 153(153).

Colarossi, L., Heyman, J., Phillips. M. (2005). Social Workers' Experiences of the World Trade Center Disaster: Stressors and their Relationship to Symptom Typ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1(2), p. 185-198.

- Friedsam, H. J. (1960). Older persons as disaster casualties. *Journal of Health and Human Behaviour*, 1, p.269-273.
- Green, B. L. (1980). "Prediction of long term psycho-social functioning following the beverly hills hir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incinnati.
- Grube, J. A., Piliavin, J. A. (2000). Role Identity, Organizational Experiences, and Volunteer Perform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9), p. 1108-1119.
- Haines, V. A., Hurbert, J. S., Beggs, J. (1996). Exploring the Determinants of Support Provision: Provider Characteristics, Personal Network, Community Context, and Support Following Life Ev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3), p.252-264.
- Henderson, S. & T. Bostock. (1977). Coping behavior after shipwreck. *British J. of Psychiatry*, 131, 15-20.
- Heurta, F. & Horton, R. (1978). Coping behavior of elderly flood victims, *The Gerontologist*, 18, p. 541-546.
- Kaniasty, K., Norris, F. H. (1995). In search of Altruistic Community: Patter of Social Support mobilization Following Hurricane Hugo. *Am J Community Psychol*, 23(4), p.447-477.
- Lein, L., Streeter, C., Pomeroy, E., Pyles, L. (2006). The parallel strengths and weakness of the civil society and the state: the example of Katrina survivors.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enter for Social Work Research.
- Mesch. G. S. (2000). Perception of risk, lifestyle activities and fear of crime. *Deviant Behaviour :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1, p. 47-62.
- O'Neill, A. (2003). Self-reported exposures and health status among workers from the Exxon Valdez oil spill cleanup. 예일대 역학 및 공중보건학과 석사논문.
- Ott, R. (2005). The legacy of the Exxon Valdez Oil Spill. GS칼텍스 씨프린스

호 해양주류오염사고 10주년 국내심포지움자료집.

- Ott, R.(2005). *Sound Truth and Corporate Myths*Cordova, Alaska: Dragonfly SistersPress, 2005.
- Paton, D. (1996). Training disaster workers: promoting wellbeing and operational effectiveness. *general review*, 5, p. 11-18.
- Perry, R. W. & Lindell, M. K. (1997). Aged citizens in the warning phase of disasters: re-examining the evi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4(4), p.257-267.
- Phillips, B. D. (2006). Evacuation : why don't people leave? Working Conference Report on Emergency Management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the Elderly, [Http://www.add-em-conf.com](http://www.add-em-conf.com).
- Picou, J.S., B.K. Marshall, and D. A. Gill. (2004). Disaster, Litigation, and the Corrosive Community. *Social Forces*, 82(4), p. 1971526.
- Report on Emergency Management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Elderly, [Http://www.add-em-conf.com](http://www.add-em-conf.com).
- Ritchie, L.A. (2004). Voices of Cordova: Social capital in thewake of the Exxon Valdez oil spill. PhD dissertation,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Anthropology, and Social Work.
- Yoshihiro, H. (2005), 고베의 자주방재활동사례, 지역중심의 재해구호와 방재활동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p.21-38. <http://cafe.daum.net/TyphoonRUSA>
- USA Today, 2005. 8.21 ZDnet, 2006.03.03

설문지번호		

조사지역	시(군)	동(리)
재해유형	수해 ____	원유유출 ____
조사일시	2008년 ____ 월 ____ 일	
조사자		

재해지역 주민에 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수해나 원유유출 등의 재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해주신 자료는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귀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귀하의 대답은 틀리고 맞는 것이 없습니다. 또 좋은 방향으로만 응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고 있으신 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다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통계처리에만 사용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 7.

연구 책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정 순 들

☎ 02-3277-4102

e-mail : sdchung@ewha.ac.kr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V표를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 2) 여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대학교 졸업 이상

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0) 종교 없음 1) 불교 2) 기독교 3) 천주교 4) 유교
 5) 기타()

5. 귀하의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0) 직업 없음 1) 농업 2) 축산업 3) 어업 4) 자영업
 5) (전업)주부 6) 기타 ()

6. 귀하의 재해피해 당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0) 직업 없음 1) 농업 2) 축산업 3) 어업 4) 자영업
 5) (전업)주부 6) 기타()

7. 귀하의 결혼상태는 다음 어디에 해당됩니까?
 1) 기혼 (자녀수: 명) 2) 이혼 3) 사별 4) 미혼

Ⅲ. 다음은 귀하의 심리사회적인 영역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에 나타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각각에 대하여 아래중 하나를 골라 V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거나, 단 한번 그런 적이 있다	일주일 에 한번이 나 가끔	일주일에 2번-4번 정도	일주일에 5번 이상 또는 거의 매일
1)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때 불쑥 생각 나거나 머릿속에 그려진다.	①	②	③	④
2)	그 일과 관련된 악몽을 꾸다.	①	②	③	④
3)	그 일이 마치 재현되듯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 때 당시처럼 행동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4)	그 일을 떠올리면 괴로운 감정이 든다. (예, 두려움, 분노, 슬픔, 죄책감 등)	①	②	③	④
5)	그 일을 떠올리면 신체적 반응이 느껴진다. (예, 진땀이 난다, 심장이 뛰다 등)	①	②	③	④
6)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으려 하고, 당시의 느낌조차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①	②	③	④
7)	그 일을 생각나게 하는 활동이나 사람들, 장소들을 가급적 피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8)	그 일과 관련된 중요한 기억의 한부분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지금 내 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 흥미가 떨어지거나 의욕이 낮아졌다.	①	②	③	④
10)	주위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단절된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11)	감정이 메마른 것처럼 무감각하다 (예, 눈물이 나지 않는다, 무엇에도 애정을 느낄 수 없다 등)	①	②	③	④

12)	내 미래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희망이 없이 느껴진다. (예 :제대로 된 직장이나 가족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등)	①	②	③	④
13)	잠이 잘 오지 않고 자더라도 자주 깬다.	①	②	③	④
14)	짜증이 잘나고 신경질을 종종 부린다.	①	②	③	④
15)	집중하기가 어렵다 (예: 대화 중에 다른 생각을 한다, TV 드라마를 보 다가 줄거리를 놓친다, 방금 읽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등)	①	②	③	④
16)	항상 과도한 긴장상태에 있다 (예, 주위에 누가 있는지 자주 확인한다, 문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으면 왠지 불안하다 등)	①	②	③	④
17)	작은 일에도 쉽게 놀란다. (예, 누가 뒤에서 걸어오는 것을 느낄 때 등)	①	②	③	④

18) 위의 현상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경험해왔습니까?

항 목	표 기
한 달이 채 안되었음	
1 개월 ~ 3 개월	
3 개월 이상	

19) 충격적인 사건이나 경험을 겪은 지 얼마 만에 위의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항 목	표 기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IV. 다음은 재해경험 및 인식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1. 귀하는 지난 재해로 피해를 입으시거나 위험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 1) 예 (☞ 1-1번 문항으로) 2) 없다 (☞ 2번 문항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1-1.

- 1) 재산피해(주택, 가구, 자동차, 수입) 2) 인명피해(부상 등) 3) 재산+인명피해

1-2. 재해로 인해 몇 %의 재산손실이 있었습니까? (%)

1-3. 현재 피해는 몇 %나 복구되었습니까? (%)

2. 귀하는 지난 재해로 인해 다치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 1) 예 (☞ 2-1번 문항으로) 2) 아니오(☞ 3번 문항으로)

그 사람은 귀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까?

2-1. (가족의 경우 해당하는 곳에 표시)

- 1) 가족(부, 모, 아들, 딸, 형제, 자매) 2) 친척 3) 이웃 4) 친한 친구 5) 기타

3. 귀하는 지난 재해로 인해 죽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 1) 예 (☞ 3-1번 문항으로) 2) 아니오(☞ 4번 문항으로)

그 사람은 귀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까?

3-1. (가족의 경우 해당하는 곳에 표시)

- 1) 가족(부, 모, 아들, 딸, 형제, 자매) 2) 친척 3) 이웃 4) 친한 친구 5) 기타

4. 귀하는 지난 재해 시 복구활동에 참여하십니까?

- 1) 예 2) 아니오

5. 귀하의 지역에서 재해복구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아닌)전문가를 알고 있습니까?

- 1) 의사 2) 간호사 3) 사회복지사 4) 변호사 5) 기타()

6. 귀하가 살고 계신 곳은 재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잘 모르겠다 2) 매우 안전하다 3) 대체로 안전하다 4) 보통이다
 5) 대체로 위험한 편이다 6) 매우 위험하다

7. 귀하는 재해로 인해 귀하의 미래 계획에 변화가 있습니까?

- 1) 예 (☞ 7-1번 문항으로) 2) 아니오 (☞ 8번 문항으로)

만약 미래 계획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그러합니까?

7-1.

- 1)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지 고민이 된다
 2) 앞으로 생계수단(직업)을 바꾸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
 3) 기타()

8. 재해로 인해 가족구성원의 미래에 대한 계획에 변화가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9. 귀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부부관계	①관계가 나빠졌다	②변화없다	③관계가 좋아졌다
2)	자녀와의 관계	①관계가 나빠졌다	②변화없다	③관계가 좋아졌다
3)	친척간의 관계	①관계가 나빠졌다	②변화없다	③관계가 좋아졌다
4)	이웃과의 관계	①관계가 나빠졌다	②변화없다	③관계가 좋아졌다

10.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귀하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1)	인명구조활동				
2)	대피소 지원활동 (급식, 세탁, 노약자 및 어린이 돌보기 등)				
3)	피해상황 정보수집 및 정확한 정보제공				
4)	다른 가족의 소식제공				
5)	구호물품 운반				
6)	지역복구활동 : 재해쓰레기, 토사 치우기, 재해지역 청소				
7)	주택복구 : 방 정리 및 청소, 가재도구 세척				
8)	행정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업무보조				
9)	신체치료 및 약품지원 : 검강검진, 간병서비스				
10)	생필품 지원				
11)	재해지역 경제복구활동 : 재해지역 관광, 재해지역 물품사기 등				
12)	법적 자문 및 컨설팅 : 주택복구를 위한 대출상담, 생계비 청구방법 등				
13)	농작물 및 농어업 시설 복구활동				
14)	이·미용 서비스				
15)	심리적, 정신적 안정지원 : 콘서트, 연극 등의 위로공연 및 상담, 심리치료 등				
16)	기타 (구체적으로)				

3. 귀하는 재해 복구시 전반적인 자원봉사자활동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하다
 2) 불만족하다
 3) 보통이다
 4) 만족하다
 5) 매우 만족하다

위의 질문에 대해 1), 2)번을 응답하신 경우 가장 큰 불만족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1) 자원봉사가 필요한 시간에 오지 않는다.
 2) 자원봉사 활동이 한 두번만 이루어지고 지속되지 않는다.
 3) 자원봉사자와의 갈등이 있다.
 4)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재해복구에 방해가 된다.
 5) 자원봉사자가 준비가 안되어 자신이 할 일을 모른다.
 6) 전문기술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
 7) 자원봉사자 관리가 미흡하다.
 8) 기타_____

5. 다음은 귀하와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어보신 후에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시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원봉사자와의 관계가 좋다.					
2)	자원봉사자는 나의 생각을 존중하고 따라준다.					
3)	자원봉사자로 인해 나의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4)	나는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5)	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만족을 표시한다.					

6. 귀하는 지난 수해 시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으셨습니까?

- 1) 있었다 2) 없었다

7. 귀하는 현재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8. 귀하는 수해가 또 발생한다면 누구의 도움을 주로 받으시겠습니까?(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8)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①	②	③
9)	선택한 방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해보았습니까?	①	②	③
10)	더 좋은 때를 그리며 몽상만 하고 있었습니까?	①	②	③
11)	효과적인 문제 해결방법이 발견될 때까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습니까?	①	②	③
12)	친구나 친지들에게 문제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에 대해 상의하였습니까?	①	②	③
13)	평상시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①	②	③
14)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책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른사람들에게 당신의 문제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①	②	③
15)	문제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보았습니까?	①	②	③
16)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였습니까?	①	②	③
17)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마음속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①	②	③
18)	평상시보다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보았습니까?	①	②	③
19)	기분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가)을 찾아갔습니까?	①	②	③
20)	그 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딪혀보았습니까?	①	②	③
21)	대체로 사람들을 피했습니까?	①	②	③
22)	문제를 잊기 위해 취미나 스포츠 활동에 몰두했습니까?	①	②	③
23)	문제에 대한 당신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까?	①	②	③
24)	주위 사람들에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였습니까?	①	②	③
25)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주위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해주거나 위로해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①	②	③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했음	많이 했음

26)	평상시보다 수면시간이 더 늘어났습니까?	①	②	③
27)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하는 공상에 빠졌습니까?	①	②	③
28)	소설이나 영화의 등장인물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였습니까?	①	②	③
29)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까?	①	②	③
30)	사람들이 당신을 그냥 혼자 내버려두기를 바랐습니까?	①	②	③
31)	친구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까?	①	②	③
32)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문제 상황에 대해 당신을 안심시켜주기를 바랐습니까?	①	②	③
33)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신중하게 행동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하였습니까?	①	②	③

VII. 다음은 귀하의 주변에 관한 사항을 나열한 말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부분 그렇다	거의 그렇다
1)	나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다.				
2)	내가 필요로 하면 잘 곳을 마련해 줄 사람이 있다.				
3)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				
4)	내가 우울할 때 나를 기쁘게 해주려는 사람이 있다.				
5)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들어줄 사람이 있다.				
6)	나의 주위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준다.				

2-2 교육과 홍보내용이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도움이 안됨 2) 별 도움이 안됨 3) 보통
 4) 약간 도움 5) 매우 도움

2-3 재해 예방 및 대처방법에 관한 교육 및 홍보물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IX. 다음은 재해시의 지역사회 활동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1. 귀하는 재해 및 복구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귀하는 재해 및 복구과정을 통해 일자리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 귀하는 재해 및 복구과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재해에 대한 인식이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귀하는 이번 재해 및 복구과정으로 인해 지역주민, 지방정부, 자원봉사단체간에 의견

4. 충돌이나 물리적 마찰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약간
- 3) 보통이다
- 4) 약간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5. 귀하는 재해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약간
- 3) 보통이다
- 4) 약간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6. 귀하는 이번 재해 관련하여 형성된 지역내 조직(주민대책위, 보상대책위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필요치 않다
- 2) 별로
- 3) 필요한 편이다
- 4) 매우 필요하다
- 5) 필요치 않다

7. 귀하는 이러한 지역 내 주민조직에 참여를 하거나 공동 행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7-1번 문항으로)
- 2) 없다

7-1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 1) 집회참석
- 2) 서명
- 3) 토론회 참석
- 4) 항의전화
- 5) 기타 ()

8. 귀하는 앞으로 재해와 관련하여 비슷한 지역사회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 주민조직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참여할 의사가 없다
- 2) 참여할 의사가 있다

※ 다음문항은 수해를 경험한 분들만 대답해 주십시오

X. 다음은 수해경험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1. 귀하는 수해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나요?

- 1) 몰랐다 2) 직전에 알았다 3) 1시간 전에 알았다
- 4) 2시간 전에 알았다 5) 하루전에 알고 있었다 6) 기타 ()

2. 귀하는 수해가 일어났음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 1) 경고방송을 통해 2) 자연징후를 보고 3) 친구나 가족의 전화를 받고
- 4) 기타 ()

3. 귀하는 경고방송을 들으셨습니까?

- 1) 예 2) 아니오 (이유:)

4.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강풍 및 홍수 발생에 대한 방송 당시, 귀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 1)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예전처럼 행동했다.
- 2) 위협이 될 만한 징후를 점검했다: 라디오 방송을 듣지만,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3) 위협에 따른 재산 보호를 위한 행동을 했다: 홍수발생시 물이 들어올까 두려워 문의 틈은 메웠지만,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4) 개인의 안전을 위한 보호행동을 했다: 안전은 생각했지만, 더 이상의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
- 5) 대피할 준비를 했다: 교통수단을 마련하거나 귀중품 및 약품을 챙겼지만, 실제로 떠나지 않았다.
- 6) 경고에서 지시된 대로 그 지역을 벗어났다.

5. 지난 여름 이외에 수해를 당한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회

☞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누락된 설문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문번호

조사지역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석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결과는 향후 재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소 지루하고 힘들시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자신의 경험과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되어지는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 한 문항 모든 질문에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7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 중 의문이 나는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시간을 내어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5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교수 정순들

I. 다음은 귀하의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어보신 후 해당 하는 항목에 \checkmark 표 해주세요.

1. 귀하는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외에 다른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귀하가 현재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한 총 기간은 얼마입니까?

총 () 년 () 개월

3. 귀하가 현재까지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을 한 총 기간은 얼마입니까?

총 () 년 () 개월

4. 귀하가 현재까지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총 () 회

5. 다음 중 귀하가 참여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은 무엇이며, 활동횟수는 몇 회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checkmark 표를 해주십시오.)

√표	내 용	횟 수
()	①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지역 (태안군, 군산시 등)	()회
()	② 2007년 태풍 '나리'피해 지역 (제주시, 고흥군 등)	()회
()	③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지역 (강원도 인제군, 평창군, 경남 진주시 등)	()회
()	④ 2005년 태풍 '나비'피해 지역 (울릉도, 전북 전주시, 부산시 등)	()회
()	⑤ 2005년 폭설피해 지역 (충남 정읍시, 논산시, 전북 고창군, 장수군 등)	()회
()	⑥ 2003년 태풍 '매미'피해 지역 (강원도 삼척시, 경남 마산시 등)	()회
()	⑦ 2002년 태풍 '루사'피해 지역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등)	()회
()	⑧ 기타()	()회

6. 다음 중 귀하가 참여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해주십시오.)

√표	재해구호 활동내용
	① 인명구조활동
	② 대피소 지원활동(급식, 세탁, 노약자 및 어린이 돌보기 등)
	③ 피해상황 정보수집
	④ 구호물품 운반
	⑤ 재해쓰레기, 토사 치우기, 재해지역 청소
	⑥ 방 정리 및 청소, 가재도구 세척
	⑦ 행정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업무보조
	⑧ 마사지·안마서비스
	⑨ 도배·장판수리
	⑩ 지붕수리, 화단이나 벽 보수공사
	⑪ 가전제품 수리 및 인터넷 통신 설치
	⑫ 농작물, 농업시설(비닐하우스) 복구
	⑬ 이·미용 서비스
	⑭ 의료 및 간병서비스
	⑮ 콘서트, 연극 등의 위로공연 및 심리치료
	⑯ 기타(구체적으로)

7.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시 귀하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합니까?

- ① 마지못해 하고 있다
- ② 소극적으로 하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다
- ⑤ 매우 적극적으로 한다

8. 귀하는 앞으로 재해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계속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하고 싶다.
- ③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할 생각이다.

II. 다음은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어보신 후에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시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 지않 다	별 그 렇 지 않 다	그 저 렇 다	대 체 그 렇 다	매 우 렇 다
1	나는 새로운 분야의 일이나 경험을 갖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2	나의 일상 업무나 직업생활에서 오는 경험과 다른 경험을 갖는데 자원봉사활동이 도움이 된다.					
3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					
4	나는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5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접촉을 하는데 자원봉사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6	다른 사람들과 폭넓은 접촉을 갖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7	주위의 특정한 사람들이 내가 자원봉사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8	나는 자원봉사활동 대상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다.					
9	나는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것을 좋아한다.					
10	내가 남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인정해 줄 것이다.					
11	나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며, 그 때에는 현재의 나의 정성과 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보답 받을 것이라고 느낀다.					
12	나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3	나는 새로운 지식이나 보다 나은 것을 배우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14	나는 자원봉사활동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8. 귀하가 살고 있는 곳과 재해지역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습니까? (승용차 기준으로) ()시간

9. 귀하는 재해로 인해 죽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① 없다 ① 가족 ② 친구 ③ 기타

10.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기관에 속해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까?
① 자원봉사센터 ② 재해구호협회
③ 정부조직 및 기업 ④ 기타()

11. 귀하가 위 기관에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년도

12. 귀하는 어떤 형태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① 개인 차원으로 ② 친구 및 가족과 함께
③ 소모임(동호회) 형태로 ④ 기타(구체적으로)

13. 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① 친구 및 가족의 권유로 ② 다른 자원봉사자의 권유로
③ 종교, 취미, 사회단체의 권유로 ④ 신문·방송을 통해
⑤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싸이월드, 해피빈, 기타 관련단체 홈페이지 등)
⑥ 포스터·홍보지를 통해 ⑦ 기타()

IV. 다음은 귀하가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어보신 후에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시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봉사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량을 적절히 배분한다					
2	내가 봉사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나의 재능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적절히 배치한다					
3	내가 봉사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킨다. (자원봉사 내용안내, 기관소개 등)					
4	교육받은 것이 실제로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5	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6	봉사활동 중 수시로 재교육(수시교육, 사례모임)을 시킨다					
7	재교육 받은 것이 실제로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8	재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9	나는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10	내가 봉사하는 기관은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적 복지를 잘 보살핀다(경조사, 주차지원, 탁아지원 등)					
11	내가 봉사하는 기관에서는 봉사자들간의 모임(사례모임, 친목모임)을 적극 지원한다					
12	내가 봉사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13	내가 봉사하는 기관은 봉사자의 봉사능력개발 및 양성에 적극적이다					
14	내가 봉사하는 기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15	내가 봉사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봉사활동 후 평가회를 갖는다					
16	내가 활동하고 있는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만족한다					
17	내가 봉사하는 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V. 다음은 귀하가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기관의 자원봉사 관리자 및 동료 자원봉사자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어보신 후에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시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 지않다	별로 그렇 지않 다	그저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기관의 자원봉사활동 관리자와 친하다.					
2	기관의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제안을 잘 받아들여 실행한다.					
3	기관의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로서 지켜야 할 규정을 명확히 제시해 준다.					
4	기관의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5	기관의 관리자는 친절하고 다가가기 쉽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 다	그저 그 렇 다	대체 로 그 렇 다	매우 그 렇 다
6	나는 동료 자원봉사자들과 관계가 좋다.					
7	나의 동료들은 나를 구성원으로서 꼭 필요로 한다.					
8	나의 동료들은 열성적이며 사명감을 갖고 활동한다.					
9	나의 동료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대화시간을 갖고 있다.					
10	나의 동료들은 서로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도와준다.					
11	나는 동료 자원봉사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VI. 다음은 귀하의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대한 지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어보신 후에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시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재해구호 자원봉사는 군인이나 행정일 할 수 없는 틈새를 찾아내어 피해주민 개개인에 대한 구호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특히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힘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도와주어야 한다					
3	재해지역은 오랜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4	재해구호활동을 할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5	힘들거나 피곤함을 느낄 때는 눈치를 보지 말고 쉬는 것이 좋다					
6	재해지역으로 가기 전에는 피해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접 파악한 후 가야 한다					
7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건은 개인이 모두 준비해 가야 한다					
8	재해현장에서 봉사자가 스스로 일감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9	재해지역에서 얻은 정보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피해주민 사생활 비밀보장, 부정확한 정보 금지 등)					
10	재해구호 자원봉사 후 정리활동은 중요하다 (장비정리 및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11	재해구호 자원봉사를 위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한다 (기관과의 약속, 피해주민과의 약속 등)					
12	재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나친 동정심은 삼가야 한다.					

VII. 다음은 자원봉사자를 하시면서 귀하가 느끼는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문항을 읽어보신 후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재해구호 자원봉사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 나에게 재해구호 자원봉사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잃은 느낌이 들 것이다.					
3 나는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대해 어떤 명확한 느낌도 가지고 있지 않다.					
4 내가 재해구호 자원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봉사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5 재해구호 자원봉사는 나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VIII. 다음은 재해구호 자원봉사를 하면서 본인이 소속된 기관과 관련하여 느끼는 생각입니다. 문항을 읽어보신 후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소속된 기관에서 하는 재해구호 자원봉사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 내가 소속된 기관에서 재해구호 자원봉사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잃은 느낌이 들 것이다					
3 내가 소속된 기관에서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대해 어떤 명확한 느낌도 가지고 있지 않다					
4 내가 소속된 기관에서 재해구호 자원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봉사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5 내가 소속된 기관에서 하는 재해구호 자원봉사는 나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IX. 다음은 귀하의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주변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문항을 읽어보신 후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해주세요.

1. 귀하의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부모님의 견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중요하지 않다
 - ③ 중요하다
 - ④ 매우 중요하다

2. 귀하의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친구의 견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중요하지 않다
 - ③ 중요하다
 - ④ 매우 중요하다

3. 귀하의 부모는 귀하의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활동에 대해 얼마나 좋게 평가합니까?
 - ① 나쁘게 평가한다
 - ② 별로 좋지않게 평가한다
 - ③ 좋게 평가한다
 - ④ 매우 좋게 평가한다

4. 귀하의 친구는 귀하의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활동에 대해 얼마나 좋게 평가합니까?
 - ① 나쁘게 평가한다
 - ② 별로 좋지않게 평가한다
 - ③ 좋게 평가한다
 - ④ 매우 좋게 평가한다

5. 지난 몇 달동안 귀하가 느꼈던 감정을 형용사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관심있는					
2	화를 잘 내는					
3	피로운					
4	민첩한					
5	흥미진진한					
6	수치스러운					
7	당황하는					
8	영감있는					
9	강한					
10	초조한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죄책감 있는					
2	단호한					
3	무서운					
4	주의깊은					
5	적개심있는					
6	신경과민의					
7	열심인					
8	활동적인					
9	자랑스러운					
10	두려운					

X. 다음은 앞으로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어보신 후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해주세요.

- 앞으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1, 2, 3순위를 써주세요.)

순 위	내 용
	① 교통지원(버스대절, 톨비면제, 열차 및 버스 할인서비스 등)
	② 식사제공
	③ 봉사장비 제공
	④ 숙박제공
	⑤ 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⑥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소득공제확인서 발급(사회제도적 인정)
	⑦ 다양한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⑧ 봉사자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초대(소그룹모임, 야유회 등)
	⑨ 자원봉사활동기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협력
	⑩ 감사패나 표창
	⑪ 기관행사시 초대
	⑫ 기타(구체적으로)

2. 다음 중 귀하가 생각하기에 재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원봉사활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1, 2, 3순위를 써주세요.)

순 위	내 용
	① 대피소생활지원: 급식, 세탁, 구호물품, 노약자 및 어린이, 부상자 돌보기
	② 주택복구활동: 토사제거, 가재도구세척, 가전수리 등
	③ 농작물 및 농어업시설복구활동: 농작물 청소, 비닐하우스 복구 등
	④ 심리적·정신적 위로활동: 콘서트, 연극, 기타 심리치료
	⑤ 기타 서비스: 이·미용 및 마사지·안마 서비스
	⑥ 의료서비스: 건강검진, 간병서비스
	⑦ 재해지역 경제복구활동: 재해지역 관광, 재해지역 물품 사기 등
	⑧ 법적 자문 및 컨설팅: 주택복구를 위한 대출 상담, 생계비 청구방법 등
	⑨ 기타(구체적으로)

X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표 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 세

3. 귀하의 학력은?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교 졸업(대학교 재학 포함)
- ⑤ 대학원 졸업(대학원 재학 포함)

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기독교
- ② 불교
- ③ 천주교
- ④ 유교
- ⑤ 무교
- ⑥ 기타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학생
- ② 회사원
- ③ 주부
- ④ 자영업(사업, 상업)
- ⑤ 공무원
- ⑥ 기능직, 근로생산직
- ⑦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목사 등)
- ⑧ 무직
- ⑨ 기타 ()

6. 귀하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① 50만원 이하
- 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③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④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⑤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

7. 현재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떻습니까?

- | | |
|------|------|
| ① 미혼 | ② 기혼 |
| ③ 이혼 | ④ 사별 |

8.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해주십시오.)

- | | |
|------------|---------|
| ① 혼자 | ② 배우자 |
| ③ 부모 | ④ 미혼 자녀 |
| ⑤ 결혼한 자녀부부 | ⑥ 기타 |

9. 귀하는 현재 귀하의 경제생활 수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나쁜 편이다 | ② 비교적 나쁜 편이다 |
| ③ 비교적 좋은 편이다 | ④ 좋은 편이다 |

10.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나쁜 편이다 | ② 비교적 나쁜 편이다 |
| ③ 비교적 좋은 편이다 | ④ 좋은 편이다 |

11. 귀하가 거주한 지역에서 재난(태풍, 홍수, 폭설, 가뭄,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① 있다 | ② 없다 |
|------|------|

12. 귀하는 재난(태풍, 홍수, 폭설, 가뭄, 화재 등)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 | | |
|------|------|
| ① 있다 | ② 없다 |
|------|------|

13. 귀하의 가족이나 친구, 친척이 재난(태풍, 홍수, 폭설, 가뭄, 화재 등)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4. 귀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십니까?

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② 도배 및 장판 기술

③ 가전 및 전기 기술

④ 의료 및 간호 기술

⑤ 대형차량 운전 기술

⑥ 노력봉사

⑦ 기타

15.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시, () 구(군)
() 도

마지막까지 성실히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